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제주평화연구원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발간사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국제협력의 허브”일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아시아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협력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연구활동은 물론 국제회의 개최와 강연회 등을 통해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는 협력외교와 평화연구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협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작은 보탬이 되려는 마음을 담아 이번에 제주평화연구원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연구를 선도해 오신 제주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진과 더불어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 경제살리기』를 출판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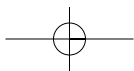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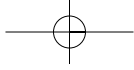
제주평화연구원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동아시아는 물론 궁극적으로 세계의 평화와 협력의 중심지 그리고 국제적인 평화연구의 허브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와 학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이 세계평화의 가치를 평화산업이라는 새로운 연구주제와 결합하여 새

제 1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있는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의 일환으로 평화산업이라는 연구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제주가 지역다자안보의 거점, 국제협력의 허브,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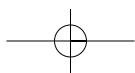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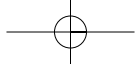
앞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제언을 주시면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며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의 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장 한태규



차례

- 제1장 들어가는 말: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이성우 · 3
- 제2장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양영철 · 13
- 제3장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타당성 검토
한림화 · 29
- 제4장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
염미경 · 49
- 제5장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고선영 · 64
- 제6장 평화축제 사업
박찬식 · 79
- 제7장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이광진 · 92
- 제8장 맺는말: 제주평화산업육성의 선결과제
고성준 · 111



제 1 장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 이성우

1. 들어가는 말

제주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환점은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한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원대한 포부를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목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선언적 천명이라는 한계도 있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볼 때,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52조와 2002년 1월 26일 통과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의 섬”을 통해 제주의 미래와 가능성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자하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주가 국제화를 추진하여 외국의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며,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소득향상과 제주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실질적 목표의식을 담고 있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현실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는 미래의 발전에 기초하여 세계화 차원의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수립하고, 남북한의 긴장 완화, 나아가 동북아의 긴장해소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공헌이라는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의 섬 제주의 실천적 및 철학적 과제와 근거를 모색할 수 있다. 제주의 미래와 발전을 실천적 과제라고 본다면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공헌은 철학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의 완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발전가능성의 담보라는 실천적 근거가 우선 달성되어야 한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이를 어떤 전략을 통해서 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한다.

제주도는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의 가운데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당위성, 4·3의 비극적 역사를 화해와 협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 3무의 전통에 근거한 제주의 문화적 당위성을 근거로 평화의 섬 제주의 개념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부여한 당위적 정당성이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당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역설적이게도 평화의 섬 제주는 국가차원에서 지정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히로시마, 독일의 오스나브뤼크, 스위스의 제네바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지만 국가의 지정 선포이외에 평화의 섬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무형의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채워나가야 하는 것은 제주의 발전적 미래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평화의 섬을 추진하는데 제기되는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왜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개념이 제주에 필요한가? 둘째,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셋째,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 1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평화의 섬의 의미에 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관념적으로 평화라는 우월한 가치에 의존하여 평화라는 개념에 매몰되거나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만을 상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평화라는 개념을 제주도의 미래와 접목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나 도정에 의해서 주도되는 관주도형의 평화의 섬보다는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현실적 이익이 담보되는 평화의 섬의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평화의 섬의 구체화와 관련한 논의는 17대 실천과제에 구체화되어 있다.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시한 실천과제를 보면 국제기구의 유치, 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동북아 협력기구의 창설, 동북아 평화연구소 설립, 대북한 협력 및 회담의 제도화, 4·3관련 평화사업추진, 평화교육의 추진 등이 있다(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2007, 18). 제주도 평화의 섬 추진위원회에 제출된 17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고양할 수 있는 유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이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기구의 지원이라는 행운도 따라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과제는 평화의 섬을 추진하는 제주도와 도민이 통제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모든 대내외적인 변수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평화의 섬을 추진하는 주체의 손을 벗어난 종속변수의 성격을 가진다. 17대 과제가 평화의 섬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정책과제라는 점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세계 평화의 섬이 선포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화의 섬이 달성한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당초에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서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주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수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본 연구는 평화의 섬 추진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평화와 평화산업의 개념: 평화의 섬 제주와의 상응성

1) 평화산업 개념의 발전

평화산업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피상적으로는 서로 조화되지 않는 두 가지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순어법(oxymoron)처럼 보인다. 주관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한 바람직한 상태로서 평화라는 정치철학적 개념과 기업의 이익창출 활동을 염두에 둔 산업이라는 경제적 개념의 결합은 아직은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임이 분명하다. 한국의 학계는 물론 세계 학계에서도 평화산업이라는 개념은 생소한 분야로서 체계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때문에 평화산업은 보다 많은 학문적 노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개척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Global Peace Index에서 평화산업(peace industry)은 평화롭게 번영하는 기업의(business) 활동이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폭력을 감소시키고 평화를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경제행위의 총체로서 산업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찍이 평화산업에 관심을 가져온 제주에서는 학자에 따라서 평화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으로 관광과 회의산업과 그리고 IT와 BT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고창훈 2007). 제주의 학계에서 이미 2007년부터 ‘평화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평화산업의 연구에서 적어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평화산업은 “평화를 핵심주제로 설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이 과정에

제 1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서 평화가 더욱 확산되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16). 저자는 다른 연구에서 평화산업을 평화사업과 대비하여 논의를 전개하면서 ‘평화사업’은 공적자금의 지속적 투입을 염두에 두는 반면 ‘평화산업’은 평화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이론, 지식, 가치관, 기술 그리고 경험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정부나 민간자금의 추가 지원 없이 평화연구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생적으로 운영 및 유지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이전 연구의 논의와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평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학문적으로 초보단계에 있고 확고하게 정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평화산업에 대한 기존의 개념정의를 평화의 섬 제주와 양립 가능한 개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의 현실을 고려하여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른 평화관련 연구에서 제시되어 지루한 감이 없지 않지만 먼저 평화에 대한 개념을 다시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산업에 대한 개념과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평화산업을 위한 평화의 개념정의

학문적 개념으로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평화는 현실적으로도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의적 및 다차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복합적 의미 구조는 평화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평화의 개념을 산업과 결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라도 평화의 개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문화적 접근에 기준해서 보면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의 라틴어가 말하는 평화(Pax)는 Pax Romana처럼 ‘힘에 의한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Pax Christi는 같은 평화(Pax)에 대하여 ‘사랑의 평화’를 의미하는 양면적 성향을 가진다. 희랍어의 평화(Eirene)는 ‘휴전’ 또는 ‘당사자 간의 약속에 의한 현상고착(status quo)’을 의미하고, 히브리어의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평화(Shalom)는 ‘완전함, 전체적 통일, 충만 등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러시아어의 미르(Mir)는 ‘평화와 세계라는 의미가 통합된 것으로 평화로운 세계와 전체적 완전성’을 의미한다. 인도어의 평화(Santi)는 ‘정신적 만족과 인간 내면의 조화와 통합’을 의미하고 동북아에서 우리의 평화(平和)와 중국의 화평(和平)은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와 동시에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지하고 제주의 평화를 논의할 때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최광의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평화연구에서 진행되는 협의와 광의의 개념규정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분석적으로는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가 적절하지만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는 데는 개념을 확대하여 폭력의 부재와 정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가 적절하며 가능하다면 정의가 충만하여 어떤 작위가 없어도 모든 것이 충돌 없이 운영되고 존재할 수 있는 조화(harmony)의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을 적용할 때, 평화와 관련된 활동을 중앙정부 보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나아가서 시민개인의 평화활동과 연계하고 이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3) 평화의 섬을 위한 “평화산업”의 개념

평화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함께 산업이라는 개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사업이란 ‘특정한 가치를 고양하고 전파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의 재정 및 인적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산업은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전제로 하여 생산자가 이윤을 최대화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평화와 관련해서는 평화사업과 평화산업의 개념을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는 등 용어 상 혼란이 있으므로 ‘평화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를 필요하다. 다시

제 1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말해서 ‘평화산업’이란 평화의 가치와 목적의 달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하고 외부의 재정 및 인적지원에 의존하는 평화사업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화산업’을 경제의 최소단위인 개인이 평화연구를 통해 축적된 이론, 지식, 가치관, 기술, 그리고 경험 등을 활용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나아가서 사회성원의 조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가운데 각자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정부나 민간의 인적 및 재정적인 추가 지원 없이 평화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생적으로 운영·유지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경제활동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주에서 평화산업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우선 천혜의 관광지인 제주의 특성을 활용한 생태 및 평화관광 산업과 생태환경관련 레저 및 스포츠 산업이 있다. 무공해 자연의 1차 산업을 활용한 친환경 슬로우 푸드(slow food) 먹거리 산업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부분이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가 가지는 미래 지향성을 위해서는 평화관련 예술 공연 및 전시사업, 국제 문화교류산업, 평화장터산업, 평화회의 산업, 평화교육 산업 등도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평화산업의 핵심분야라 할 수 있다.

3. 제주의 미래를 위한 평화산업의 활성화 방안

1) 개념상 혼재와 통합이론의 모색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정 선포된 ‘평화의 섬 제주’는 ‘기획으로서 평화의 섬’이라는 점에서 ‘유산으로서 평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다른 평화도시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양길현 2007, 68).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본의 히로시마, 독일의 오스나브뤽, 스위스의 제네바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와 같은 세계의 다른 평화도시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정되었지만 이는 유산으로서 평화의 섬을 지방정부가 재확인하는 것이지만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기획으로서 평화의 도시란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기획으로서 평화의 도시란 오늘날 인류가 처한 문제의 세계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차원에서 사회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사고와 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주에서 평화의 개념을 구성원 사이의 정의와 조화가 포함되는 최대 광의로 설정하고 평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제주의 미래의 발전상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판단된다.

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의 제주는 상호보완적이며 상생조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 목표 설정은 타당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온당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추진전략은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세계의 다른 평화의 도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평화의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내외에서 공감대와 합의를 자연스럽게 도출해냄으로서 평화의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산으로서 평화의 도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주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정되었다는 점이 관주도형 개발모델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한계가 될 수 있다.

제주는 세계의 다른 평화도시와 달리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주변의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도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 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적극적으로 기획으로서 평화의 도시 또는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아직 3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개념화와 실천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직은 장엄한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와 비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주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정이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평화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긍정적

제 1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인 차원에서 논의하자면 기획된 평화의 섬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 넣을 것인가는 다시 고려해 보아야하며 세계의 다른 유산으로서 평화도시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평화산업의 활성화는 부족한 자원의 보완과 효과적 홍보를 통한 대내외적 공인을 획득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논의가 때로는 평화의 섬 개념과 제주경제의 미래와 혼동되면서 평화의 섬 제주가 발전 방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개념이 한꺼번에 발표되면서 개념적으로는 물론 실천 전략 측면에서도 분리가 어려웠던 점이 있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제자유도시의 발전이 평화의 섬 개념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런 혼란 아닌 혼란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재는 결국 평화의 섬 개념과 제주 경제의 발전상과 동일하다고 간주하거나, 평화의 섬 개념이 제주 경제의 발전상을 위해 종속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주 경제의 발전이 평화의 섬을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논리의 전개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획으로서 평화의 섬 제주는 중앙정부의 기획에 의해서 금융, 회의, 교육, 의료, 일차 산업, IT 그리고 BT와 같은 다양한 전략적 산업영역을 선정하여 제주의 발전과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하였다. 기획으로서 평화의 섬이 중앙에 의한 전략을 통해 발전을 담보해나간다면 궁극적으로 미래의 발전된 제주의 경제가 평화의 섬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현재 존재하는 개념의 혼재를 극복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의 발전이 평화의 섬 제주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기획으로서 평화의 섬 제주가 발전으로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핵심이 된다면 제주의 미래발전상을 의미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개념과 평화산업은 서로 양립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된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화의 섬 제주가 요구하는 평화의 개념은 적극적인 개념의 평화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의 평화와 상통한다. 기획으로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서 평화의 섬 제주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도정과 도민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연장선에서 고려해 본다면 도민의 기대는 때로는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제주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나 국제사업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다. 평화의 섬 개념의 발전에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이나 법제개정은 중요한 정책수단일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평화의 섬 개념의 발전에 본질은 아니다. 평화의 섬 제주의 발전에는 도민의 주체적 및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 제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있어서 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을 조화시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도모하는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김성순 2006, 29).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효율성면에서 뿐 아니라 정책의 도덕적 정당성 면에서도 렌트를 추구하는 중앙의 지원에 기대는 접근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평화산업의 전략이 적절하다. 민간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당성보다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이 이윤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평화산업 전략은 제주의 미래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평화산업의 방향과 내용

평화의 섬 제주의 세 가지 차원의 배경으로 4·3의 역사적 배경, 3무 정신에 근거한 제주도민의 생활문화, 동북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전진기지로서 역할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양길현 2007, 69-71). 이처럼 평화의 섬의 이론적 배경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논의에는 특별한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 평화의 섬 제주의 개념의 구체적 발전방향이나 실천전략에 있어서는 도정, 학계, 문화계, 예술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주요인사들 사이에 평화의 섬이 가지는 다양한 측

제 1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면의 총체적인 불충분성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듯하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역사적 유산으로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추가하여 기획으로서의 평화의 섬의 정의와 가치의 구현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자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4·3의 아픔을 씻고 화해와 상생으로 전진하는 역사성에 제주의 3무정신이라는 제주 고유의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평화로운 시민문화, 축복받은 자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평화로운 자연환경이라는 주어진 유산으로서의 평화의 섬에 중앙정부의 지정이라는 계획의 측면을 추가하여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의 섬에 주어진 기본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그리고 계획적인 다양한 측면 중 그 어느 측면도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대한민국과 동북아 나아가 세계적으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인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평화의 섬이 현재 안고 있는 불충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도민이 염원하는 평화의 섬 이미지의 확대와 이를 통해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평화의 산업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없다. 평화의 섬이라는 선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정,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평화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평화의 섬 제주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한다. 순서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어있지만, 도민의 자발적 참여가 주축이 되고 도정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제주의 평화산업이 구체화되고 실천하는 노력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때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고 국제기구의 협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국제기구의 조력과 같은 외부적 상황은 평화의 섬 제주의 성공에 따른 보상과 같은 것이지 그 자체가 평화의 섬을 구성하는 본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근거해서 평화의 섬과 평화산업의 공동발전을 추구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하는데 제주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성해나가는 노력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법제개선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도정과 도민이 합심하여 노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와 그 산하에 평화협력과를 설치하여 '평화의 섬, 제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정은 도민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집약하여 효과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평화의 섬 제주를 구체화할 수 있고 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의 발전된 미래상에 대한 도민의 염원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의 섬과 평화산업에 대한 일반론적인 논의를 근거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세부사항들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평화의 섬의 개념을 확대하는데 유용한 아이디어는 항상 열린 장으로 만들어 다양한 의견이 발표되고 창의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평화회의의 산업, 평화금융업, 친환경 1차 산업 등 많은 분야들이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못했지만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평화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 채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제한된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풀뿌리 평화운동을 논의할 2장에서는 제주 시민이 주된 참여자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구체화 될 수 있는 장으로서 평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제주의 평화산업은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평화의 섬 출범이후 평화운동 또는 평화의 섬에 대한 행사는 관이나 학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평화에 대한 체감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평화운동의 장에서는 도민들의 지혜와 노력을 활용하여 평화의 섬의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나가

제 1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야 할 것이다. 풀뿌리 평화운동의 추진 주체는 주민자치센터나 여건에 따라서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지역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제주의 전통을 평화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민 참여의 방안으로는 마을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설화, 유물, 축제 등에서 평화와 관련된 것을 발굴하여 제주의 평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유무형의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데 문화와 예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3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주에서 연중 풍성하게 열리는 전시회, 공연, 연주회, 음악회와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 중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행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평화의 섬에 걸맞은 이미지를 창출해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인의 노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평화의 테마거리에 연주회, 전시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도 전역에서 치러지는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평화의 섬 제주의 문화를 창출하는 핵심 거점을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방안은 대중의 인기가 높은 문화 예술 공연을 상설화시켜 추진함으로써 평화산업으로서 평화공연사업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에 있어서 제주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보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평화공연사업을 상설화함으로써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 섬 제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부분이 다문화사회로서 제주의 역량강화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3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내에 약 3,5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에 결혼을 통한 이민자는 76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지만 제주가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평화의 섬의 문화를 형성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해나가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소수로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언어적, 문화적인 부분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사회에 적응은 어려운 과정이다. 외국인 배우자의 적응에 대하여 도에서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행정지원보다는 이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배우자들의 문화적 배경을 활용할 수 있는 평화문화교류장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에 거주하는 국제결혼배우자들이 참여하여 국제도시로서 제주의 면모를 제고하는 동시에 외국인 배우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문화적 적응 및 자국문화에 대한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품물시장이나 세계 음식문화장터의 상설화는 평화의 섬 제주의 중요한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측면의 확보는 물론 사회문화적 간접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 다룬 환경생태 레저사업은 한국 최고의 관광지로서 제주의 본연의 고유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인 만큼 관광지로서 제주의 평화산업에 대한 사전연구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역사문화관광, 생태관광, 스포츠 및 레저관광, 크루즈 해양관광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는 회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어 그 중요성과 타당성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관광과 스포츠 및 레저관광을 결합하여 평화의 섬 제주를 국내의 스포츠 및 레저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이지만 국내외의 스포츠 레저인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의 구축과 경제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인프라구축으로 발생하는 개발과 환경보존의 적절한 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제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4·3의 의의와 평화산업과의 조화에 대해서 6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평화의 섬 제주를 논의할 때 4·3의 역

제 1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모색하는 비전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언급해왔다. 제주라는 지역적 시각에서 뿐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4·3의 역사가 가지는 의미는 민주화, 인권, 남북통일, 국가관 등의 이슈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권력내부에서 4·3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4·3 희생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통해서 과거사의 과제를 해소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일 보냈지만 여전히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이 현실이다.

모든 사회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갈등은 명시적으로 논의되는 것조차 금기시 되지만 이러한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가 안고 있는 현대사의 아픔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소모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4·3을 제주의 슬픔과 원망의忌日에서 화해와 평화의 축제마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역사의 희생자를 위로하고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4월에 제주전역에서 진행되는 4·3관련 행사를 평화의 대 개념으로 결합하여 제주의 역사, 자연, 그리고 문화와 결합하여 도민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할 수 있는 장의 마련과 평화축제의 주제와 행사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7장에서는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문화적 아이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우선고려 되었다. 이를 위해서 평화의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시도한다. 평화의 거리 선정과 평화의 거리에 들 어설 다양한 인적 및 물적 구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평화의 거리가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평화의 섬의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와 평화산업의 구체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과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 고창훈. 2007. “제주평화산업의 전망과 과제.” 『평화연구』. 18. 1.
- 김성순. 2006. “세계화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국제협회의회 외 공편.
『제주민생의 살 길』. 도서출판 오름.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2007. 제주 ‘세계평화의 섬’ 성과와
실천전략.
- 양길현. 2007. 『평화변영의 제주정치』. 오름.
- 염미경. 2008. “다문화사회, 제주의 지원서비스체계와 인권교육의 방향.”
제1차 평화통일 전문가 한마당: 통일관련 대내외 정책의 지
속과 변화. 2008년 5월 9일 - 10일.
- 제주발전연구원. 2008. 『‘세계평화의 섬, 제주’ 와 평화산업: 기회와 도
전』. 보고서.
- Galtung, Johann.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 Boulding, Kenneth. 1978. *Stable Peace*. 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제 2 장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양 영 철

1. 들어가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 제주도는 소극적 개념 차원이든, 적극적 개념 차원이든 전 역사가 반 평화지대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평화 무풍지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오랜 가난이 평화무풍지대의 인프라였으며, 중앙정부의 유배지로의 이용과 출육 금지 등 육지로 부터의 의도적 고립정책은 평화무풍지대를 고착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평화무풍지대의 장기화는 결국 전쟁사에 최악의 내전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4·3사건을 폭발시켰다.

현재는 가난이 물러가고 정부의 시혜적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4·3사건의 후유증은 널뛰기처럼 변화무쌍하다. 이제는 세계 정상들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시화 되었고, 수많은 세계 석학과 유명정치인들이 모여 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평화포럼이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4·3사건을 화합으로 승화시키기 위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하여 제주도를 세계 최초의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이제 제주는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가 했더니,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4·3사건’은 좌익무장폭도들의 반란의 장소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왜 계속 이렇게 평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도의 환경은 변화무쌍한가.

지금까지 제주에서 평화운동은 한국의 평화운동을 주도했다고 할 정도로 이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도 단연 일등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평화포럼이 2년 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고,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이 설치된 자체가 평화운동의 선도지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인 기관형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운동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위축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평화운동이 상승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널뛰기, 또는 위축되어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평화운동의 층이 너무나 얇다는 것이 본 글의 출발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운동의 주도세력이 지나치게 관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평화운동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화에 의해서 정착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화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를 주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까지 위협한다는 경고를 늘 듣고 있다(Russel J. Dalton, 2006).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평화운동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이 늘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점점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시들해져 가는 속도만이 가증될 뿐이다. 따라서 제주의 평화운동은 이제 행정과 명망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풀뿌리 평화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 글의 중심 내용이다.

본 글은 소고적 차원에서 쓰고 있다. 그 이유는 풀뿌리 평화운동이라는 개념조차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작금에 풀뿌리 평화운동의 이론적 근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란 난망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은 시론적 시각에서 쓰는 글일 수밖에 없음을 본 글의 한계로 정하고 출발하고자

제 2 장 ...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한다. 본 글은 지금까지의 평화운동에 대한 문헌, 특히 제주도 평화운동에 대한 논문, 보고서 등을 중점적으로 참고하면서 제주도라는 공간에 한하여 평화운동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글은 풀뿌리 평화운동의 개념 정리를 시도할 것이며, 풀뿌리 평화운동에 대한 원칙과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는 순으로 전개할 것이다.

2. 풀뿌리 평화운동의 개념

1) 풀뿌리 평화운동의 개념정의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주주의 원리 중의 하나는 주민의 참여에 의한 정치이다. 일반국민의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는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로서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라고 부른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주권자로서 지방사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며, 국민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라는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한다(강용기 2008).

중앙정치는 주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엘리트 관료들이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한정이 있다(양영철, 2007). 그러나 지방자치는 행정, 정치가 주민과 직접 접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제1의 원리일 수 밖에 없다. 바버(Barber)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도 주민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대적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즉, 강한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과 상호간의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주민(citizen)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운용되는 사회를 의미한다(Bejammin R. Barber 2003). 이처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이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며 이것이 곧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천시키는 가장 현대적 민주주의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평화운동도 주민이 주도하는 평화운동일 때만이 진정한 평화운동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장은 세계적인 평화실천가들에 의해서도 주장된다. 체코의 민주화를 평화적으로 이끌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된 하벨도 평화운동은 “힘없는 자들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으로 갈파하였고, 미드 여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헌신하는 소수의 시민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진실로 세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을 만들어 낸 이들은 바로 그들이다 (스코트 A. 헌트 2003). 확인필요

우리나라의 최대 평화운동자로 추천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함석헌 선생도 씨울사상에서 평화사상은 ‘지위도 없이 권력도 없이 그저 땅을 디디고 서서 전체를 위해서, 전체라는 것을 의식도 못하면서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또 봉사하다가 가는 사람들’이며 이는 본질적 평화로서 음지에서 고난 받는 민중이 평화운동의 주역이 되어 온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는 사상으로서 특히 평화교육과의 관련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진창남 외 2007).

필자는 상기의 의미들을 담아 풀뿌리 평화운동이란 “주민들이 주도적·자율적으로 협력·조정하면서 평화를 생활화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풀뿌리 평화운동의 개념적 요소

앞에서 풀뿌리 평화운동이란 “주민들이 주도적·자율적으로 협력·조정하면서 평화를 실천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에 대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1) 주민

풀뿌리 평화운동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은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행

제 2 장 ...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정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현재의 추세가 대의정치로 인하여 주민의 실질적 지위가 위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은 여전히 지방자치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풀뿌리 평화운동에 있어서도 주민은 주체인 동시에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풀뿌리 평화운동의 개념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2) 주도권

여기서 말하는 주도권이란 풀뿌리 평화운동의 전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말한다. 풀뿌리 평화운동의 전 과정은 기획, 집행, 평가과정을 말한다. 주민들이 평화운동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계획의 수립,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 집행 후에 평가 및 환류(feed back) 과정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풀뿌리 평화운동의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다.

(3) 자율적 활동

자율적 활동이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적이란 주도권을 포함한 책임까지 포함한다. 주도권은 풀뿌리 평화운동의 전 과정을 중심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활동에는 권리와 의무, 책임감이 있다. 이들 간에 불일치가 된다면 명분 또는 실리 면에서 불균형이 나타난다. 따라서 자율적 활동은 이들 간에 일치, 즉 권리와 책임, 의무의 일치를 말한다.

(4) 협력적 활동

협력적 활동이란 거버넌스(governance)적 개념이다. 이는 풀뿌리 평화운동 집단 및 세력 간에 연대를 통한 운동을 말한다. 평화운동과정을 보면 여러 세력과 집단들이 다양한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평화운동을 함으로서 거버넌스에 의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기관 및 단체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외에 세력과 단체 간에 협력은 풀뿌리 평화운동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5)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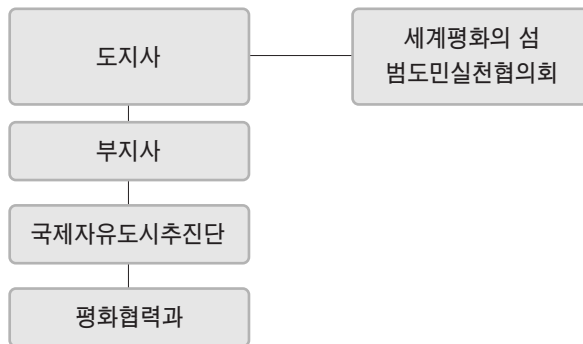
생활화란 평화운동의 계획과 집행, 평가 전 과정의 일반화를 말한다. 일반화란 주민들이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의 평화운동을 말한다. 정치와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문화 자체가 항상 평화이념과 수단이 기본이 되는 것을 풀뿌리 평화운동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다. 풀뿌리 평화운동의 생활화는 관료의 책상에서,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중심이 되는 계획과 논의 과정에서 벗어나 평화운동이 일반 주민과 함께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3. 풀뿌리 평화운동의 개념적 요소를 통한 제주평화운동의 평가

1) 관중심의 평화운동

현재 제주도의 평화운동은 '관' 중심이다. 평화운동의 추진 기구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제주평화의 섬 추진 기구



제 2 장 ...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상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평화의 섬 관련 추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교통상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 중 외교통상부는 제주평화연구원을 설치하여¹⁾ 동북아 평화연구와 실천방안,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의 실현 방안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중앙정부, 특히 지방의 문제에 가장 초월했던 외교통상부가 지방인 제주도에 제주평화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외교통상부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 교육, 산업을 실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평화협력과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평화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문기구로서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연구 및 분위기 확산은 중앙정부기구인 제주평화연구원이, 실천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담당하는 이원적 체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직구조를 볼 때 제주평화의 운동은 ‘민’이 아니라 ‘관’이 주도하고 있다. ‘관’도 최고 상층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을 뿐 일선기관인 시·읍·면·동에는 관련 조직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조직구조 및 운영 양태로는 제주평화 운동은 주민 속으로 스며들 수가 없다. 지역 평화운동이 그 성격상 지역주민이 주도 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평화운동 추진기구의 민간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1) “<http://www.jpi.or.kr/contents/?mid=KR1011>”는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세계평화의 섬, 제주” 구현의 중심체로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실현하는 평화거점화 사업의 결정체로서 설립되었다. 또한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도민의 복원적 평화 애호성을 상징하는 3무(三無)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2) 동원되는 주민

‘관’이 활발하면 주민은 이에 따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수동적 자세로 변화한다. 왜냐하면 관이 주도를 하면 모든 계획과 집행이 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와 능력과는 거리가 있게 마련이며, 이는 결국 주민은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현재 제주평화운동 및 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의 섬 지정의 역사가 일천한 원인도 있지만 항상 행정이 선도하고 주민들은 따른다는 과거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에는 대체로 3가지 방법이 있다(이종수 2006). 첫째, 외부주도형으로서 고객인 주민, 국민이 정책과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형이다. 둘째, 동원형으로 행정이 정책과정을 주도하고 주민을 설득 또는 강제화하면서 따르도록 하는 모형이다. 셋째, 내부 접근형으로 행정이 고객인 주민 또는 국민도 모르게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모형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동원모형에 익숙해져 있다. 제주평화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평화사업은 제주도청의 것이 아닌 제주도민들의 것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야 할 때다.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사업은 일차적으로는 제주도민의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주도민의 사명감과 주어진 책임의식일 것이고, 또 제주도민의 개방성·역동성·자율성일 것이다(양길현 2006).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평화운동이 전개될 때 지방정치에 관계없이 그 전통을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이며, 정파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운동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3) 거버넌스의 미 정착: 나홀로 평화운동

제주의 평화사업의 역사적 차원은 4·3의 아픔으로부터 시작한다. 세

제 2 장 ...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계평화의 섬 지정은 4·3의 아픔을 씻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찾아나서는 제주도민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기리기 위함에 그 중요한 하나의 의의가 있다(양길현 2006).

이러한 역사적 의미, 즉 상생의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인 평화운동이 정착 행정 간, 주민 간, 행정과 주민 간은 나 홀로 평화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단체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평화사업을 전개할 뿐 상호 협력에 의한 평화사업은 아직 시행 전 단계이다.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나홀로 평화운동과 사업을 시행한 결과 중복 내지 때로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열악한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에 의한 평화운동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경쟁보다 신뢰, 고객이기보다 덕성을 지닌 시민의 참여, 효율성뿐만 아니라 참여와 합의, 공동체적 연계망의 구축을 주제로 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의 재생이 필요한 시점이다(최승범 2008).

4) 대형화 및 실내화: 국제, 평화포럼, 구호화

제주도의 평화운동의 시작은 귀납적이기 보다는 연역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경험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방향이 결정된 후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평화운동과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민과 동떨어진 사업들이 중심이 되어 평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정부로부터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은 후에 제주도는 17개 사업을 추진하였다.²⁾ 이 중 대부분이 기관 설립이거나 국제회의 개최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그동안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2007. p. 41.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에 의한 17대 사업이란: ①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② 국제평화센터밀랍인사 섭외, ③ 제주국제평화센터 컨텐츠 확보, ④ 모슬포진적지 공원조성, ⑤ 동북아 물교육중심지로 성장, ⑥ 남북장관급 회담개최, ⑦ 감귤보내기 운동, ⑧ 제주평화포럼개최, ⑨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⑩ 제주 4·3 유적지 보존관리, ⑪ 4·3 진상 보고서국사교과서 활용, ⑫ 4·3 추모일 제정, ⑬ 평화교육지원, ⑭ 평화관련국제회의 개최, ⑮ 국제기구설립 및 유치, ⑯ 민족평화축전개최, ⑰ 동북아평화협력체 창설추진.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사업이다. 즉, 세계 및 동북아 평화, 남북교류 등 제주도 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내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수정될 줄 모르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한 2009년 평화의 섬 사업내용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2009년도 평화의 섬 추진 중점 사업 내용

- 1) 제주평화포럼을 국제 수준의 포럼으로 육성
- 2) 국제평화도시회의 개최
- 3) 세계평화의 섬 지정 실천사업 강력 추진
- 4) 제주평화대공원(가칭) 조성사업 추진
- 5)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개선
- 6) 투자유치·핵심산업 지원 등을 위한 교류 확대
- 7)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국제적 역량 강화
- 8) 외교통상부와 협력 강화, 중앙과 지방간 협력모델 정립
- 9) 60만 재외도민 활동지원 강화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

2009년도에도 역시 지역주민과 관련된 평화사업보다 외형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형적인 사업이 덜 중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평화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평화사업에 익숙해지고 지역분위기가 어떠한 평화사업과 운동도 수용할 수 있는 소위 “받을 그릇”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평화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장보다 실내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의 세미나, 회의, 회담 등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지역주민들과는 늘 동떨어져 있다. 현장에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이러한 평화사업과 운동들은 항상 실내에서 이루어

제 2 장 ...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용, 구호용이라고 폄하하기 쉽다. 비록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와 회담이라도 항상 현장도 중시하여 주민과 연대하는 공연, 시연 및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현장 방문이라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풀뿌리 평화운동의 추진 방향

1) 평화사업추진 단위는 마을 공동체 중심

풀뿌리 평화운동의 단위는 마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도 단위, 국가단위의 평화사업은 주제를 광역적, 국가적 성격에 한하여야 하며, 마을 단위의 평화사업까지도 단위에서 실시한다면 평화사업은 겉치레에 머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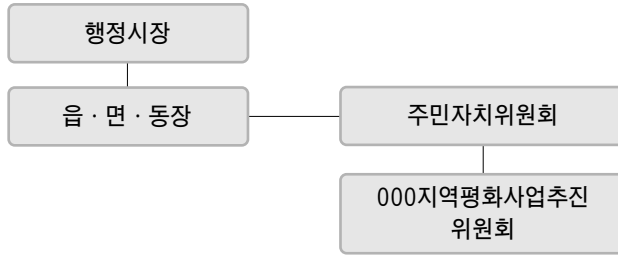
마을 공동체 중심의 평화사업은 풀뿌리를 튼튼하게 하여 평화의 근착을 도울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지역주민이 바라는 평화로운 마을, 평화로운 제주로 가는 첩경일 것이다.

마을 청년회, 마을 부녀회, 마을 노인회, 마을 학교 등이 연계가 되어 마을의 평화사업의 전 과정을 토론하고 시행하는 과정들이 직접 이루어져야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이지, 현재와 같이 세미나, 회의, 시설 중심의 평화사업에 치중되는 한 제주지역의 평화운동은 뿌리내리기 어려운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제주평화사업은 마을 공동체 단위의 평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제주평화사업의 추진 조직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평화사업의 총괄을 도청이 독점하는 체제에서 <그림 2>과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평화사업과 평화운동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그림 2>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평화운동 조직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법정기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하부 행정조직인 43개의 읍·면·동에 전부 설치되어 있다는 점과 동시에 구성인적 사항이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고 지역의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³⁾

<표 2> 직종별 주민자치위원 구성

(단위: 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1,217(390)	100(100)	758(233)	100(100)	459(157)	100(100)
자영업	301(62)	24.7(15.9)	190(23)	25.1(18.5)	111(19)	24.2(12.1)
통리반장	89(7)	7.3(1.8)	61(7)	8.0(3.0)	28(0)	6.1(0.0)
직능단체	117(40)	9.6(10.3)	96(28)	12.7(12.0)	21(12)	4.6(7.6)
주부	142(142)	11.7(36.4)	94(94)	12.4(40.3)	48(48)	10.5(30.6)
회사원	79(14)	6.5(3.6)	39(5)	5.1(2.1)	40(9)	8.7(5.7)
전문직	45(11)	3.7(2.8)	29(5)	3.8(2.1)	16(6)	3.5(3.8)
비영리민간단체	65(19)	5.3(4.9)	45(12)	5.9(5.2)	20(7)	4.4(4.5)
농축산업	310(86)	25.5(22.1)	158(35)	20.8(15.0)	152(51)	33.1(32.5)
기타	69(9)	5.7(2.3)	46(4)	6.1(1.7)	23(5)	5.0(3.2)

자료: 제주도 내부자료, 2007. 12월말 현재, ()는 여성위원 숫자임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그동안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2007. p. 41.

제 2 장 ...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 구성을 직종별로 보면 총 위원 1,217명 중 농축산업 종사자가 310명(25.5%)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자영업 301명(24.7), 주부 142명(11.7%), 직능단체 117명(9.6%), 통리반장 89명(7.3%), 회사원 79명(6.5%) 등 매우 다양하게 인원구성이 되어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동체 중심의 반관반민 조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평화운동과 평화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성을 비롯한 지연성 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 사료된다.

2) 지역자원(지연자원)을 최대한 활용

현재 제주에서 개최되는 평화사업은 수백억씩 투입하고 있다. 재정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러한 규모의 투자는 획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각종의 세미나와 회의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주도를 세계에 알린다는 커다란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수십·수백억을 투입하여 얻기에는 너무 낭비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평화에 대한 각종의 세미나와 회의는 “제주는 평화의 전당”,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도 평화에 대한 홍보는 제쳐두고 “관광지로서의 제주”에 대한 홍보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원인은 풀뿌리 평화사업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제주에서 평화운동을 보여 줄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지연자원)을 통한 평화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LG 경제연구원은 앞으로의 상품조건은 지역의 문화와 연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세계화, 정보화라는 메가트렌드의 영향 아래서의 성공적인 전략적 제품으로서 고려해야 할 생산조건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를 제품에 녹일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기업제품의 경우 새로운 것이라도 복사와 모방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화라는 것은 모방이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역의 문화를 상품에 녹여 팔 수 있는 문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화융합상품이 미래의 제품으로서 적절하다는 주장이다(제주발전연구원, 2005). 제주평화운동이나 사업에도 바로 이러한 요소가 강력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자원은 그 자체가 갖는 독특성, 주민들이 다루기 쉬우며, 특히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어느 자원보다 경쟁력이 있다. 마을의 민요와 민속, 마을의 풍습, 마을 축제 등 마을의 전통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나 축제화 하는 일은 지역주민들이 최고의 연출자이자 배우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여기에 현대적 의미에서의 각색만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면 훌륭한 작품이 탄생될 것이다. 스페인의 까탈루냐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결국 평화운동으로 승화된 예는 제주사투리도 평화운동이나 평화사업에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홍두승 외 2005; L. Ortiz-Griffin 2003).

설령 그것이 좋은 작품이 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학습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평화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들 지역자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공동체 형성 등 평화사업과 평화운동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생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변에 너무 흔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돌담을 평화의 상징으로 활용하지는 주장도 있다. 제주 돌담은 기능상 또한 특성상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잠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돌담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보면 농촌경관자원평가조사에서 돌담의 중요도는 4.44(5점 척도)로서 18개 경관자원 분야 가운데 전통가옥, 전통마을 컴퓨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 돌담의 경관도는 더욱 높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이 돌담을 돌 문화 공원과 연계하여 평화의 상징, 또는 평화운동의 소재로 활용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 2005; 2008).

무형풍속의 경우도 자료는 무궁하다. 일례로 신구간 풍속을 이용한 평

제 2 장 ...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화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제주섬의 민간에서는 신구간, 즉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까지는 신세관(新歲官)과 구세관(舊歲官)이 교승(交承, 일종의 교대)하는 과도기이어서, 이 기간에는 대체로 모든 신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지상에는 신령이 없는 기간이므로 평소에 꺼렸던 이사나 집수리를 한다.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에는 여러 신들이 옥황상제에게 올라가고, 또 그 신들이 많은 일거리들을 처리하느라고 인간세계를 보살필 겨를이 없는 틈을 타서 평소에 꺼려했던 일들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지만, 평상시에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가는 동티가 나서, 그 집에는 큰 가환이 닥치고 액운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윤용택 2008). 이렇게 신구간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풍속이다. 이 기간을 신이 없는 “평화의 기간” 역으로 제주도를 지켜 주는 신들의 부재기간이기 때문에 “평화위험기간”으로 설정하여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이 또한 제주도에만 있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아무런 비용 없이 훌륭한 평화운동 내지 평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흔한 자원을 귀하게 여기는 사업을 평화사업으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은 평화사업과 운동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평화운동과 사업은 비로소 생활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비정치화, 장기화, 소박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한 고려다. 자치단체장도 정치인이다. 정치인의 일차적 목표는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일임은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거의 같다할 정도로 보편적이다. 따라서 평화사업과 운동이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평화의 사업과 운동은 자치단체장에게는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자치위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원회와 같은 일선조직에 자신의 정책인 평화사업과 운동을 연계할 수 있으면 자신의 재선에 금상첨화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풀뿌리 평화운동과 사업은 더욱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숨겨진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를 도구적이고 수단적으로 활용하려는 성향이 있다(이승중 2008). 그러나 이러한 매력이 지역주민에게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식되면 그 효과가 반감 내지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현직 또는 후보자의 지지 성향에 따라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의 소지만 제공할 뿐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단기적 효과성에 치중 한다. 행정의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그 정책이 당장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일년주의 예산구조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장기적인 효과보다 단기적인 효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추상적인 정책보다 구체적인 정책, 즉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다. 평화연구원의 설립, 평화포럼, 평화센터, 평화공원 등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풀뿌리 평화사업과 운동은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효과와 관련된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효과 분야에 치중하든지 아니면 민간단체가 주도하게 하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하게 된다.

셋째, 크고 화려하게 출발한다. 지방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시작할 때는 크고 화려하다. 제주평화사업도 마찬가지다. 17대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몇 가지 사업의 규모를 보면 재정 투자가 엄청나다. 특히, 제주도의 재정 여건과 비교하면 이러한 대규모의 투자는 담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출발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1회성에 그치거나 아니면 점차로 멀어지게 만든다.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화려하기 때문에 전문가 위주, 유명 인사 위주, 전문성 위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

제 2 장 ...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의 공간은 있을 수가 없다. 평화포럼 등 위에서 제시한 17대 평화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에 주민참여가 전무하다시피 한 현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크고 화려한 마당에서는 풀뿌리 평화사업과 운동이 뿌리내리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 보면 풀뿌리 평화사업과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정치화, 장기화, 소박화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비정치화와 장기화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기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박화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소박화란 적은 기술과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대형화, 고급화에 대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낭비의 원천이라고 할 정도로 재정의 낭비가 가장 심각한 공공조직이라는 오명도 안고 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낭비를 하고 있음은 분명한 모순이다.

최근 중앙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의 발전을 꾀한다는 균형발전정책 하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표 3>는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마을 가꾸기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지원한 사업과 금액이다. 11개 사업에 80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어렵잡아도 100억대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2008).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표 3>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현황 (중앙부처사업) - '08.6월말

사업명	중앙부처	도 추진부서	사업비	계도내 선정결과
계(11개 사업)	6	7		80마을 (중복선정포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정안전부	마을만들기팀	3년간 20억원	1마을(전국 30)
정보화마을	"	정보정책과	3억 내외	17마을(전국 338)
농촌마을종합개발	농림수산 식품부	마을만들기팀	5년간 50억내외	3권역(전국 132권역)
녹색농촌체험마을	"	"	2억원	10마을(전국 363)
어촌체험마을	"	해양자원과	5억내외	6마을(전국 87)
전원마을조성	"	농업정책과	10억내외	2마을(전국 70)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2~7억원	4마을(전국 170)
농촌 건강장수마을	"	"	3년간 1.5억내외	12마을(전국 434)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국토해양부	마을만들기팀	마을 1~3억원 도시 20억이내	1도시, 2마을 (전국11도시, 45마을)
자연생태 우수마을	환경부	환경정책과	환경사업 우선지원	10마을(전국 96)
농촌 팜스테이마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연간 3천만원 내외	6마을(전국 260)

자료: 제주도 내부자료, 2007. 12월말 현재, ()는 여성위원 숫자임

이러한 지원은 중앙정부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 자체도 마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표 3-1>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로 마을 만들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6개 사업에 79개 마을이 대상이다. 금액은 중앙정부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제 2 장 ...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표 3-1>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현황(자체사업) - '08.6월말

사업명	추진부서	행정시 추진부서	사업비	선정결과
계(6개 사업)	1	3		79마을 (중복선정포함)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만들기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제주시 행정기획과 서귀포시 자립마을육성팀	마을당 1억원	'08년 신규 (6개 마을 예정)
주민자치센터	"	제주시 행정기획과	센터당	43개 전 센터
특성화 사업	"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15~40백만원	차등지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제주시 품격높은도시조성과 서귀포시 자립마을육성팀	마을당 20백만원 ('07년30백만원)	'07년 20마을
베스트 특화마을 육성		제주시 행정기획과	마을당 5~20백만원	'07년 27개 마을
농어촌지역 특화사업 육성		"	마을당 50백만원	'08년 신규 (6개 마을 예정)
자립육성마을		서귀포시 자립마을 육성팀	마을당 40~70백만원	'07년 20개 마을

그러나 이와 같이 대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실패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실패의 원인으로는 마을별 사업이 특화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풀뿌리 평화사업은 이러한 프로그램과 동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재정이 없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자세는 매우 소극적이다. 우리 마을이나 지역주변에 이와 같은 소위 “눈먼 돈” 들이 술하게 많다. 상기 프로그램에서 평화사업이나 평화운동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보강될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4) 평화운동의 주제를 생활화

평화운동과 사업의 종국적인 목표는 실천이다. 실천이 없는 평화사업과 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화운동과 사업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평화사업과 운동의 주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져야 한다. 주민과 동떨어진 주제는 주민들이 생활화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평화가 생활화가 되지 않았을 때 의미가 없는가를 평화의 개념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평화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흔히 평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극적, 적극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학자들이 많은 편이다.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지칭한다. 이는 평화유지(전쟁의 방지) 또는 전쟁의 발발시 평화회복에 연구의 중점을 둔다. 그러나 “적극적 평화”는 평화건설과 조화롭고 비착취적인 사회의 성립을 의미한다. 켈만(Herbert Kelman)은 평화를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집단폭력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폭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안전감이 수반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황병무 2001).

켈만이 지적처럼 평화로운 상태는 집단폭력이 없고 폭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안전감이 수반되는 상태, 바로 일상생활의 폭력 존재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폭력이 난무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의 폭력은 육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불안전 현상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살인, 강간, 유괴 등 강력범죄, 교통사고, 각종 안전사고, 환경파괴, 청소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 등 반평화적 활동의 유형은 어디든지 볼 수 있다. 다만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살고 싶은 도시를 평화로운 도시라고 정의한다면 바로 전술한 그러한 폭력과 사고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명성을

제 2 장 ...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주변의 상태를 매우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한 가지 사례를 보자.

최근 어느 신문기사다.

● 제민일보, 2008.12.9. '제주 안전도시 맞아?'

“제주의 교통문화가 ‘형편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운전 행태는 물론 보행 행태 전반에서 안전에 무관심한데다 지역별 교통문화지수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는 등 안전도시 이름을 무색하게 했다. 운전행태 조사에서 제주도는 횡단보도 정지율 준수율이 68.69%로 9개 도 중 8위에 그쳤다. 또 안전띠 착용율(45.58%)과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55.17%)은 비교군 중 최하위를 기록, 운전행태 영역 교통문화지수 역시 9위에 그쳤다. 인구 30만 이상 전국 26개 시 대상 조사에서도 제주시는 안전띠 착용률(47.87%)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위반율 27.45%·12위)과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미착용률 28.75%·13위)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가 8.08명(25위)으로 가장 적은 경남 창원시 1.18명에 비해 7명 가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중상사주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각각 19위·14위·18위를 기록했다.”

제주에서 자동차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마디로 말해 주고 있다. 관광지는 편안함, 안전함, 평화로움이 최우선이다. 제주도는 2006년에는 세계안전도시로 승인받을 정도로 공식적으로는 안전성이 보장된 지역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사망건수 등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자동차 사고 사망률은 전국의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기타 교통문화도 마찬가지로 열악하기 짝이 없다. 2008년 한해만도 수학여행버스 전복사고, 승합차 사고로 한 가족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가 연일 터져 나왔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의 섬을 논함은 차라리 그 허구성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로를 비롯한 자동차 제한 속도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시속 60km로 정하든지, 음주운전의 측정 단위를 전국에서 가장 강화한다든지 자동차에 의한 폭력을 강력하게 대처하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자동차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때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 “세계 안전도시”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환경파괴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최소한의 사망·상해지역, 최소한의 재난지역, 학교폭력이 없는 지역, 악취가 가장 적은 지역 등등 우리가 생활화할 수 있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들거나 비용이 전혀 필요 없는 사업들이 준비하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정성과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일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 일이 성공이 되면 우리는 명실공히 “세계 평화의 섬”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은 물론 이를 즐기고 연구하려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이며, 더불어 우리의 삶은 늘 평화롭고 안전한 일조이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남주 2008).

5. 맺는 말

지금까지 풀뿌리 평화사업과 평화운동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개념적 요소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풀뿌리 평화사업과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풀뿌리 평화운동을 “주민들이 주도적·자율적으로 협력·조정하면서 평화를 생활화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풀뿌리 평화운동과 사업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하게 중심적 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

제 2 장 ... 풀뿌리 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화사업과 운동은 풀뿌리와는 거리가 아주 먼 이론적이고, 국가적 주제이며, 대형화된 사업 중심이었다. 이로 인하여 제주평화사업은 주민들과 늘 동떨어져 있고 따라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는 아직도 평화가 근착될 토양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는 적어도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소박하며, 비정치적이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 했던 자연 및 인문·사회자원을 가지고 특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의 주변에서 살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사업과 운동은 외형화에서 벗어나 내실화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국가적 과제와 이론적인 주제, 대형화하는 건축물의 하드웨어 조성은 중앙기관인 제주평화연구원이 주도하는 역할 분담이 적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전제한 바와 같이 소고적 차원에서 기술하였다. 또한 풀뿌리 평화운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하여 현재의 평화사업과 운동을 평가하는 무모함도 본 연구가 지니는 커다란 약점이라고 자인한다. 다만 풀뿌리 평화사업과 운동이라는 관점이 구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논문의 의의를 찾고 싶을 뿐이다. 향후 본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더욱 보완하여 하나의 분석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용기. 2008.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 김문호 역, 스코트 A 힌트. 2003. 『평화의 미래』. 아름다운 사람들.
- 양길현. 2006. 『평화 번영의 제주정치』. 오름.
- 양영철. 2007. 『주민투표제도론』. 대영문화사.
- 윤용택. 2008.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 이남주. 2008.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의 역할과 가능성』. 창작과 비평, 제142권.
- 이승중. 2008.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이론과 실제』. 박영사.
- 이종수의. 2006.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 제주발전연구원. 2008. 『농어촌 테마마을 활성화 방안』.
- 제주발전연구원. 『전통 제주 돌담의 문화관광자원화 방안연구』.
- 제주발전연구원. 2005. 『제주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후속 전략 및 평화 시민운동에 관한 연구』.
- 진창남 외. 2007. 『핀란드의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7권 제2호.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 최승범. 2008. “Community 재생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주민학습 체계의 미래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세미나 자료.
- 홍두승·임호준. 2005.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 계간 전통과 현대, 19호.
- 황병무. 2001. 『전쟁과 평화의 이해』. 오름.
- Benjamin R. Barber. 2003.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 Ortiz-Griffin, W. D. Griffin. 2003. *Spain and Portugal Today*. N.Y.: Peter Lang Publishing.
- Russel J. Dalton. 2006. *Citizen Politics*. 4th ed., Washington, D.C: CQ Press,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제 3 장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 한 림 화

1. 들어가는 말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도 단위로는 인구 및 면적 대비 통계적인 수치만 놓고 볼 때 문화예술에 직접 관계된 인적자원과 유·무형의 자산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제주도 문화예술의 특징이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배경, 인문적 요소가 결합되어 독특하면서도 고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망망대해 한 가운데 떠 있는 섬,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척박한 토양과 해양성 기후로 고온다습하면서도 변덕스런 날씨와 같은 열악한 자연환경에 생활이 직접 노출되는 지리적 한계는 제주도민들에게 일찍이 자급자족 체계를 갖출 수 밖에 없도록 삶의 조건을 한정시켰다.

제주도민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며 상호 친밀감을 가족적인 환경으로 조성해냄으로써 정신적인 정서의 공유를 앞세운 생활이 전제된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을 위해 정서의 공유가 항상 가능하게 하는 방편으로 그리고 생활권 확보를 위한 필수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조건으로, 제주도민들이 대동(大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및 의례의 창출과 향유로 행위되어지면서 문화로 승화되고 전승되어 오늘날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본다.

섬의 주민이 형성된 배경도 제주문화예술의 독창성을 확보하는데 지름길 역할을 하였다. 신화에서 토착민이라고 거론되는 고(高), 양(良, 나중 에 梁), 부(夫) 세 성씨를 비롯한 모든 주민은 제주 섬에 정착하게 된 역사를 구전 또는 족보와 같은 문헌으로 소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섬에 정착하기 이전의 다른 생활권역에서 기원하는 정서를 간직한 다수의 이주민 집단들이 합심하여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해나갔다.

권역 내 생활공간의 공유를 위한 방법으로 친화력을 발휘함으로써 율령과 향도(香徒) 등 공동의 일 즉 '수눌음'이 발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성씨별로 다른 문화 및 예술을 전수하고 향유하는 관계맺음을 통하여 평화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오늘에 이르도록 그 맥이 이어져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도 문화로서, 혹은 이를 향유하는 예술로서, 가시화되는 현장성을 가지게 되었다. 제주전통의 문화예술이 거의 다 집단 혹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것도 능동적이고 강인한 생활력으로 지속적인 평화를 지향해 온 제주주민의 정서가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제주의 문화예술 부문의 인적자원과 자산이 평화 문화예술 공연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 및 조건, 환경 등이 우선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도민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 아래 평화를 지향하여 축적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현재적 상황과 인지적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펼쳐놓는 개념을 결정하는 일이 선행과제이다. 그 다음으로 이를 향유할 제삼자의 구미에 맞도록 기획하고 구성해내는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완비된 공연현장이 확보되는 '합의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는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제주평화문화예술 공연 사업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강화 면에서 우선 고려되어야할 점은 무엇인지도 논의되어야함은 자명한 사실

제 3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이다. 그렇더라도 과연 필요한 평화산업의 일환인가 혹은 이미지 강화가 필수부가결한 것인가라는 명제 아래 평화산업으로써 이익창출을 위하여 행위 되어질 현장성 확보인가에 대한 답을 상정하는 일도 우선 해결해야만 그 자체로써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물음에 답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능성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명확한 개념 정립에 의한 토대를 구축하였을 때, 비로소 평화문화예술 공연의 타당성이 확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문화예술 공연의 주체, 시간과 공간의 확보, 이를 향유하게 될 대상으로서의 관객 등도 미리 고려될 최우선 사안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전제가 무리 없이 합의를 이뤄내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진 후, 제주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문화예술 공연에 차입 가능한 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기획단계에 이르는 것 등이 기본적인고도 기초적인 선행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단계별 조건들이 요구되는 것은 문화예술의 인지적 축적이 하나의 장르를 이뤄 공연 예술로써 독립적으로 가시화된 현장성 확보로 전이되는 첫 번째 속성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제주도가 보유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를 구체화, 혹은 강화하는 한 방법으로서 평화문화예술 공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의 키-포인트 : 그 설정의 의의 및 배경

무엇보다 우선하여 '세계평화의 섬, 제주' 를 잘 드러낼 만한 문화예술 공연의 키포인트(key-point)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대두된다.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 평화를 화두로 내세우는 산업에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합목적성이 "제주도에서 평화 증진 및 확산을 위한 평화 실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라고 선명하게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표 1>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선언문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선언문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삼무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한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통해 제주도를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

제주도에서 평화 증진 및 확산을 위한 평화 실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계기로 세계평화 증진에 앞장설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5. 1. 27 대통령 노 무 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을 위한 '세계 평화의 섬' 길라잡이』(2005)

위 선언문은 매우 함축적이지만 이를 해설해 놓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홍보물⁴⁾을 보면 제주의 역사, 생활, 문화 속에 각인된 평화의 원시 심상

4) 제주특별자치도가 작성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선언문에 대한 홍보문헌에서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이 해설문건은 제주도가 지향해나갈 평화의 키워드 중의 하나로써 평화문화예술 공연과 같은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선언문의 범주에서 제반 사업은 수행될 수 밖에 없는 카테고리를 가진다.
- 제주도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3무 정신」은 평화의 상징성을 나타낸다. '거지가 없다'는 가난과 착취의 부재, '도둑이 없다'는 안전, '대문이 없다'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제 3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 수놓음 정신은 평화문화의 면면한 전통을 이어온 공동체의식의 발로이다. 농사일이 건, 집안일이건 주민들이 서로 협조하는 상호협력은 연대감을 강화시켜주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준다. 이러한 수놓음 정신의 밑바탕에는 평화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정신이 없다면, 수놓음 정신은 이어져 올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주의 고유한 언어인 '제주말' 을 지키기도 하고, 전쟁을 위해 방목한 몽고제국의 말을 '조랑말(몽생이)' 로 키워 생활 속에서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삶의 지혜를 남기기도 하였다.
- 제주 만의 가족제도 또한 제주만의 독특한 평화적 전통문화를 지켜냈다. 핵가족과 대가족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한 소위 안거리와 밖거리는 가족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올래는 외부인과 내부인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 제주도는 한반도와는 다른 독립적 국가를 형성했다는 역성, 그리고 한반도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중앙부에 자리 잡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주는 수난의 역사가 반복된 곳이었다.
- 제주도는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13세기의 몽골족이 세운 원(元)나라가 제주도를 점령해 100년 가까이 지배하면서, 일본과 남송 정벌의 전초기지로 이용되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접어들어서는 왜구의 침략이 유난히 많았다.
- 왜침을 막기 위해 제주 해안을 한 바퀴 도는 환해장성을 쌓아 올렸는데, 여성들도 참여하였고 보초를 서기도 했는데, 이를 여정(女丁)이라고 하였다.
- 조선시대에는 제주도민이 물으로 나가 살 수 없게 법으로 막은 출륙 금지령(중앙집권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던 1400년대 초에도 출륙이 금지되었으며 1629년인조(仁祖) 7년에 다시 내려진 출륙금지령은 1830년[순조(純祖)]말까지 약 2백년간 이어져 악명을 떨쳤고, 제주도 사람이 그때에 겪었던 고초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과 함께 유배의 땅으로 각인되어 왔기에 제주도민에게는 자유와 교류 협력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컸었다. 한국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는 1937년 중일전쟁 때 모슬포에 비행장을 만들고 해군항공대를 설치해 중국 대륙을 향한 폭격 기지로 삼았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에는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대미(對美)결전의 최후보 무로 제주를 선택해 섬 전체를 요새화하였다. 당시 주둔한 일본군만 7만에 이른다.
- 이러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생활사적으로 나타나는 평화운동 즉, 공동체적 사회가치의 보존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노력과 저항에서 나타난다. 몽고와 고려연합군에 맞서 삼별초와 항몽투쟁을 하였으며, 중앙관료세력과 가톨릭의 부당한 세금징세와 제주도적 가치의 억압에 맞선 이재수의 항쟁, 1931년 일본제국주의의 부당한 생존권 위협에 맞선 잠녀항쟁 등은 이러한 평화추구에의 적극적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예이다.
- 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는 4·3이라는 엄청난 비극의 현장으로 바뀐다.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가슴 아픈 상처였지만, 제주인들은 이의 해결 또한 평화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들의 끝없는 비폭력적 평화운동 노력은 2000년 4·23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보복이나 새로운 갈등이 아닌 용서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이 비극의 역사를 승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primordial images)을 광범위하게 조명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역사가 흐른 흔적에 따라 자명하게 파악하여 열거하고 있는가 하면 그 근거 및 타당성에 도달한 여정까지를 간과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 제주 섬에서 세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비중 있게 논의되었던 주요 각국의 정상회담 및 남북한 간의 등거리 교류 등 그 현장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구축에서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설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하는 제주도내에서의 평화산업 목록은 선언문 및 이를 해설하는 범주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의 키포인트도 같은 선상에서 도정되어야 마땅하며 그 가치의 척도가 보장됨을 암묵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사업의 가차 없는 추진을 전제할 때는 제주평화문화예술 공연의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공연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유연성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는 제주 특별자치도민을 구성하는 현재의 인구가 다양한 이주자들의 유입이 더해지면서 새롭게 이룩되고 있기 때문이다.⁵⁾

전통적으로 이주민에 의하여 이룩된 제주도민 사회는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다문화 및 예술이 창출되어지고 향유되고 있는 지역이며 그것 자체가 특성화의 근본이다. 다양성을 겸비한 열린사회로서의 ‘세계평화의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제주의 자연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이며, 신비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제주는 2002년 UNESCO의 세계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역사 속에서 경제적인 독립정신, 정치적인 자율, 사회적 평화라는 3유(有)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둑, 대문, 거지가 없는 3무(無)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자유, 평등, 평화라는 3려(麗)의 아름다운 이상향을 향해 계속 향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평화로운 만남의 장소에서 동아시아 평화문명의 발상지로서 1991년 냉전의 상징이었던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필두로 제주는 그간 4대 강국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방문과 국제회의의 중심지로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제주도는 남북한 간의 지리적 등거리와 제주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상으로 인해 남북한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다. 제주도민들은 북한에 감귤보내기 운동을 통해 인류애적 사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북측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대규모 방북단 초청, 남북평화축전 참가, 각종 남북회담 등을 개최해 오고 있다.

5) 이에 대한 통계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 3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섬, 제주'가 제주도민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인지(認知) 차원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삼무(三無)', '삼다(三多)', '삼려(三麗)'에 키포인트를 둔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의 아이টে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 키포인트가 평화문화예술 공연이라고 한정적으로 장르를 규정짓더라도 준비 단계에서 스토리텔링에 충실하다면, 예전 제주도에서 펼쳐졌던 '세계 섬 문화 축제' 시와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3. 문화예술 자원 현황

어느 정도가, 어떤 것들이, 어느 만치나, '제주평화문화예술' 공연거리로 알맞은지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적시하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생활 자체가 문화이며 이를 구체화하면 예술이 되는 특징을 겸비하고 현재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의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 망라하여 지표로서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개념을 잡아 아이টে을 선정하고 콘텐츠를 짜기 위해서는 물론 제주의 전통문화예술 목록에서 부터 현대 문화예술 목록을 답습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목록을 한정지어 봄으로써 그 범위 선정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사례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인적자원

제주의 문화예술계는 전통부문과 현대부문의 문화예술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인적자원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전문 문화예술인의 집합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 연합회(이하 제주예총)와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 지회(이하 제주민예총)를 두 축으로, 제주 문화의 안방구실을 하는 제주문화원과 제주 영상의 산실인 제주영상위원회가 있다. 이외에도 몇 개의 문화예술 관련 간접기구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에 필요한 인적자원, 그 중에서도 전문 인력 현황만을 다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제주 문화예술인 및 조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제로 문화관광교통국이 있으며 제주도문화진흥본부를 두어 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하여금 직접 제주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주문화예술의 계승 및 정체성 확립, 진흥에 주력하고 있다.

<표 2> 제주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현황

	이름	비고
기관	문화관광교통국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담당기구
	문화진흥본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담당 사업소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영상사업담당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지원기구 재단법인
단체	제주예총	제주문화예술인 집합체 민간기구
	제주민예총	제주전문예술인 집합체 민간기구
	제주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단체

<표 2>에 제시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상당수의 인적자원도 있는데, 주로 아마추어 동호인들로 구성되었거나, 성산읍 온평리의 ‘혼인지 예술단’의 단원들처럼 마을 내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한편 기회가 닿으면 연기인으로 변신, 공연현장에 배우로 나서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통계에 잡힌 바 없다. 그러나 이들은 좁은 지역의 문화예술이 공연현장으로 직접 이동 가능한 전문 인력군이라는 면에서는 대단히 소중한 인프라이다.

<표 2>에 나타난 기관과 단체에 속한 예술인으로서 장르별 공연예술

제 3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부문의 전문 인력은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인적자원은 제주 총인구수를 약 55만 명으로 산정할 때에 1%에 거의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통계상의 인적자원 구축은 평화문화예술 공연의 타당성 검토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표 2-1> 제주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현황

장르별	단체수(개)	인원(명)	비 고	합계(명)
음악	76	2,342	제주kbs어린이합창단원 포함	
연극	15	460		
무용	14	273		3,989
연예	1	126	대중음악 및 예술 종사자 포함	
국악	16	788	제주전통음악인 '소리' 전문가 포함	

자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단체현황', 『2008제주문예연감』(2008)

다문화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제주에는 상당수의 이주문화예술 인력이 구축되어 있다. 문화예술부문의 이주 전문 인력은 주로 제주도 내의 관광호텔 및 관련시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다수의 예술인과 소수의 기획 및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제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제주도 내 거주 외국인 현황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술행행 즉 현장의 예술 공연 종사자수는 무려 165명에 이른다. 이들은 관련 부문의 취업자 신분이다.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자로써 취업비자를 취득, 제주도에 한시적으로 상주하는 이주민과는 달리 제주도민의 신분인 결혼이민자 수는 1,032명에 이른다. 이들은 타이완,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영국, 인도 등 국적과 인종도 다양하다.⁶⁾ 이들 결혼 이민자 가운데도 문화예술 공연 현장에 설 수 있는 가용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⁷⁾

6) 이에 대한 자세한 통계 및 해설은 '제4장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에 서술되어 있다.

7) 제주발전연구원이 2007년도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이미 제주도는 2006년부터 이들이 지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제주다 민족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에 의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동 개최한 5월 20일의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에 다문화가족 500여명이 참석하여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펼친 바 있다. 만일에 ‘평화의 거리’ 등이 설치, 조성된다면 이들 인력에 대한 재교육 과정 등을 거쳐 적합한 부문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유·무형 자원

여기에서 유·무형의 자원이라 함은 제주도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전통문화예술 및 현대 문화예술 중 공연이 되었던 자원의 일부를 일컫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를 드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공연의 특성상 기획에 의하여 일회성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공연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상설공연된 것, 현재 공연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또한 지표상으로도 목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주영상위원회 건물 내부극장에서 상업 퍼포먼스인 ‘난타’가 공연되고 있다. 이 공연은 매우 성공적으로 관객을 확보하며 무대에 올려지고 있어 제주에서의 상설문화예술 공연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난타’는 서울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 후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비롯하여 세계의 주요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하였고 몇 곳에서는 상설 공연을 하는가 하면 지금도 일본 등 외국에서 공연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상설공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이 논의의 장에서는 거론하되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문화예술 공연 자산으로는 통계적으로 잡지 않았음을 적시하는 바이다.

제 3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표 2-2> 제주 전통문화예술 공연 기본 자료의 예

구 분	명 칭	내 용
제의연희	영감놀이	- 풍요를 비는 도깨비 가면극 -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퍼포먼스
	영등굿	- 제주의 모든 마을에서 봄맞이로 행해졌던 농경사회의 의례 -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큰굿 중 질치기	- 신을 제장으로 모셔오는 장르로 신의 길을 닦고 신이 왕림하는 과정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전개됨
소리 (민요)	불도맞이 중 꽃 팔기	- 다산과 육아를 위한 장르로 후손의 유무를 동백꽃 제비를 뽑아 그 꽃을 파는 과정이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퍼포먼스
	씨뿌리기	- 잠수굿이나 영등굿을 할 때 바다밭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잠수들의 갯바위 경주 퍼포먼스
	멜 후리는 소리	- 제주도 모래밭에서 성행했던 멸치잡이그물을 협동으로 끌어올리면서 부르던 소리 및 연희 - 제주도무형문화재
	오돌또기 ⁸⁾	- 경서도지방의 가락으로 불리지는 전통적인 소리로 이에 얽힌 슬픈 전설이 전해진다.
	등그대당실	- 전통적인 가락으로 불리지는 소리 - 제주의 빼어난 풍광을 소개하는 '영주십경가' 로 불리지는 소리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노 젓는 소리 (일명 해녀노래)	- 제주도지정 문화재
	태우 내리는 소리	- 때배의 진수식 때 부르는 협동요
	연극	벽랑국 세공주 맞이 (연극)

8)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돌또기 여러 소리 중의 하나를 발췌하여 전문을 소개한다.(후렴)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이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1. 오돌또기 저기 춘양 나온다 달도 밝고 네가 머리로 갈까나 / 한라산 중허리 시로미
 든송만송 서귀포 해녀가 바다에 든송만송
 2. 청사초롱 불 밝혀놓고 춘양이 방으로 밭소일 간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
 도 못가고 발뺌만 난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전통문화예술 공연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한 자산은 전통제의 즉 의례 등을 통하여 공연되어온 장르들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연희적인 요소가 각 장르마다 매우 강하게 전개되어 신앙민과 구경꾼, 사제를 하나의 무대에서 한 마음으로 연기하는, 마치 배우처럼 참여하게 만드는 영등굿이 있다. 영등신에게 농작물과 해산물의 풍요를 비는 영등굿은 제주 지역의 고유한 민속신앙이다. 육지부에도 영등신앙은 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의 굿으로 행하는 곳은 드문 경우이며 제주는 섬 지역 전체가 이 의례를 거행한다는 점에서 변별성과 차별성이 있다 하겠다.

더구나 잠수굿은 잠수(해녀)생활공동체가 대대로 물러받고 물려주며 치르는 제의이다. 물질을 하여 해산물을 원활하게 채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잠수공동체에 바다와 땅의 풍요를 가져온다는 영등신은 고맙기 그지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이 굿은 매년 음력 이월 열나흘 날을 전후하여 열린다. 이월이 되면 제주도에 서북 계절풍이 불어오는 시기와 궤를 같이 하는 봄맞이 제의이기도 하다.

영등굿은 겨우내 몰아치던 북풍을 떠나보내고 봄바람을 맞이하는 농경의례이다. 이 굿 제차 중의 ‘씨드림’은 파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으로 굿의 주체인 잠수 대표들이 나서서 물의 밭에처럼 바다밭에 씨를 뿌리는 퍼포먼스로 ‘씨드림’의 제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굿의 진행을 두고 의례와 놀이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한림화 2007). 이러한 전통문화예술 장르 외에도 매년 4월이면 ‘제주 4·3사건’을 위무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그 중의 일부를 소개하면 〈표2-3〉과 같다.

3. 제주의 한라산 고사리 맛도 좋구요 산지포 저 돛배의 뱃고동 소리가 좋구나
4. 성산일출봉 해뜨기 구경 좋고 제주시 사봉낙조 해지기 구경 좋구나
5. 목포야 유달산에 먹들도 많고 제주도 한라산에 약초나무도 많구나 / 제주도 한라산 높은 건 좋고 성읍리 영주산은 경치도 좋구나

제 3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표 2-3> 2007년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일정표

일정	구분	공연명	장소	출연단체
4월 21일 (토)	길놀이	길놀이	제주시청→놀이 마당 오후 5시	제주지역연합풍물패(제주) 제주민예총
	열림굿	생명살림굿	놀이마당 오후 6시	놀이패 한라산(제주)
	개막공연	사월굿 헛묘	놀이마당 오후 7시	극단 함께사는 세상(대구) 극단 갯돌(목포)
4월 22일 (일)	공연 1	찔레꽃 피면	놀이마당 오후 6시	극단 달오름(일본 오사카) 극단 자갈치(부산)
	공연 2	밥	놀이마당 오후 7시	노동문화예술단 일터(부산) 나무닭움직임연구소(서울)
4월 26일 (목)	공연 3	4·24의 바람	소극장 오후 7시	마당극단 종대(대전) 민요패 소리왓(제주)
4월 27일 (금)	공연 4	동글어진다든 것은 낮아짐입니다	소극장 오후 3시	하타 카노코(일본 도쿄) 놀이패 신명(광주)
	공연 5	팔찰전	놀이마당 오후 7시	
4월 28일 (토)	특별공연 1	열사굿, 지나가리라	놀이마당 오후 6시	
	공연 6	귀신은 뭐하나	놀이마당 오후 7시	
4월 29일 (일)	특별공연2	삼승할망 꽃놀래	놀이마당 오후 4시	
	특별공연3	4·3진혼무-순간의 왕	놀이마당 오후 6시	
	폐막공연	일어서는 사람들	놀이마당 오후 7시	
4월23일 ~ 4월25일	부대행사	워크샵		

자료: 한림화,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 제주발전연구원: 보고서, 2008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표2-3〉에 제시된 ‘2007년도 4·3평화인권 마당극제’의 공연은, 각지의 관련 극단이 참여한 한시적인 행사였다. 연례행사라고 하더라도 제주의 평화문화예술에 근거하여 상설 공연될 여지는 불투명하더라도 제주도 내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공연예술행사로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위 표에 제시된 제주팀인 경우, 평화의 거리가 지정, 조성되고 상설무대가 시설된다면 상설공연팀으로 참여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제주에는 가장 제주다운 신화, 소리, 제의 등 고유성이 담보된 극화 가능한 ‘이야기’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는 공연 거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장르별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관객의 구미에 맞추어 어떤 측면에서도 그려낼 수 있다는 자원의 풍부함을 역설하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평화를 전제하는 제주의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범주가 설정되었다면, 신화 및 역사적 사건들에서 직접 ‘이야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는 문화예술 공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본(play-book, scenario, libretto) 생산의 수월성뿐만 아니라 작품의 질을 보장해주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제주의 평화문화예술 공연에 적합한 ‘이야기’로서 제주의 모든 이야기가 이 범주에 속하지만 평화를 특화하더라도,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가운데 보편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관객을 감동시키는 기본 텍스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지는 신중하게 논의된 후 취사선택할 일이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표 2-4〉,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야기’의 기본 공연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표 2-4〉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의 소재사례 1. 신화를 중심으로

	제 목	내 용
목록	설문대 신화	제주 섬을 창조한 거대한 여신. 홀연히 나타나 바다가운데 제주 섬을 창조하고 제주민의 삶을 돌봄
	탐라국건국신화①	① 고·양·부 삼신인이 탐라국을 건국한 역사적 사건 (수렵과정, 서열정하기 위한 활쏘기 등)
	벽랑국 세공주 제주도래②	② 벽랑국에서 자진하여 세공주가 제주로 이주, 탐라국이 건국되었다는 상생의 증거, 즉 신화상의 평화로운 주민의 첫 이주 사례.

제 3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제 목	내 용
목록	자청비 신화(세경본풀이)	제주사회 및 제주여성의 특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엮어진 내용은 현대도 제주민이 즐겨 이야기함.
	도깨비 신화	허정승의 아들들이 도깨비가 되어 제주도의 생업을 수호하는 신이 된 과정이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됨

<표 2-5>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의 소재사례 2.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제 목	내 용
목록	홍윤애의 비련	제주 목사로 부임한 조정철과의 로맨스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지만 훗날 조정철이 잊지 않고 섬에 찾아와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연인을 기림
	산방덕의 비련	하늘이 내린 여성 산방덕, 가난한 제주남성 고씨를 사랑하였으나 그녀의 미모를 탐낸 사또에 의하여 유린당할 처지에 놓이나 하늘에 기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도 고결하게 사랑을 지켜 지금도 산방산 중턱 굴사에서는 그녀가 흘리는 순결한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 '거꾸리샘' 이 생성된 근원에서부터 이야기가 전개됨.
	'애기어깨'의 재치	삼별초난에 의하여 생겨난 교훈적인 설화로, 보잘 것 없는 여자인 이의 재치를 지혜로운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음. 서로가 '살 도리'는 싸움에 있지 아니하다는, 즉 전쟁이 낳은 최대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오직 싸움만 하고자 한다면 슬기롭지 못하다는 인간의 평화지향적 속성을 잘 지적하는 이야기
	여정(女丁)의 창대함	17세기 초부터 문헌에 나타나는 제주의 여군(女軍)에 대한 이야기. 제주여성의 역세고 힘찬 기상과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는 여성사회가 잘 드러나 있음.
	마라도 '애기어깨'의 희생	섬 살림이 결코 쉽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고 그 희생은 매우 숭고하였음을 엿보게 하는 처절하고도 가슴 예이는 이야기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위 신화부문에서 제시한 설문대 신화의 주인공인 설문대는 살아서 제주섬을 창조하고 제주에서 아들 5백 명을 낳아 키우면서 평범한 어머니로 생활하는 과정이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영혼은 제주도민의 하소연을 들어 줘, 깊은 바다와 늪에 불과한 지역을 하룻밤 사이에 온 마을의 소와 도끼를 동원하여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 덕에 살기 좋은 땅이 생긴 주민들은 그 매립지 끝에 위치한 포구어귀에 설문대를 기리는 할망당(堂)을 설립해 대를 이어 그의 공적을 기린다는 이야기다.

벽랑국 세공주, 자청비 신화에 나타나는 성(gender)은 주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생활의 주도 혹은 주체에 대한 접근인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 만들기’로서 삶을 구축해내는 상황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제주섬의 평화추구적인 삶이 근간을 이루고(한림화 2008) 있는 기저가 잘 드러난 이야기이다.

탐라국 개국신화(開國神話)와 더불어 도깨비 신화 등은 제주섬에 본격적이고도 조직적인 인류사회생활이 형성되는 과정, 수렵생활에서 농경체제로 전환하는 산업구조 개편까지를 더듬어 보게 한다. 역사 이야기 자료로는 주로 로맨스와 제주여성의 표상이 평화와 합일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조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제시해 봤다. 제주 섬에서 많은 것 즉 삼다(三多)라고 표현되는 세 가지, 바람과 돌과 여성이 상징된 것은 그냥 표피적인 ‘많이 있음’의 의미를 뛰어 넘는다. 이 많음은 또한 세 가지가 없다는 삼무(三無) 즉, 대문, 거지, 도둑이 없다는, 그리고 자유, 평등, 평화를 지향하는 3려(麗)로 구성된, 다시 없이 평화를 지향한다는 메시지와 어우러져, 평화진원지로서 제주 섬의 이미지가 완성된다. 제주의 문화예술의 원류가 여기에서부터 뿜어져 나와 세기를 두고 청정하게 흘러내려 오늘날 평화를 실과하게 된 것이다.

4. '세계평화의 섬, 제주' 문화예술 공연 사업 가능성 검토

1) 당위성 확보

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 문화예술 공연 사업 가능성 검토가 궁극적으로는, 1) 평화와 관련한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상설화하고, 2)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의 참여 공간으로 활용하고, 3) 제주의 새로운 이주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된 다문화 예술인 인력의 활용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1) 성인을 위한 평화문화예술 공연과 2)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평화문화예술 공연을 펼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과제를 충족시키려면 이에 상응하는 슬로건과 같은 뚜렷한 실행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평화의 근원 '탐라 5천 년, 제주 1천 년, 새로운 제주, 혹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 세계 평화의 심장(혹은 대동맥) 등 선동적이면서도 격조 높은 프로파간다적 구호에서부터 흡인력이 강한 슬로건이 요구된다 하겠다. 막연하게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는 명분은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지역에서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지역 혹은 대학축제가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평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축제로 풀어내고 있다. 그럼으로 상설 혹은 정기, 비정기 프로그램 및 공연장 등 구체적인 공연 현장을 확보하기 이전 기획 단계에서, 공연을 통하여 전하려는 메시지, 굳히려는 이미지, 얻으려는 이익 등을 면밀히 검토할 때, 동시에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첫째, 평화를 상징할만한 공연 아이টে은 어떤 것이어야 관객의 호응을 얻어내어 지속적인 공연이 가능할 것인가? 둘째, 평화를 전수할만한 메시지를 공연 아이টে은 통하여 전달할 수 있으며, 호소력이 있는가?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셋째, 평화를 이야기할만한, 누구나 공감할만한, 설득력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흥미유발 요소가 적절하게 작품 전반에 바탕으로 깔려 있는가? 등은 미리 점검해야할 사항들이다. 이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의 방문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 관객을 미리 설정하였다면 이에 걸맞는 기획을 하여야 한다.

<그림 1> 2008평택문화예술평화축제



자료: 2008평택문화예술평화축제추진위원회.
<http://www.hamsesang.or.kr/bbs/>

2) 지역성이 담보된 기획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한 기획의 단계별 시나리오 및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그 누가 기획을

제 3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말더라도 제주가 본시 저장하고 있는 문화예술로부터 작품을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뛰어넘는 자료를 확보하기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객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20일(사)제주문화관광연구소가 '문화예술의 재조명을 통한 제주문화관광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문화관광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그 때 특강을 한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도 "단순한 보여주기식 문화예술 관광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식 문화예술(관광) 모델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창조적 문화관광은 문화=삶=장소=관광"의 등식을 가짐을 주지하였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사업으로 실행될 때, 그 아이템이 지역문화예술에서부터 창출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중요성은 21세기 전략산업이기도 한 문화예술산업으로서의 관광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음에 주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IT의 기술의 발달은 정보화의 급진전을 가져왔고 도미노현상의 하나로 세계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당연히 '국경 없는 세계의 출현(borderless world)'으로 이어지면서 탈국경화(de-territorialization)를 가속시키고 있다(성경룡 2006). 아울러 문화예술 부문의 인적자원의 유동성도 전에 없이 급류를 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상하게 된 것이 지역이며, 지역의 문화·지역의 예술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신유목인(New-Nomad)인 현대인이 '매력적인 지역에 집중' (성경룡 2006)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미 세계는 지역 간의 경쟁에 돌입하였으며 어쩌면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요소가 그 치열한 싸움에 비하면, 아름다움, 쾌적함, 독특함 등 매우 단순하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아름다울 것, 쾌적할 것, 독특할 것을 문화예술 특히 가시화되는 현장인 공연에서 요구되었을 때는 이를 구비하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요소들은 그 지역의 문화가 갖든 공간의 질(quality of place)과 예술로서 승화되어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나타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져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3) 벤치마킹하기

만일 타 지역의 선례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그 현장은 중국의 장이머우(張藝謀) 영화감독이 유한회사를 만들고 지역당국이 투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상’ 시리즈라고 본다. 장이머우 감독은 지역과 그곳 원주민의 생활에서 문화예술의 정수를 추출할 있다는 점을 그 시리즈를 통하여 2008베이징 올림픽 전야제 행사 및 피날레와 그 이전의 세 지역에서의 공연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가 ‘인상’ 시리즈의 첫 편을 상정한 곳이 중국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미 관광지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광시성(廣西省)의 계림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지나쳐서 한참을 더 산골로 들어간 오지인 거기, 인구 불과 1만 명의 작은 농촌마을 양취(陽朔)에 주목하였다. 그곳 주민의 독특한 생활, 거기에서 작은 ‘사랑의 이야기’가 진득하니 배어있는 신화가 밀바탕에 깔린 전통문화를 끄집어내어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키는 데에 무려 5년 5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 작품이 세계의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볼거리 즉 세계관광계를 단숨에 제압한 초대형 실경수상오페라 ‘인상류잔제’이다. 배우는 모두 지역민이다. 이들을 무대에 세워 공연 가능한 인력으로 거듭나도록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동반되었음은 물론이다. 그 결과 지역주민이 얻는 수익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주민들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고 현지를 살펴본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인상’ 시리즈의 콘셉트는 매우 단순하다. 그 지역에서 구전된 신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연경관과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를 압축하는 신화를 바탕으로 공연 대본이 상정되었다. 나시족(納西族)의 고성으로 이미 오래전에 서양에까지 ‘잃어버린 지상낙원 샹그릴라’라고 알려진 리장(麗江)의 설산을 배경으로 모계사회의 삶을 풀어낸 ‘인상리장’, 앞서서도 거론한 바, ‘인상’ 시리즈 중에 가장 먼저 공연된 작품으로, 신비

제 3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한 산수를 자랑하는 계림의 아주 작은 농촌마을 양취 지방 장족의 신화이며 풍습이기도 한 음력 삼월삼짇일에 행해지는 청혼에다 신녀 류싼제(劉三姐)의 전설을 모티브로 설정한 '인상류싼제', 그리고 대나무 뗏목을 띄우고 가마우지 목을 묶어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의 고향 저장 항저우의 씨후(西湖)에서 펼쳐지는 양산박 주영대의 사랑이야기인 '인상씨후' 등 세 가지이다. 장이며우는 중국의 지역 어디든지 지역주민의 독특한 삶이 벤 '이야기'와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있으면 '인상' 시리즈를 더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야기'는 많으나 지역이 좁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광대 무변한 바다와 한라산을 배경으로 활용한다면 '인상' 시리즈를 능가하는 제주평화문화예술 공연작품이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제주도의 전통 제의를 이루는 근본인 신화 즉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설정하여 공연작품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사례를 <표 4>를 통하여 제시해 봤다. 같은 범주 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표 3> 평화예술 공연 사업의 단계별 추진 사례

단계		사업내용	비고
1단계	기본계획수립	· 기본구상 · 예비 타당성 조사	· 주관부서, 전문가 회의
	콘텐츠 사업	· 콘텐츠개발사업 추진	· 콘텐츠 단계별 개발사업
	실행계획 기획확정	· 컨셉트 확정 · 실행계획 마련 · 실행계획에 기초한 기획 확정 · 각 파트별 주관팀 확정	· 외주사업인 경우, 대상사업자 선별, 파트너 선정 확정 · 자체사업인 경우, 협력관련단체, 개인, 유관기관별 업무협약 및 실행계획 교환
2단계	공연물 및 공연 장소 적응 검토 (관객의 성격에 따라 공연물 즉 석변 경 등 임기 응변 훈련)	· 공연장소와 공연물 간의 적합성여부, · 공연자 및 관련자 · 현장 적응	· 시설변경, 공연물 조정 · 콘텐츠 현지 적응 강화 · 관련인력 현지적응 강화
3단계	공연 개시	· 현장공연 진행	· 최종 완료 · 콘텐츠 활용 시작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표 4> 전통제의 중 연희 장르를 활용한 공연물 구성의 예

구분	제 의	활용 내용	비 고
영등굿 잠수굿	용왕맞이(질침)	전통의례를 재구성, 길트기, 마당놀이 등으로 구성 가능한 퍼포먼스	역동성 강한 거리굿으로 연출
	씨드림	잠수선수와 관객선수가 한 조를 이루도록 구성, 관람객 적극참여 응원전 전개 유도	배우와 관객, 무대와 관람석 구분을 하나로 열어놓는 연출
	배방선	평화를 기원하고 소원을 비는 비나리를 곁들인 퍼포먼스로 재구성하여 기제작된 모형 띠배를 관객 희망자에 한하여 직접 배방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심적,육체적 만족감을 얻도록 전개	평화의 거리가 포구까지 연장되어 지정되었거나 '평화의 포구'를 지정, 공연 가능한 아이템 기제작된 띠배판매를 통하여 관객이 소원을 비는 배방선 퍼포먼스
	띠배 제작 경연	공연 오프닝 혹은 공연 이브의 행사로 관객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한 방법으로 띠배 제작 경연개최	공연장소 및 공연을 알리는 홍보행사로 활용가능한 이벤트
	굿상 차림	기메 제작, 떡 만듬 등 볼거리 제공	관객을 위한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전통제의 이해의 장 마련

자료: 한림화·홍정순, 2006『제주해양문화컨텐츠로서 개발 가능한 문화 현황』에서 재구성

이 외에 '평화의 거리'가 지정된다면 다문화예술관을 따로 두거나 아니면 상설전시 및 공연 공간을 확보하여 제주에 이주한 다문화인들의 문화와 예술을 펼쳐놓는 것도 독특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 때 명심해야 될 점은 이들에게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제를 벌일 때와 같은 아마추어적인 작품으로는 지속가능한 관객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다문화예술 작품이 공연되거나 전시 되었을 때의 효과는, 제주를 방문하는 해당 지역의 다문화인들에게 친밀감은 더할 것이며, 이주자를 배려하는 제주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방문자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배양하게 되어 다시 찾는 하나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나타날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 대하여서는 직접

제 3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다문화주민에게서 아이템을 얻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기획의 기본 자료를 얻는데 지름길이 되어 줄 것이다.

5. 제 언

1) 제주평화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위한 공간조성하기에 대하여

소위 '평화의 거리' 등 테마가 있는 거리, 광장, 마당, 포구를 공연장으로 조성한다든지 또 이에 더하여 가칭 '평화문화예술회관', '평화의 전당' 등 공간을 설치할 경우에 여기에는 건물과 길, 혹은 테크니컬한 시설들을 먼저 설치하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풀어놓을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주지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터이므로 진행의 우선순위를 매기되 기본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정해진 공간 외에 제주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기존 마을의 상뒤동산(향도 동산), 마른내, 갯물(갯샘), 바닷가, 오름 등을 이동 공연장으로 활용할 의향을 가지는 것도 융통성을 확보하는 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2) 제주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작품 구성하기에 대하여

제주 섬이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을 뿐 아니라 평화의 원천으로써 인류가 바라는 평화를 생산하고 나누는 지역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될 사안이라고 본다. 평화문화예술의 모델로서 세계인이 추구하는 평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우주적 평화의 메카임을 강조할만한 원대한 프로그램이 제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작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미리 가늠하는 것도 사전 점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는 제주의 독특하면서도 고유한 문화예술을 누구나 다 수용하여 공감할 수 있는 예술로 승화시킬 ‘이야기 거리’를 관객의 구미에 맞도록 대본으로 창작해낼 스토리텔링 부문의 전문 인력 확보는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전시 작품의 확보, 전시, 판매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복안 즉 책임자들을 어떻게, 누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며, 선별과정, 선별기준, 교육기회 부여 등 전문적인 부문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기본원칙도 세워두어야 한다.

3) 제주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작품 소재 차용하기에 대하여

신화 즉 전설을 포함한 ‘영웅 이야기’ 및 ‘사건’을 차용하였을 경우에도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지향하는 바, 세계인이 갈구하고 공감하는 평화와 직결되도록 재구성(rewriting)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지될 최우선 사안이다.

현재적 의미로 평화를 가운데 둘 때에는 먼저 제주 섬에 이주한 주민들 즉 취업자나 혼인이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공유되어지는 평화를 차입하는 것은 여러 효과를 얻는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 섬에는 방어시설로 사용되던 봉수대, 성 등 역사유물 유적이 산재해 있다. 이들 역사적 시설물을 평화를 갈구한 흔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다면 평화구현을 위한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방어유적유물은 평화를 깨는 전쟁 상황의 개념을 이미지에서 풍기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제주민이 보여주는 평화 메시지 전파로써 활용할 대안을 몇 가지 마련하여 오프닝 세리머니 혹은 클로징 세리머니 아니면 이브 행사로 펼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제주도민이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가시화할 수 있기

제 3 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문화예술 공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수의 협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전 제주사회에서 공동 작업으로 생산하던 테우 제작은 매우 적합한 아이템 중의 하나이다. 테우 제작 과정은 제주민의 전통적인 협동정신, 타인에 대한 배려, 이웃을 향한 나눔 등 공생의 실천이 직접 현장에서 드러난다.

이외에도 제주의 또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메이커인 제주해녀와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의례, 예술(소리, 춤 등) 등, 보여주는 평화의식 아이템도 너무 성(gender)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멋진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문화예술은 속성상 원대한 목표가 설정되더라도 명확한 구심체가 있지 않고서는 꽃피우기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를 관광 시장 현장에 실현할 수 있는 평화문화예술 공연의 장을 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그럼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바, 제주 평화의 이미지가 한껏 구가되도록 적극적, 상시적으로 공연을 하겠다는 결정이 선행되면 이 사업은 그 타당성 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얻은 것이 된다.

지금 상설 공연되는 작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 분야를 개척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평화문화예술 패턴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 지, 즉 원론적인 가치부터 체계적으로 점검(한림화 2008) 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기타 고려될 사안에 대하여

프로그램에 동원 가능한 소위 가동 인력으로서의 인적자원, 시설의 향시 조달 루트 조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서도 잠시 거론하였지만 전문 기관 혹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주는 경우, 직접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를 총망라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적, 물적 자원 조달 루트는 주관부서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틈새가 생길 때를 대비한 잉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의 연계도 반드시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할 사안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이는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삽시에 변경, 재구성해내는 능력 배양과 그에 따른 인력이 상시 확보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예비 인력, 예비 프로그램 등이 항상 준비되어 대기상태에 있도록 잉여 소프트웨어(soft-bank)를 갖춰야한다는 뜻이다(한림화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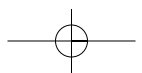
6. 맺는말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문화예술 공연의 성사에 앞서 제주민의 평화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사업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중국 장이머우 영화감독의 ‘인상’ 시리즈 공연의 성공에서 그 예를 보는 바와 같이, 제주민이 스스로 인적자원임을 깨달았을 때는 더 진일보한 작품이 생산될 수 있고, 현장에서의 공연도 더욱 드라마틱하고도 실감을 배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화를 주제로 할 때는 당연히 제주민의 삶 그 자체가 평화를 생산하는 원천이며 파급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제주민 스스로 제주 섬의 이야기 한 꼭지, 소리 한 대목을 하더라도 이는 가슴 깊숙한데서부터 유구한 세월을 두고 대대로 육화된 것이기에 그 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서를 비축하고 있어 관객의 서정성에 호소하여 공감대 형성에 지대하게 공헌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제주의 삼다, 삼무, 삼려는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역사적으로는 변방으로 내쳐진 상황에서도 포용력으로 평화를 이룩해낸 삶의 자원이라는 것을 제주민은 태생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제주 섬 창조 과정에서부터 이미 평화를 추구하였으며, 각지로부터 타의든 자의든 이주해 오는 이들을 받아들여 보다 나은 인류사회를 건설하고 더불어 살아온 혼쾌함과 관대함을 통한 평화사상이 강조되고 일깨워진다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든든한 보증이 될 것임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평화산업으로서의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축적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성경룡. 2006. “지역발전과 문화: 창조도시 전략.” 『지역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문화 대 토론회』자료집
- 제주발전연구원. 2008. 『'세계평화의 섬, 제주' 와 평화산업-기회와 도전』.
- 제주특별자치도. 2005. 『제주도민을 위한 “세계 평화의 섬, 제주” 길라잡이』.
- 한림화 외. 2005. 『남제주군여성문화유산조사』 남제주군.
- 한림화. 2007. 『제주전통생활문화 및 자연경관을 응용한 '제주사람살이 체험관광 코스' 개발연구 보고서』. 제주관광대학 관광특성화 사업단
- 2008 평택문화예술평화축제주진위원회. <http://www.hamsesang.or.kr/bbs/>
(검색일: 2008.9.15)



제 4 장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

..... 염 미 경

1. 들어가는 말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사회와 문화의 상호교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화를 통한 경제권의 상호통합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증가와 이를 통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권 간 접촉의 증가현상은 한 사회 안에서 다인종·다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도 외국인 장기거주자가 백만 명을 넘어서서 빠르게 다인종·다민족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07년 8월 24일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해 100만 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¹⁾ 전국적 추세를 반영하듯 제주지역사회에서도 빠

1) 2007년 9월 말 현재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는 1,018,036명이며, 이들 중 합법 체류자가 788,873명, 불법체류자가 229,163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비록 외국인 장기거주인구가 총 인구의 2%정도에 불과하지만 비이민사회이며 단일민족신화가 강한 한국에서 장기거주 외국인이 백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르게 다인종·다민족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제주도내 외국인등록현황 자료(2007년 12월 말 기준)에 의하면, 제주지역에는 4,130명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표 1> 제주도내 체류외국인등록현황(국적별, 체류자격별)

자격/국적	총계	타이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필리핀	인도 네시아	러시아	몽골	베트남	기타 국가
총 계	4,130	303	1,977	168	225	103	142	252	25	105	449	381
D-2(유학)	276	5	221	6	0	1	1	0	4	11	0	27
D-3(산업연수)	150	0	84	0	0	0	4	18	0	5	18	21
D-6(종교)	26	0	0	2	18	0	3	0	0	0	0	3
D-8(기업투자)	10	0	2	3	1	0	0	0	1	0	0	3
E-1(교수)	15	0	5	4	2	0	0	0	2	0	0	2
E-2(회화지도)	274	0	22	10	118	79	0	0	0	0	0	45
E-6(예술행)	165	0	53	0	0	0	3	0	6	30	0	73
E-7(특정활동)	59	0	36	1	3	1	0	1	0	5	0	11
E-8(연수취업)	108	0	47	0	0	0	3	8	0	14	5	31
E-9(비전문취업)	654	0	281	0	0	0	22	72	0	17	153	104
F-1(방문동거)	177	14	58	34	37	4	4	0	2	0	2	22
F-2(거주, 배우자)	1,032	102	425	80	23	12	82	0	6	5	239	58
F-3(동반)	58	1	2	0	20	5	1	0	3	1	2	23
F-5(영주)	213	177	4	24	2	1	1	0	1	0	0	3
E-10(선원취업)	361	1	179	0	0	0	0	153	0	0	27	2

* 기타국: 호주,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영국, 인도 등
자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제주도내 외국인등록현황 자료(2007년 12월 말 기준)에 의하면, 2007년 12월 말 현재 결혼을 통해 제주에 거주하는

제 4 장 ...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

결혼이민자²⁾는 총 1,032명으로, 중국(조선족 포함) 425명, 베트남 239명, 일본 80명, 필리핀 82명, 타이 102명, 미국 23명, 몽골 5명, 캐나다 12명, 러시아 6명, 기타 58명 등으로 수적으로 증가추세일 뿐만 아니라 출신국가는 물론 거주지역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다채로워지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들 중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182명으로 중국(조선족 포함) 144명, 필리핀 22명, 일본 7명, 베트남 4명, 타이 2명, 기타 3명이다(제주출입국관리소 자료). 이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는 177명으로 중국(조선족) 142명, 베트남 4명, 필리핀 21명, 일본 7명, 기타 3명이다. 특히 제주사회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민족의 문화가 제주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장기거주 외국인의 인구증가가 곧 다문화사회³⁾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학계를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자

- 2) '여성결혼이민자' 개념은 2006년 4월 한국정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외국 출신자로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을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주부', '이주여성'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해 김혜순(2008)은 이민은 동시적이든 순차적이든 가족단위의 이동으로, 이동 후 국적과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부분 그 지역에 정착하기 때 문이라는 것, 그리고 여성 개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이해관계 실현을 위한 여러 이주 경로 중 결혼이주가 선택된 것임을 주목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 대신에 '결혼이주여성'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로 한다.
- 3) 다인종·다민족사회는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고 있는 객관적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고,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주의에서 사용되는 다문화라는 개념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사회문화적인 내재적인 변화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증가라는 객관적인 현상은 '다인종·다민족사회'이며 이러한 현상에 따라 여러 나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이며 상호존중적인 정책이나 태도, 문화로의 변화에 대해 '다문화'라고 지칭할 수 있다(김은미·김지현 2008). 이 글에서 다루는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은 다인종·다민족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이고 상호존중적인 문화로의 변화를 지향하면서 기획된 것임을 밝혀둔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의 급속한 증가⁴⁾(〈표 1〉 참조)로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의 교육 및 사회적 통합문제가 사회 전반에 부각되면서 국적 및 이민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뤄나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의 이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문화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설동훈·한진수·이란주 2003; 김현미 2005; 오경석 외 2007; 한진수·설동훈 2007; 염미경·김규리 2008).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가 이주민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장치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해나면서 이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자칫 실적 위주나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지 못한 단체들이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NGO들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주로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교육, 한국문화교육 등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는 활동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이 제주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다양성,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차원에서 가족구성원, 지역구성원이 된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것야말로 제주사회, 나아가 한국사회가 진실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본다.

특히 제주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국제자유

4) 1960년대부터 지속된 가족계획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적령기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상황. 게다가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여성들이 농어촌에서 생활하기를 꺼려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존재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들의 존재와 더불어 가족과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장에서 민족국가를 넘어선 문화 주체들 사이의 일상적인 대면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사회의 새로운 현상이다(염미경·김규리 2008).

5) 제주사회에서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지원서비스실태에 대해서는 염미경·김규리(2008)를 참조바람.

제 4 장 ...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

도시'와 인권과 희망이 숨 쉬는 '평화의 섬' 구현을 지역의 미래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다문화공생이 어느 곳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첫걸음은 배타성의 극복이며 평화의 섬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문화다양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제주사회 통합의 한 부분으로, 제주지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제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글은 제주의 다문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평화문화 교류장터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려는 데 주요 관심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되기에 대한 논의에 기반해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이주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의 문화를 정착시켜오고 있고 이주민 집단거주로 인한 다양한 문화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사례를 살펴본다. 안산시 원곡동 사례를 고찰하는 것은 이 사례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는데 있어 이주민을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역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안산시 원곡동은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노동자가 거주하며 내국인과 함께 다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최초의 이주민 거주공간이면서,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각 국가마다 자신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려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원곡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제주도의 평화문화교류 장터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2.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되기’: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사례

1) 배경적 논의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사회와 문화의 상호교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로버트슨(Robertson 1992)은 이같이 증폭된 상호교류를 ‘세계의 압축’이라고 불렀다. 하비(Harvey 1978)는 이제 공간은 더 이상 고정된 장소가 아니며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물리적인 공간이 축소되면서 사람과 물류의 활발한 이동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카스텔스(Castells 1996)는 이러한 상호연관성 및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네트워크가 그간 문화적, 경제적으로 자족·자급하던 각 국가의 국경을 허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가는 물론 이에 속한 도시와 지역 또한 다른 사회와의 통합내지는 공존을 위해 밖으로 뺏어나가게 됨을 의미한다(김은미·김지현 2008, 5).

특정 사회에서 외국인의 정착을 받아들이는 정책에서 바람직한 유형이 다문화모형⁶⁾이다. 다문화모형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의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두며, 흔히 각기 다른 형태와 맛을 가진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모여 공통의 드레싱에 의해 공평하고 동등하게 뒤섞이는 샐러드 볼(Salad Bowl)에 비유된다(김은미·김지현 2008, 9). 특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수민족과 이주민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다문화주의가 보다 바람직하다.

6) 다문화모형은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세분화할 수 있다(설동훈 2005, 3).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고 여러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다문화모형이라면 거기서 보다 발달된 개념인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동훈(2005)을 참조바람.

제 4 장 ...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

다문화주의는 에스닉 집단(ethnic groups)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전체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하나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승인,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복수성이 포함되어 있다. 즉 다문화주의는 문화적인 융화보다 오히려 서로 닮은 모자이크 문화로 표현되며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다행스럽게 우리사회는 외국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통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통합정책의 근간은 또 다른 의미의 동화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족적, 문화적 배타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란 무엇인지 모색되어야 한다. 즉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문화 간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자문화와 타문화가 병존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통합작업을 통해 한 국가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제도적 구조들이 대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박채복 2008, 254).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치전략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문화주체들이 자유와 권리를 전유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논의의 활성화와 구체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7) 한국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한국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외국인·이주자통합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마무리되면 이와 관련해 예산을 배정받게 되고 이에 따라 정책이 수행될 것이다(박채복 2008, 263).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2)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되기의 가능성: 원곡동 사례

(1) 사례 지역사회의 특성

경제와 사회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문화적 변화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의 등장은 도시 및 사회지리,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박배균·정건화 2004).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집단적 거주지로서, 그리고 소비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지역사회는 우리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경기도 안산시는 1914년 시흥, 과천, 안산 3개 군이 시흥군으로 통합되었다가 1976년 반월 신공업도시로 조성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여 1986년 안산시로 승격되었다. 안산시의 조성은 수도권지역에 흩어져있는 중소기업장을 이전 수용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고 서울 유입인구의 흡수를 하는 한편 서해안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산시는 수도권지역 내에서는 서울시 다음으로 이주민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는데, 가장 큰 이주민 노동자들의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합법적 신분의 이주민만 대상으로 했을 때 2007년 현재 경기도에 200,798명의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중 12.1%인 24,256명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이주민까지 포함하면 대략 4만에 가까운 이주민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한정우 2008, 2). 이주민노동자의 증가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민집단거주지역’을 등장시켰고, ‘국경 없는 마을’ 사업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지역⁸⁾이다.

8) 안산시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의 영역화 과정에 대해서는 한정우(2008)를 참조바람.

(가) 원곡동지역의 ‘국경 없는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과 내용

① 인구 및 주거환경

원곡동은 1980년대 초부터 반월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 거주인구만 34,000명을 넘어서는 대단위 노동자 거주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초기 안산시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으로 직교형 가로망으로 조성된 계획적 주거지에 해당된다. 여기에 안산역을 바로 앞에 둔 지리적 조건과 함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 술집, 노래방 등 각종 유흥시설들이 원곡동 지역 일대에 위치하면서 상권이 크게 성장하여 1990년대 초까지 안산의 중심적 상업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1986년 시(市)로 승격 후 안산시는 여러 차례 개발계획 수정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원곡동 일대의 상권이 새로 건설된 주거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권의 슬럼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급속하게 이주민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증가한 이주민은 원곡동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으며 중요한 소비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내국인들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눈을 돌려 부동산업, 이·미용업, 이동통신업, 슈퍼, 위락시설 등 생활품과 관련된 업종 위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한정우 2008, 22, 71).

이러한 상황에서 원곡동 내국인은 초기 원곡동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경제적, 주거환경적 이유로 이주민에게 자신들의 영역을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내국인은 이주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주민을 원곡동 주민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원곡동의 모든 경제활동은 이주민의 생활패턴과 소비패턴에 따라 변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내국인 중 적극적인 소비층이 없는 것과 청장년층의 감소는 원곡동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원곡동의 내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배타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② 상권 활성화와 ‘국경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원곡동은 이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이주민의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국경 없는 거리가 지정되어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주민문화의 중심지를 만들어나가게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친 이주민적 정책

이주민 관련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곳이 안산시이다. 안산시는 2005년 6월 14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전담부서인 산업지원사업소 내 외국인복지지원과를 이주민근로자가 가장 많이 사는 원곡본동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와 안산시민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하모니’라는 간행물도 발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안산 외국인복지지원센터가 건설되었다.

④ 이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문화정체성 유지 노력

원곡동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 사회단체가 많이 존재하며 활동도 활발하다. 이 과정에서 원곡동은 다국적 이주민들의 문화적 거점과 확산의 매개체가 되었고 안산시 이외 지역 이주민들도 주말이면 원곡동에 모여 자신에게 필요한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주민들은 자국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들은 식당, 모스크, 사원, 언어, 음식, 축제 등 문화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각종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국적별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 이로 인해 원곡동에 있는 식당과 종교시설이 기타 외국인들의 네트워크의 결절지이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이주민 식당은 원곡본동 국경 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식당운영은 부부가 같이 운영하지만 음식은 국제결혼을 통해 정착한 이주민이 현지음식을 직접 만들어 자국 이주민에게 판매한다. 원곡동은 이주민의 국적별 네트워크의 메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안산시 이주민노동자들의 집합장소이며 타 지역 이주민들의 집합장소이다. 이로 인해 원곡본동의 상업의 주

제 4 장 ...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

대상은 이주민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정우 2008, 133-134).

⑤ 원곡동의 관광상품화 모색

정부기관이나 안산시는 원곡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주민을 지원하는 행정, 의료,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고 문화적 테마지역으로 인식하여 원곡동에 이주민노동자의 역사적 축적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을 한국사회에서는 특이한 현상이므로 관광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인식하여 다문화특구로 지정하고 개발하여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곡동을 관광상품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다.

(2) 원곡동지역의 현재와 미래: '안산 다문화체험 특구계획' 을 둘러싼 갈등

현재 원곡동 다문화체험 특구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이 다문화체험 특구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공동체모형을 정립하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통합할 수 있는 다문화공동체사회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외국인복지여건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다문화체험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체험 특구계획' 은 원곡동 795번지 일대 약 579,000m²를 특구로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총 8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781억(국비 4억, 도비 7억, 시비 174억, 민자 530억)등이다.

다문화체험특구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다문화체험 관광사업, 다문화특화브랜드화사업 등으로 분류해 다문화교류센터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름으로 짓고 있으며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으며 특화거리 조성 과 아시아 전통민속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 원곡동공원을 평면화해 외국인의 모임과 이벤트, 행사,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이주민노동자와 한국인들이 이주민들과 어울려 다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 유네스코 캠프 등 아시아를 비롯해 지구촌의 문화육구 지대로 다양한 문화를 발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고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안산이주민센터 등 관내시민단체 등은 이번 다문화체험특구계획은 지역이주민공동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졸속적인 사업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곡동이 관광특구로 개발될 경우지가 및 임차료가 상승하게 되고 원곡동의 가게 임대료와 집값이 오르면 원곡동 상인들과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 차이나타운, 전주 외국인거리 등이 지정되고 가게 임대료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렇게 외국인이 없는 원곡동 다문화체험특구로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학계와 이주민공동대표, 이주민지원단체, 주민대표, 관이 공동 참여하는 범 추진위를 구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⁹⁾ 원곡동다문화체험 특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원곡동은 또 다른 변화의 시기에 놓인 것만은 사실이다(한정우 2008, 138-139).

원곡동은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노동자가 거주하며 내국인과 함께 다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최초의 이주민거주공간이다. 원곡동지역은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각 국가마다 자신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려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원곡동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외국인 모두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원곡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문화공간의 시험무대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원곡동 다문화공동체가 종착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 국적이 같은 문화권은 서로 교류하지만 타 문화권과의 교류는 미흡한 편이며 내국인과의 관계도 아직은 완전히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9) '안산지역 이주자지원단체 연대회의'는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곡동 다문화체험 특구계획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원곡동 다문화 특구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제주의 다문화사회 되기: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의 방향과 내용

①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제주다민족문화제

5월 21일은 UN이 정한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이며 5월 20일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따른 ‘세계인의 날’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제1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과 세계인주간(5월 20일-5월 26일)을 지정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마당축제인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2008년 5월 20일 제주한라대학에서 개최되었고, 제주도가 마련한 이날 행사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결혼이민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세계인 주간(5월 20일-26일)을 맞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를 마련했는데, 그 하나가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2008제주다민족문화제¹⁰⁾이다. 이 행사는 제주시 칠성로 상가거리에서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주관으로 ‘색, 소리, 꽃’을 주제로 해 개최되었다. 특히, 2008제주다민족문화제는 제주시 칠성통 상가 일원에서 개최함으로써 외국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했다고 평가된다.

2008제주다민족문화제 기간에 칠성로에는 다문화거리가 조성되었다(〈그림 1〉 참조). 2008제주다민족문화제의 운영주체는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였고 주관은 2008제주다민족문화제추진위원회가 하였다. 이번 다민족문화제의 목표는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 다문화제, 통제가 없는 자유 속의 다문화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제, 거리에서 만나는 다문화제’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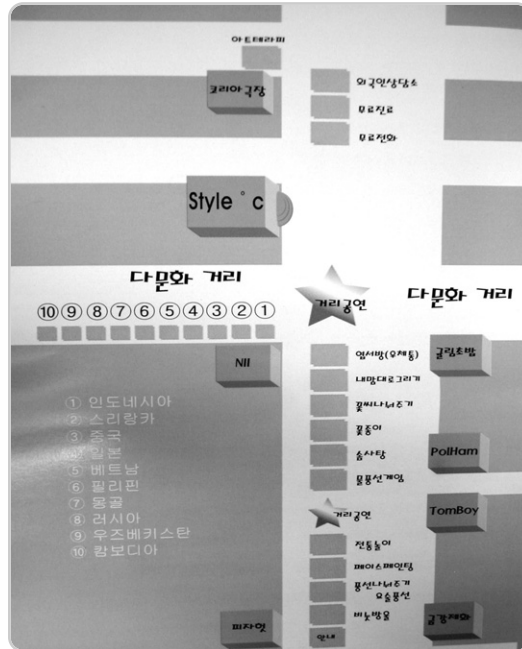
2008제주다민족문화제 행사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월 24

10) 제주다민족문화제는 2006년부터 개최해왔고 주로 추석연휴기간에 시민단체를 주도로 해 개최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세계인주간에 개최되었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일 제주시 칠성로 일대에서 세계음식 및 차문화 체험코너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에서 베트남출신 이주여성들은 쌀요리를 선보였고 러시아여성들은 샐러드요리를 선보였다. 또한 칠성로와 교차하는 신흥로에서는 거리 공연과 상상퍼레이드, 시민과 함께 하는 소리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제주문화체험장도 마련되었다. 이처럼 ‘다문화거리’에는 세계음식 및 차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했고, 나라별 체험코너가 칠성로 2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신흥로 일대에서 문화예술의 거리(상상퍼레이드, 거리 공연), 또한 이주민지원서비스(의료봉사, 무료국제전화 등), 참여코너(페이스페인팅, 요술품션 등), 제주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그림 1> 2008제주다민족문화제 행사공간 구성



②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의 방향과 내용

(a) 중장기적 방향과 계획

■ 칠성로와 중앙로 일대 구 상권활성화정책과 결합

제주도는 1970년대 이른바 제주의 명동으로 불리던 제주시 칠성로와 중앙로 일대로 집중됐던 상권형성이 갈수록 분산되면서 양적 팽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주시 도심권내 상권은 일도지구와 연동·노형지구 등 택지개발을 기점으로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재편되면서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제주상권의 원조인 칠성로 상권은 유명브랜드 의류점과 액세서리점 등이 밀집돼 '패션 1번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권분산과 유통시장 변화로 고전하고 있다. 290개소로 조사된 업종분포를 보면 브랜드 의류와 신발, 화장품, 패션 소매업 등이 밀집하면서 도소매업 비중이 56.6%(164개소)로 가장 높다. 중앙로 상권은 1980년대만 해도 행정기관과 전자제품 판매점 등 도소매업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상권내 주차시설 부족과 도로 협소화, 새로운 도로개설 등으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337개소로 조사된 업종 분포를 보면 브랜드 의류와 신발, 잡화 등 도소매업 비중이 45.1%(152개소)로 가장 높았고 병의원과 금융기관 등 서비스업도 34.1%(115개소)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대병원이 아래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하상권은 남녀 캐주얼과 여성의류, 아동소매업 등이 밀집돼 칠성로 상권과 함께 최고의 의류 상권을 구축하고 있지만 대형할인점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로터리상권은 1970년대 150여개 점포를 보유한 보성시장 개설로 활기를 띠었으나 신제주와 일도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점진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청 상권은 도로확장과 건물신축, 대학생들 간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대학상권'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먹자골목 등 음식점이 밀집되는 등 학생대상의 도소매업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음식, 숙박업이 326개소로 전체 475개소의 68.6%에 달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했다(제주도소상공인지원센터 조사 『제주시 상권분석』).

상권별로 주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변신을 꾀하고 있지만 신흥주거지상권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상권의 경우 상권분산에 따른 위축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례로 칠성로 상권의 경우 ‘차 없는 거리’와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규모와 인구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상권의 양적 팽창만 이루어지면서 구도심 공동화현상과 함께 상권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도심재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논리상 ‘파이’를 키우는 대책이 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답보상태이다. 따라서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장소를 구상가 일대에 위치지우면 구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풍물시장·벼룩시장, 세계 음식문화 교류장터시장 상설화

• 장터와 풍물시장의 기능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사람이 모여서 화물의 교환판매를 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장시’ 또는 ‘시장’이라 불렀으며 이를 줄여서 ‘장(場)’ 또는 ‘시(市)’라고 한다. 시장 관계 법률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획된 지역에서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상품의 판매 교환을 행하는 장소를 정기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일정한 개시일을 갖고, 공간적으로는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정기시장이라 개념화할 수 있다.

장터·장날은 다음의 기능을 갖고 있다. 첫째, 경제적 기능으로 상품의 판매, 구입 등 경제적인 거래기능을 한다. 둘째, 물건의 매매에만 그치지 않고 영농 및 생활정보의 교환이나 사교, 오락의 기능까지 지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합장소였다. 특히 명절에는 온갖 놀이, 즉 시류, 그네타기 등을 시장에서 벌였다. 따라서 장터는 ‘연결망’이며 ‘만남의

제 4 장 ...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

장' 이기도 하고 동시에 '해방감의 장' 이 되어 한국인의 삶과 함께 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장터를 마련할 경우 세계 음식문화 등 각종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터는 지역개발의 기능을 지닌다. 즉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일자리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주민들은 제주사회에 정착해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갖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07). 장터사업은 이러한 이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 **풍물시장의 장소성:** 어떤 장소 안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소속된다는 것이고 그곳과 동일시되는 것이며 이때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더욱 강해진다(Relph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116). 장소정체성은 장소의 정신, 장소감, 장소의 분위기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으나 장소정체성은 장소의 지형과 외관,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활동,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 상황에서 유래한 특별한 의미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환경, 사물, 인간활동이 서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장소정체성은 도시나 경관의 물리적 외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과 의도 속에도 존재하며, 이는 개인들 사이에서 상호주관적으로 결합되어 특정 장소의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장소가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사함이나 유일한 존재라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차이를 가져다주는 것이 요구된다. 장소정체성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하여 인식하고 회상할 수 있는 경우에 형성된다(이진희 2003, 32).

농촌을 중심으로 한 정기시장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에 사회정책적 차원으로 도시지역에 풍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5일장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즉, 농촌주민들에게 5일장은 거러나 유통뿐만 아니라 정보의 교환 기능까지도 담당한다. 농촌의 5일장은 잔치와 축제분위기가 되어 이곳에 참여하는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져 발전하는 지역의 사회적 통합기능까지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에 반해 현대화된 도시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시장이 사라지고 상설시장이 경제적 기능만을 담당해왔다. 이렇게 상설시장만이 존재하던 도시에 품물시장이 정부의 사회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성립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5일장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품물시장의 상설화는 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정보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상인들과의 관계, 경제적, 행정적 지원 및 품물시장 상설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물적, 인적 자원 등 동원방식)에 대한 문제는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 **벼룩시장:** 온갖 잡동사니를 다 모아놓은 만물시장이다. 벼룩시장은 쇼핑을 하면서 친구나 이웃도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벼룩시장은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골동품, 옛스러운 감동스러운 생활용품, 소박한 흥정과 세상이야기로 가득 차있는 서민들의 정취와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 **세계시장 ‘바자르’:** 2006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이주노동자 축제에서 선보인 세계시장 ‘바자르’는 세계각국의 전통물품과 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열린 품물시장이다. 공정무역단체, 이주민지원단체, 이주민공동체와 함께 하는 이국적 품물시장으로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신기한 물건들과 특산물들을 세계품물시장 ‘바자르’에서 보여주었다.
- **적합한 장소**¹¹⁾

11)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청 부근이 좋지만 ‘대학로’ 로서의 특성이 강하고 지가도 비싸기 때문에 구 상권 활성화차원에서 칠성동 부근이나 중앙로의 북초등학교 부근(중앙성당 쪽)이 적합하다. 더욱이 중앙로 건너편에 비해 북초등학교 부근은 침체되어 있다.

제 4 장 ...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

제1장소: 칠성동-칠성로

제2장소: 중앙로 북초등학교¹²⁾ 부근(중앙성당 부근), 지하상가까지 연결
되게 할 수 있다.

- 구 상권 활성화
- 접근성 용이(공항, 부두, 대중교통 등)
- 정보교류와 만남의 장소화(소통의 공간화) - 문화공동체 활성화
-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 문화관광자원화

■ ‘다문화전시관 혹은 체험관’ 구상 - 다문화이해교육 차원

- 이주민들의 출신국가별로 다문화이해교육의 장을 만들어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인식시킬 수 있으며, 이것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제주는 무비자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3세계 국가로부터 오는 관광객을 겨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거리에 이 전시관 혹은 체험관을 위치시키는 것이 일정한 시너지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특히 칠성동-칠성로 혹은 중앙로 부근은 부두나 공항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이곳을 관광하고 갈 수 있는 입지적 이점이 있다.

■ ‘다문화통역센터’ 구상 - 배출되고 있는 다문화강사 활용방안 - 일자리 창출

- 제주를 제3세계 언어의 요충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전과과 경쟁해야 하는 영어교육도시가 아니라 제3세계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제주로 와야 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해나가는 것은 지역경쟁력 강

12) 이렇게 될 경우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북초등학교를 다문화학교로 지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화 차원에서 중요한 장소마케팅이 될 수 있다.

(b) 다문화공동체 활성화,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자원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터에서는 소박한 인정, 풍속, 음식 등을 보고 즐길 수 있고 장날이라는 개념이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것이라는 점, 장터·장날은 역사, 전통 그리고 과거의 생활상을 추적해 볼 수 있고 현재의 발전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터사업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풍물시장이나 장터마당을 상설할 경우 이같은 장터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풍물시장이나 세계 음식문화 교류장터마당의 상설화는 소규모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상가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이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역할, 아울러 그들의 문화정체성의 보존과 공생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③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의 방향과 내용¹³⁾

(a) 방향

-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독특한 지리적 속성과 역사적 경험이라는 제주의 장소성에 기반해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장터사업은 문화공동체적 성격의 행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터사업이 경제적 이득과 함께 고용과 소득창출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이주민들에게 축제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13) 안산시 원곡동 사례와 제주이주민센터 실무관계자와의 인터뷰내용에 기반하였음을 밝혀둔다.

제 4 장 ...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

해나가면서 이주민들의 문화성을 현재화하며 이를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문화정체성 제고와 함께 지역의 문화관광자원화하는 방향성을 가져나가면 될 것이다.

(b) 내용

- 현재 개최되고 있는 ‘제주다민족문화제’를 확대·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재구조화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주다민족문화제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차별 없이 교류되는 소통과 화합을 목표로 3년째 개최되어오고 있다. 세계인주간에 개최된 2008제주다민족문화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 나라별 문화 체험전시관과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이주민들뿐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직접 보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각 전시관은 독특한 자신들의 문화의 색깔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이주민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 각국의 다양한 ‘음식맛 여행코너’ 3) 문화마당-이주자들의 노래 자랑과 체육코너, 그 외 참여마당 4) 정보와 나눔의 마당 등이다.

이러한 ‘제주다민족문화제’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방안과 관련해 일선에서 이주민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고 이에 대한 일정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일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파트너십 하에 이주민들의 출신국가별 풍습 및 음식문화 등과 같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 ‘다문화거리’¹⁴⁾ 조성을 통해 풍물시장·벼룩시장, 세계 음식문화 교류 장터시장 상설

- 세계인주간 혹은 다문화주간(5월 20일-26일)에 이주민들의 출신국가

14) 다문화거리를 조성할 경우 전국 최초가 될 것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 별로 일자를 정해 각국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가져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 풍물시장 상설화와 관련해 1호점, 2호점 등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즉 먼저 1호점 개점을 지원해 일정하게 성공하면 그 수를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음식문화 장터마당도 현재 결혼이민자들이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 비싸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량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¹⁵⁾
 - 도 당국의 지원방식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경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상가번영회 등과의 원만한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들은 결혼이민자들을 이 사업에 연결시켜주는 작업과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원하여 ‘출자해 나누는 공동체’ 1, 2, 3 등을 만들어나가게 하면 자조집단 육성과 함께 이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자조문화공동체를 관리하고 이들 집단을 육성해 상호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간다.
 - 이때 문화행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구성원들이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풍물시장 활성화 전담부서를 편성하여 풍물시장 번영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 풍물시장 운영방식은 도 당국과 관련 시민단체와 풍물시장회(결혼이민자 중심)가 협조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좋다.

15) 성공한 사례로 네팔인이 운영하는 제주시청 부근의 ‘바그다드’ 식당을 들 수 있다.

제 4 장 ...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

- 도시의 장터인 풍물시장을 ‘도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다문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의 조성’으로 규정해 출발해야 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풍물시장의 주체는 이주민들이어야 하고 그 수혜자도 기본적으로 이주민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④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제주의 다문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노동자가 거주하며 내국인과 함께 다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최초의 이주민 거주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사례를 살펴보았다. 원곡동 사례는 공간형성이나 이주민의 구성에서 제주와 차이가 있지만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각 국가마다 자신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는 유엔의 인권존중과 유네스코의 평화지향을 제주도답게 수용하면서 제주평화학의 정립과 함께 평화산업육성이 요청된다. 전체적인 인권과 평화쌍기로서 평화학이 하드웨어로서의 세계평화 섬 정책 및 인프라를 평화산업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연결시켜나갈 때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의 정체성 강화 및 세계화, 다문화주의 포용과 정착 등을 통해 제주문화, 한국문화, 그리고 외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창훈 2004).

다문화사회는 이민,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국제결혼, 난민, 망명자, 유학생 등으로 구성원의 다양성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불협화음을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집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 기회를 마련하고 서로 다른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차이에 대한 수용, 이해 및 존중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모든 이주민들의 자국국민과의 평등한 대우,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정책이 요구된다(박채복 2008, 263-264).

이러한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차원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을 정부정책과의 연계 하에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다문화교육의 네트워크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소수문화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타문화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은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교육기구의 설치 및 활성화를 통하여 다문화 중심의 사회통합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즉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 간 새로운 협력과 통합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형성 작업을 위한 인식의 공유와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사회의 핵심적 구성주체는 이주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를 말하면서도 이주민들을 주변화시키는 모순을 범하지 않도록 이주민들 혹은 외국인들이 한시적이지만 규칙적으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비이민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유입 역사가 짧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주류사회와의 소통보다는 자국민들 간의 경제행위를 위한 정보교환과 문화향유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제주사회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평화문화교류장터사업을 기획할 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열려있는 다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하며, 많은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창훈. 2004. “세계평화섬 발전전략으로서 제주평화학 정립과 평화산업 육성연구.”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5집 1호.
- 김은미 · 김지현. 2008. “다인종 · 다민족사회의 형성과 사회조직: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 김현미. 2002.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또 하나의 문화.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 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 박경환. 2006. “다문화주의 없는 다문화주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재세계화를 위한 이론적 함의.” 『한국도시리학회지』 제9권 3호.
- 박배균 · 정건화.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0권 4호.
- 박채복. 2008. “한국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 설동훈. 2005.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김영기 편. 『한국사회론』 전북대학교 출판부.
- 설동훈 · 한건수 · 이란주. 2003. 『국내거주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염미경 · 김규리. 2008. 『제주사회의 결혼이민자들: 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 선인.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이진희. 2003. 『장소마케팅』 대왕사.
- 제주도소상공인지원센터. 2006. 『제주시 상권분석』.
- 한건수 · 설동훈. 2007.9.13.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다민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족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국제학
술대회』 한국문화인류학회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
제이해교육원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한정우. 2008.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 과정.”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Castells, Muel. 1996. *The Information Age: Society and Culture: The
rise of network society*. Blackwell Publishers, Inc.

Harvey, David. 1978. “The Urban Processe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 101-131

Rolph, E.,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Robertson, Pat. 1992. *The New World Order*. Thomas Nelson.

제 5 장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 고 선 영

1. 평화산업으로서 지역기반 생태관광

생태관광을 통한 평화산업은 위락만이 아닌 책임 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관광객과 지역사회로 하여금 자연과의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성격을 갖는 다목적 지역활성화 전략이다. 평화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인 평화와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구현되고 보존되는 진정한 발전 상태로 보는 적극적 평화로 구분(박주식 1996, 1)되며, 적극적 평화의 개념은 역사적이고 문화적 평화개념을 생태자원으로 확장시켰다. 즉 자연과 인간의 공존·평화를 지향함으로써 관광주체인 관광객과 관광대상으로서의 생태자원과의 공존·평화,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주체(지역사회)와 관광객간의 교우·이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평화섬 제주에 생태관광 활성화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특히 제주도는 UNESCO로부터 2002년 12월 한라산 생물권보존지역 지정, 2007년 6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지정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제주관광의 최대 장점을 천연자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어(제주 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8, 6), 생태관광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이 진실로 지속가능한 형태의 지방경제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의도한다면 강력한 지역사회 참여가 요구된다(Beeton 1998). 그러나 국내외 사례에서 몇몇 성공사례가 있지만, 생태관광에서 지역사회 참여가 심각하게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Honey 1999, 85).

한편 생물권보존지역 지정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생태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수준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특히 세계자연유산의 첫 활용사례인 '거문오름 국제 트레킹 대회'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제주가 지니는 뛰어난 경관과 자연환경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관광산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나,¹⁾ 자칫 개발압력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유산의 가치 훼손 위험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 7월 세계자연유산의 첫 번째 활용사례로서, 거문오름 국제 트레킹 대회 개최는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의 첫 시험대가 되었다.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유산을 소유한 지역주민들에게도 기대와 자부심을 북돋은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것이 가져올 지역활성화에 대해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본 연구는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지역기반 생태관광 활성화방안이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생태관광 계획과 관리의 맥락에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Beeton, 1998; Cater, 1994; Brandon, 1993; Drake, 1991 등), 최근 추진된 거문오름

1)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방문한 관광객은 2007년 1월 ~ 8월 160만 3천 26명에서 2008년 같은 기간 189만 9천 679명으로 18.5%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14만 3천 524명에서 19만 1천 958명으로 33.7%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08.9.15일자).

국제트레킹 대회를 지역사회 참여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나아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의 생태관광

1) 생태관광의 개념

(1) 대중관광과 대안관광

관광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유형은 대중관광(mass tourism)이다. 대중관광은 활동의 형태를 불문하고 대량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관광으로, 주로 표준화되고 패키지화되어 융통성이 제한된 관광을 말한다(박석희 2001, 67). Burkart와 Medlik(1974)은 대중관광은 대량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20세기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으로, 관광 참여자의 비율이나 관광 활동량 등의 양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는 관광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Poon(1993)은 대규모 표준화된 패키지 여행이며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규범, 문화, 사람, 환경에 미치는 관광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이 바로 대중관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환경부 2002, 1·2 재인용). 이에 에딩턴과 스미스 (Edington and Smith 1992, 8)는 대중관광객을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눈이 아프도록 보고, 마치 그들이 한 무리의 소떼처럼 모여 다니면서 전통문화와 직업형태를 바꾸어 놓는가 하면, 지역주민의 욕구와 가치관을 무시한다’고 비판하였다. 대중관광은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중관광의 부정적인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각과 비판으로 등장한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은 198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tourism)과 더불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대안관광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은 소규모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경제적 편익도 적절하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주는 바람직한 관광으로, 관광객 수와 유형, 행동, 자원에 미치는 영향, 수용력, 경제누수효과, 지역참여 측면에서 기존의 대중관광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Butler, R. W. 1990, 7).

<표 1> 대중관광과 대안관광 비교

대중관광	대안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 제약 없음 • 가격중시 • 대규모 단체 이용 • 지구수준의 계획 • 지구내 분산 개발 • 양호한 경관지역을 집중 개발 • 새로운 건물 건설 • 수요과다 정책 • 첨두수요 수용 지향 • 외부인의 개발주도 • 외지인 고용 • 경제적 이익 최우선 • 기존 지역산업 붕괴 • 사회적 비용을 지역에서 부담 • 자가 교통수단 우선 • 자연적 역사적 유물 제거 • 고도기술, 장비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 제약 없음 • 가격중시 • 대규모 단체 이용 • 지구수준의 계획 • 지구내 분산 개발 • 양호한 경관지역을 집중 개발 • 새로운 건물 건설 • 수요과다 정책 • 첨두수요 수용 지향 • 외부인의 개발주도 • 외지인 고용 • 경제적 이익 최우선 • 기존 지역산업 붕괴 • 사회적 비용을 지역에서 부담 • 자가 교통수단 우선 • 자연적 역사적 유물 제거 • 고도기술, 장비 위주

자료: 박석희(2001, 86)

제 5 장 ...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종래의 대중관광은 대규모이고 제약이 없는 가운데, 가격을 중시하고 대규모 단체가 주로 이용한다. 그리고 관광지구 내부만 고려하며, 건물을 새로 짓고, 수요를 과다책정하여 첨두(尖頭) 수요를 지향한다. 외부인이 개발을 주도하고 외지인을 주로 고용하며, 경제적 이익확보를 최우선에 둔다. 따라서 지역산업은 붕괴되고 사회적 비용은 지역사회에서 부담한다. 여기에 반해 대안관광은 계획적이며, 지역과 연계된 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보존하며, 기존 건물의 재사용을 추구하고, 개발규모도 평균수요를 지향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개발을 주도하여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산업이 존속할 수 있으며, 개발업자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박석희 2001, 85).

대안관광은 전통적인 대중관광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유형의 관광 전략들, 예를 들면, “생태관광”, “연성관광(soft tourism)”, “책임 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 “통제된 관광(controlled tourism)”, “소규모 관광(small·scale tourism)”, “녹색관광(green tourism)”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많은 유형의 대안관광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회·문화적 관광(socio·cultural tourism)과 생태관광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사회문화적 대안관광은 전원관광(rural tourism) 또는 농장관광(farm tourism)처럼 주요 관광경험이 경작지의 환경과 조화되는 문화적 환경에서 형성되는 관광을 의미하고, 반면 생태관광은 사회문화적 환경보다는 자연과 자연자원에 더 의존하며 이것이 여행의 주 요소나 동기가 되는 관광을 지칭한다(환경부 2002, 2).

2) 생태관광의 특징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이상적인 관광으로 가는 새로운 관광형태로 이해되며, 지역공동체와 문화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관광부문의 하나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생태관광학회(Ecotourism Society 1991)는 “생태관광이란 자연자원의 보존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환경의 문화적, 자연적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 있는 여행”으로 정의하였다(환경부 2002 재인용). 이는 자연지역이라는 대상과 함께 목적지인 지역사회와의 편익을 고려한 자연적, 문화적으로 책임있는 관광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선영 2006, 10). 즉 생태관광 자원들이 지역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관광자원으로 재구성되며, 이것이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진정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생태관광은 자연에 대한 인식과 지식함양이 주된 동기가 되어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이를 통해 관광목적지나 사회의 복지증진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내포하는 관광임을 강조한다.

3) 생태관광과 지역사회 참여

환경보존은 생태관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생태관광 개념에서 환경보존은 정부가 자연자원을 법으로 규제하여 보호하고, 지역주민은 환경교육을 받고 난 후 안내를 하며, 관광객에게는 환경보호를 위한 많은 실천강령을 숙지하도록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태관광으로 주민들의 자연 파괴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을 보존하도록 노력하게 할 수 있으며, 주민반대로 불가능하던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미래의 개발압력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환경보존에 기여한다(최재우2001, 61). 이와 더불어 강조되는 효과는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한다는 점이다. 즉 생태관광은 지역의 자원으로 지역주민이 개발을 주도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함으로써 생태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게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 5 장 ...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생태관광의 주창자들은 생태관광이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을 대표하는 생태개발의 한 양식”(Ceballos·Lascurain, 1991)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생태관광은 원래 의도했던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켰다(Brandon 1993, 208·209). 생태관광이 생태개발을 이끌지 못한 이유로 거론되는 사항은 경제적 개발과 생태적 원칙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인적, 재정적, 문화적, 도덕적 자원을 동원할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노력의 부재와 관광산업이 해당지역 외부 거대자본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계획과정에 지역의 욕구와 선호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존지역 자원 활용에 기존 대중관광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윤 유출과 같은 대중관광의 부작용이 그대로 부각되는 한편, 해당 지역사회는 사회적 비용만 부담한 채 지역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창출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 세계보존전략회의(World Conservation Strategy)에서는 보호지역관리와 지역사회 경제활동간 상호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1982년 세계국립공원대회(World Congress on National Parks)에서 자연보호주의자들과 보호지역관리자들은 공원의 계획과 관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헌장을 채택했다. 이러한 추세는 생태관광의 자원기반적 속성과 지역사회 지향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태관광은 시골이나 주변지역, 산업화되지 않은 지역에 경제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장기간 경제적 안정성을 주며, 생태관광객의 체류에 의한 지역상품 및 서비스의 높은 소비경향으로 지역경제의 이익, 사회간접자본의 발달, 외환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개인의 만족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 형성과 같은 주민의식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4) 제주의 생태관광자원

생태관광은 관광객 기호의 다변화에 따른 휴양풍조의 한 맥락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인간이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반영해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해된다. 따라서 자연을 단순 경험하는 기존 자연관광(nature tourism)과 달리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과 해설을 제공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자연중심 관광이라고 볼 수 있다(오정준 2003, 612). 이런 맥락에서 생태관광은 일반적으로 자원중심형(resource · oriented) 관광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생태관광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일정한 원형(prototype)이 있다기 보다는 관광자원의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희귀식물 자생지, 갯벌, 동굴을 비롯하여 문화유적과 주민의 독특한 생활상 등이 생태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은 비교적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이나 생태보호구역 등이 그 대상이 되며 이외에도 새, 야생동물, 동굴, 화석지, 습지,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의 자원이 대상이 된다(제주발전연구원 2001, 5·6). 생태관광자원의 특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자원 유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바, 웨어링과 네일(Wearing and Neil 2000)이 구별한 생태관광의 4가지 근본적인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생태관광자원 유형²⁾에 근거한 제주도 생태관광자원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제 5 장 ...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표 2> 제주도 내 주요 생태관광자원 현황

생태자원 유형	제주도 내 생태관광자원
자연경관	지삿개 주상절리, 섭지코지, 용머리해안, 용두암, 외돌개, 용연, 쇠소깍, 철부암, 산굼부리 등 오름
야생동물 서식지	하도리 철새도래지(창흥 양어장 등)
식생군락지	비양도, 비자림, 난도 문주란 자생지 등
자연문화축제	고사리 꺾기 대회, 들불 축제, 감귤축제 등
해양생태자원 체험	종달리 조개잡이 체험
지질자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응회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협재굴, 쌍용굴 등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수직·수평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 관광지가 해안 경승지나 한라산과 같이 수려한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특정장소에 형성되었다면, 관광객의 기호가 다변화되고 일상생활과 관광간의 경계가 소멸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활동과 관광활동이 중첩되면서 기존에 주목받지 못한 공간이 관광객의 기호, 흥미, 취향을 통해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으며(오정준 2003, 611) 이들은 대부분 생태, 문화, 체험, 녹색 등의 대안적 관광유형을 표방하면서 관광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대표적 생태관광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오름트레킹이다. 제주도에는 크고 작은 368개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자연경관을 형성하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장소와 생태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오름이 생태관광자원으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여러 전문서적과 대중매체를 통한 장소이미지 형성을 들 수 있다. 제주오름에 대한 전문서적인 ‘오름나그네’(김종철 1995)와 ‘제주의 오름’(제주도 1997)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영화매체(‘이재수의 난’, ‘연풍연가’ 등)의 촬영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오름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그 결과 오름 동호회와 답사팀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오름을 통한 생태·환경학교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오정준 2003, 614). 최근 이러한 생태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며, 특히 그 구성요소 중 하나인 거문오름은 오름에 대한 새로운 주목과 함께 국제 트레킹 대회를 개최하면서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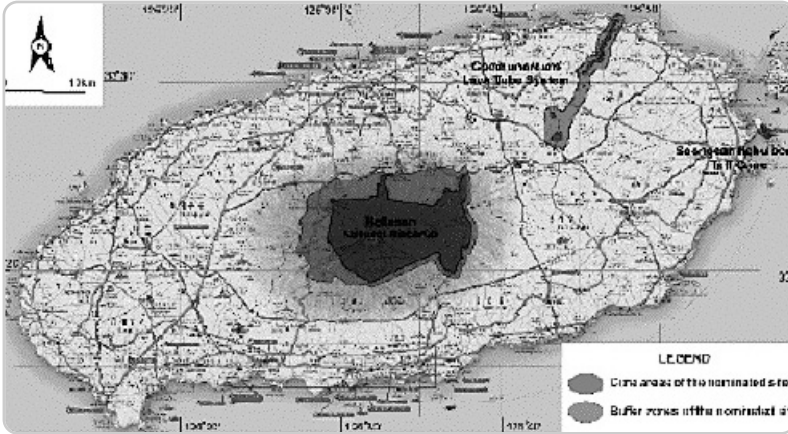
3.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과 지역기반 생태관광

1)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이 2007년 6월 2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보존되어야 할 세계적인 주요 유산으로 인정하여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inscription)' 한 유산을 의미하며, 이 때 유산(Heritage)을 유네스코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 (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인규 2008, 18).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유산보호 운동의 취지로 조성, 1972년 문화지역과 자연지역 보호라는 분리된 운동을 통합하기 위해 세계 문화·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생물종 다양성의 손실과 환경악화로부터 지역, 국가, 국제조직들로 하여금 인류 공동의 유산은 소재국에 관계없이 보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1> 제주 세계자연유산 현황



세계유산센터가 국제기구로 구체화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이집트 아스완댐 건설 결정이었다. 아스완댐이 고대 이집트 문명의 보고인 Abu Simbel 사원이 위치한 계곡에 계획되었고 1959년 이집트와 수단정부의 요청으로, 유네스코가 국제구호 캠페인을 실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약 8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 중 절반은 약 50개국의 기부로 이루어졌다. 이는 뛰어난 문화지역에 대한 국가들의 공유된 책임감과 유대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공은 다른 구호캠페인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유네스코는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의 지원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조직을 준비할 수 있었다. 문화지역과 자연지역 보존을 통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1965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 세계최고 자연, 경관, 역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를 촉구하면서 시작되었다. 1968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이 유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러한 목적들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과 환경에 관한 유엔회의에 제출되었다. 결국 세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보호협정(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 유네스코 일반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우리에게 인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양자 사이 균형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1978년 처음으로 12개 유산지구(8개 문화지구와 4개 자연지구)를 7개국에 지정한 이후, 2008년 8월 현재 전세계 145개국에 걸쳐 문화유산 679개, 자연유산 174개, 복합유산 25개로, 총 878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되기 위해, 후보지역들은 10개 선정기준 중에 적어도 1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이중 2개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세계유산의 기준은 구체적인 선정기준(World Heritage Center 2008, 79·95)은 다음과 같으며, 세계유산개념 자체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정된다.

- i.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하는 것.
- ii. 세계 문화지역 내, 혹은 시대에 걸쳐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도시계획 또는 경관 디자인과 같은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
- iii. 현재 존재하거나 이미 사라져버린 문명 또는 문화적 전통에 대한 비범하거나 독특한 증거를 내포하는 것.
- iv. 건축유형, 고고학적 혹은 기술적 복합물 또는 인간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경관의 뛰어난 사례가 되는 것.
- v. 전통적 인간거주지, 토지이용 혹은 해양이용의 뛰어난 사례가 되는 것으로서 문화를 대표하거나 특히 회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손상되기 쉬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것.
- vi. 훌륭하고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생활전통, 사고(ideas), 신념, 예술작품 혹은 문학작품과 직접적으로, 명백히 관련될 것.
- vii. 최고의 자연현상이나 독특한 자연미, 심미적 중요성을 포함한 곳.
- viii. 지구 역사의 주요 단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사례가 되는 것으로서, 지형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적, 자연지리적 특성을 포함한다.

제 5 장 ...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 ix. 육상, 담수(fresh water), 해안,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 관한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대표하는 훌륭한 사례가 되는 것.
- x.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연서식지로서 과학적 또는 보존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곳³⁾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유산지구(그림 1)로서, 이 중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 뽕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굴, 당치물 동굴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동굴로 구성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나머지 두 구성요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이 용이한 화산의 모습들은 전 지구적 화산활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특징적이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의 가치는 선정기준에 준한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앞의 10개 선정기준 중 기준 vii)과 기준 viii)을 충족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에서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⁴⁾

기준(vii):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평가되고 있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전례가 없는 뛰어난 시각적 충격을 주고 있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형형색색의 탄산염 동굴생성물들이 동굴의 천장과 바닥에 발달하거나 검은 동굴벽을 부분적으로 장식하고 있어 비길데 없는 유일한 장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바다에 솟아있으며 요새와 같은 성산일출봉

3) 그 외 보존, 관리, 유산의 진정성, 통합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1992년 이래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문화경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4) <http://whc.unesco.org/en/list/1264>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은 극적이고 뛰어난 경관을 보여준다. 또한 한라산은 계절에 따라 변화무쌍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포, 기암괴석과 주상절리가 발달한 절벽, 호수로 되어 있는 분화구를 갖고 있으며, 높이 솟아있는 한라산 정상 등은 경관적, 심미적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기준(viii): 제주도는 움직이지 않는 대륙지각판의 열점 위에 발달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몇 개 안되는 커다란 순상화산 중의 하나로서 특징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특히,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용암동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굴들은 모두 잘 보호되고 있다. 또한 일부 용암동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종유석을 비롯한 다양하고 수많은 탄산염 이차 동굴생성물들로 장식되어 있어 장관을 이룬다. 화산의 구조와 퇴적학적 특징들이 잘 노출되어 있는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썬치형⁵⁾ 화산분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가치를 갖고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선정기준에 준한 가치는 이의 사후 활용과 관련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기준(vii)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미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제주 자연환경의 빼어난 지질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보존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미공개 동굴을 포함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시각적 충격과 훼손이 용이한 구조물들로 인해 엄격한 보존원칙에 입각한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기준(viii)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지질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관광 수요자들에게 해당 자원의 지질학적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관광수요 변화양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즉 최근 관광의 성격이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소비적 관광형태에서 벗어나 자

5) 1963년 아이슬란드의 남쪽 바닷가에서 형성된 수성화산인 썬치(Surtsey)화산과 성인이 같다(한국지질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06).

제 5 장 ...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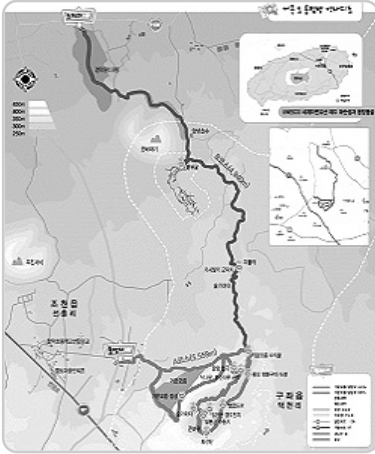
기 개발 및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과 참여의 기쁨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선영 2006, 27). 즉 관광을 통해 '인간의 지적, 심리적' 개발 기회로 삼고 환경생태적·문화적 지식 획득의 기회로 삼아 관광과 교육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 관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지질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자연유산 해설이 제공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전문성 획득을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과 관련기관의 지원이 요구된다.

2)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 추진과 지역사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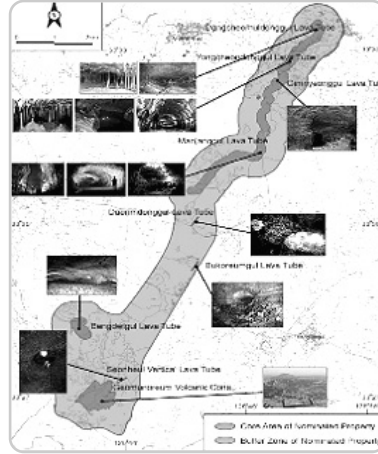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행정구역상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에 걸쳐 분포하며, 해당 유산의 기원을 제공하는 거문오름과, 거문오름 분출로 인해 생성된 5개의 용암동굴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북북동 방향으로 흐르면서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굴, 당치물동굴을 형성시켰다는 것이 지금까지 거문오름 용암동굴 형성기원에 대한 정설이며, 유산은 절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핵심지구가 각 용암동굴로부터 50m, 완충지구가 각 핵심지구로부터 500m 지역까지 지정되어 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이 이미 관광지로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음에 반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미개방 동굴을 포함하고 있고 학술적, 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유산활용 및 보존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첫 활용 사례인 거문오름 국제 트레킹 대회의 추진은 지역주민, 제주도민, 관광객에게 고무적인 이벤트가 되고 있으며, 향후 제주 자연유산활용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그림 2>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그림 3>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 주요코스



<표 3>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 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

참여기관	주요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본부	총괄 관리
한라일보사	기획, 마케팅
제주 환경참여연대	자연유산 해설 자연유산 해설 양성 교육
한라산 등산 학교	트레킹 참가자 안전 요원 트레킹 코스 모니터링
선흘 2리 주민	자연유산 해설 유산지구 관리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는 2008년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고, 거문오름 일대 10.5km를 탐방하는 트레킹 상품은 화산분출로 생성된 거문오름의 독특한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테마상품으로 만들어졌다(중앙일보, 2008. 6. 17일자). 거문오름 국제 트레킹 대회의 성공적

제 5 장 ...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개최를 위해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지역 주민의 협조로 진행되었고 (표 2),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협조를 통해 전문성과 추진력이 뒷받침되고 있다.⁶⁾

트레킹 코스 (그림 3)는 A코스와 B코스로 구분되며, A 코스는 거문오름을 중심으로, B 코스는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의 흐름을 따라 지상을 트레킹하도록 구성되었다. A 코스는 거문오름의 정상과 분화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총 길이 5,559m이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시 정각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해설사들의 유산해설이 제공되었다. B 코스는 분출된 용암흐름을 상상하며 트레킹 하는 코스로서 총길이 4,940m이며, 자연유산 해설은 동반되지 않으나, 한라산 등반학교 동문회가 안전 및 코스 안내를 담당한다.

A 코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유산 해설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OUV가 vii)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 viii) 지구역사의 주요 단계 표출임을 고려할 때, 경관 관람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기준 vii)과는 별도로, 지질학적 형성과정에 대한 전문적 해설은 기준 viii)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을 제주 참여환경연대에서 담당하였으며,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거쳐 총 16명의 해설사를 배출하였다. 특히 이중 6명은 거문오름 소재지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 2리 주민들로 구성되어, 지질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역사, 생활문화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유산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마을 자산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자부심이 고양되고 이를 활용하고 보존하는데 구체적으로 참여하

6) 주민 참여 및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발전 성공사례가 종종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경기도 양평군 명달리 생태산촌마을이 있다. 명달리는 생태산촌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생태산촌 계획 초기부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후원하였으며, 정부의 다양한 사업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서로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마을로 평가된다. 계획 초기부터 명달리 주민과 NGO(생명의 숲, 생태산촌만들기 등), 기초자치단체, 전문가들이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상하였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 158).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기를 원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제 트레킹 대회 추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호응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 지역주민 6명에 국한되었던 해설사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향후 해설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금번 트레킹 대회 추진을 통해 향후 자연유산 활용에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4. 지역사회 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1) 파트너십 구축

이번 대회의 “거문오름 트레킹대회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관계, 민간, NGO,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하여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정부는 생태관광의 환경·문화·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기능, 생태관광과 관련한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 적절한 생태관광 개발의 기준과 감시시스템 개발과 실행 등 생태관광개발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NGO 단체는 생태관광개발 결정시 자문단체의 일부로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적절한 개발로의 진행을 유도하고 비판 및 감시 기능과 더불어 효과적인 생태관광개발을 위한 지역의 협력자를 탐색하고 생태관광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주민은 가장 밀접하게 생태관광지와 연관되어 있는 역할자로서 생태관광의 실행·관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국제 트레킹대회는 최초의 유산지구 활용 사례로서 지역사회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은 거기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낌으로써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

제 5 장 ...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생력있는 지역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2) 권한강화

세계자연유산은 인류공영의 자산으로서 철저한 보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유산지역 식생에 대한 불법 도채가 성행하고 있다. 생태관광이 갖는 환경보존, 환경교육적 기능이 아직 정착하지 못한 관광환경 상 보존의식 형성과 생태자원 보존을 위해 이를 제재할 권한과 강제성이 해당 지역 주민 또는 관리자들에 부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문오름과 같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유산지구나 생태관광지의 경우, 향후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과 관리자들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부여가 요구된다.

3) 지역 중심의 제도화

전체적 맥락에서 유산지구의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유산관리의 체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곧 지역특성이 간과될 수 있는 단점을 내포한다. 따라서 각 유산지구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구별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제도화된 조직은 관보다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법인체 혹은 독립구성체의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지역주민의 요구수용과 자원보존의 측면에서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인체 내지는 독립구성체를 구성하는 한편,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정보와 인적 물리적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 특수적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4) 전문화

자연유산 해설사를 포함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특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위한 역할과 자격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생태관광 운영자는 민감한 생태자원의 관리는 물론이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역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의 확보는 성공적인 생태관광관리를 좌우하는 잣대가 된다(국립산림과학원 2007). 지역 주민은 일반적인 해설사들이 갖추지 못하는 유산관련 생활 문화 및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데서 차별화된다. 생태관광은 단순히 잘 보존된 자연지역으로의 방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자원의 이용을 통한 건전한 경험이 담보되는 관광이다. 이런 맥락에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관광에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경관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사의 역할은 단순한 가이드를 넘어 경관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유산의 질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주민은 객관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역할이 아닌 생태자원과 관련된 생활문화, 역사와 연관된 생생하고 차별화된 해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지질, 식생 등에 대한 전문적 정보 전달에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거문오름에서 해설사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제주 참여환경연대에서 제공하는 해설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이는 자격제나 인증제가 아닌 이수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화 획득에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되, 엄격한 전문화 제도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선영. 2006. “장소자산에 기반한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립산림과학원. 2007. “제주시험림의 생태관광계획 수립.”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연구.”
- 박석희. 2001. “전통적 대중관광의 문제와 대안”, 김성일·박석희(편).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 박주식. 1996. “탈현실주의 평화학.” 『평화연구: 이론과 실제』. 유엔세계 평화의 해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 오정준. 2003.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 이인규. 2008.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보존·활용방안.” 『2008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담당자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2001. “제주형 생태관광개발의 방향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8. “제주관광 고비용·불친절 해소추진 상반기 추진성과 조사평가.”
- 최재우. 2001. “뉴질랜드 생태관광의 효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3).
- 카트리나 브랜던. 1993. “자연관광사업에 지역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단계들.” 크레그 린드버그·도날드 호킨스 편, 김성일 역. 생태관광·계획과 관리의 지침. 일신사.
- 한국지질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06. 『제주도 지질여행 증보판』.
- 환경부. 2002. “생태관광 지침개발 및 활성화 방안.”

- Beeton, S. 1998. *Ecotourism: A Practical Guide for Rural Communities*. Gollingwood: Landlink.
- Brandon, K. 1993. "Basic steps toward encouraging local participation in nature tourism projects." In K. Lindberg and D.E. Hawkins(eds.), *Ecotourism: A Guide for Local Planners*. North Bennington, VT: The Ecotourism Society.
- Burkart, A.L. and Medlik, S. 1974. *Tourism: Past, Present, and Future*. William Heinemann Ltd., London.
- Burtler, R.W. 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1), (1980).
- Cater, E. 1994. *Ecotourism in the third world: Problems and prospects for sustainability*. In E. Cater and G. Lowman(eds.), *Ecotourism: A Sustainable Option*.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Drake, S.P. 1991. *Local participation in ecotourism projects*. In T. Whelan(ed.), *Nature Tourism: Managing for the Environment*. Washington DC: Island Press.
- Edington, W.R. and Smith, V.L. 1992.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Form of Tourism*. In Smith, V.L. and Edington, W.R.(eds), *Tourism Alternatives: Potentials and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our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 Honey, M. 1999. *Eco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o Owns Paradise*. Washington DC: Island.
- Poon, A. 1993. *Tourism, Technology and Competitive Strategies*. CAB International, Wallingford.
- World Heritage Center. 2008.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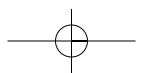
제 5 장 ...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연합뉴스, 2008. 9. 15. “제주 유네스코 등록후 관광객 급증.”

중앙일보, 2008. 6. 17. “세계유산 제주 거문오름 생태관광 새 명소로
뜬다.”

<http://whc.unesco.org/>

<http://whc.unesco.org/en/list/1264>



제 6 장

평화축제사업

..... 박 찬 식

1. 들어가는 말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할 때,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은 제주도민들이 간절하게 염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三無의 섬’이라고 해서 평화를 가꿔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4·3 항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큰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편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극복해나가고 있는 모범을 실현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고, 아픈 역사 때문에라도 반드시 평화를 이뤄내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어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여 평화의 섬 지정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 발언 내용은 향후 제주도 평화 관련 사업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제공하였다.

또한 향후 4·3 기념사업은 ‘평화의 섬’ 추진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이 글을 작성하는데 제주전통문화연구소 박경훈 소장의 고견을 많이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4·3과 평화의 섬 지정과의 연관성을 잘 되 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주사람은 반인륜적 양민학살의 역사를 경험 하면서 상투적·관념적·추상적 평화가 아니라, 몸으로 진정 평화를 갈 구하고 회원한다. 평화의 섬을 거론할 때 우리는 평화라는 상징적인 언어 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에 주목할 것이다. 평화는 인간의 삶의 전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추구하여 온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나 지난 20세기만큼 이나 인류가 평화를 갈구하였던 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21 세기 평화는 과거 20세기의 냉전체제하에서 빚어진 살육과 전쟁을 극복 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제주도는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세력 간의 각축장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세력의 완충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중립지대이기도 하였다. 제주사람들은 외부세력의 지배에 대한 순 응과 저항을 통하여 자기 질서를 유지하려는 자기정체성을 형성하여 갔 다. 순응과 저항은 기존의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하려는 내재화된 제주사 랍의 외부에 대한 태도였다. 그러나 20세기 냉전체제하에서 제주사람들 은 4·3이라는 작은 저항을 시도하다가 거대한 힘에 의한 압살을 뼈저리 게 체험하였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자연적 저항이 폭력에 의해 꺾이는 경험을 한 제주사람들은 인권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채 20세기의 절반을 살아왔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제주는 이제 평화 의 섬으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겪은 4·3 은 이제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평화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제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4·3의 의의와 평화산업 과의 조화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평화의 섬 제주를 논의할 때 4·3 의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모색하는 비전을 중요 한 요소의 하나로 언급해왔다. 제주라는 지역적 시각에서만뿐만 아니라 한 국의 근현대사에서 4·3의 역사가 가지는 의미는 민주화, 인권, 남북통일, 국가관 등의 이슈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권력 내부에서 4·3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

였고 이러한 변화는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4·3 희생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통해서 과거사의 과제를 해소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이 현실이다.

모든 사회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갈등은 명시적으로 논의되는 것조차 금기시 되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가 안고 있는 현대사의 아픔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소모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4·3을 제주의 슬픔과 원망의 忌日에서 화해와 평화의 축제마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역사의 희생자를 위로하고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4월에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4·3관련 행사를 평화의 대개념으로 결합하여 제주의 역사, 자연, 그리고 문화와 결합하여 도민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할 수 있는 장의 마련과 평화축제의 주제와 행사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4·3을 평화축제로 승화시키는 취지와 방법을 모색해보고 앞으로의 추진 과제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축제와 4·3 평화담론

1) 제주지역 축제의 현황

한국에서 행해지는 지역축제의 유형은 세시풍속을 기반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축제, ‘장소판매’를 위한 관광축제, 민주화운동 또는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만들어진 추모의례가 축제의 형식으로 전환된 형태 등을 들 수 있다(정근식 2002).

1992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고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조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응집과 지역문화의 발굴 및 전승, 지역 간의 문화교류 촉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도 지역축제 활성화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것으로, 근래에 문화영역은 점차 도시의 발전과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삶이 지역활성화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강조되었다(정근식 1998, 140).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개발 전략의 하나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파악하는 시각이 '장소 마케팅' 적 접근이다. 서구의 경우 장소 마케팅은 주로 구산업지역을 중심으로 탈산업화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지방자치시대의 등장과 함께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 확보를 통해 지역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지방정부들의 정치적 목적이 그 주 배경이 되고 있다. 한국의 장소 마케팅 전략은 각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상징 창출을 통한 축제나 이벤트 등의 문화행사가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정근식 1998, 141).

제주지역 역시 2000년 30여 종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총 47종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정도로 다양한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축제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제가 본래의 기능이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자치단체와 사회단체의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수많은 지역축제가 개최되지만 축제의 활성화와 올바른 축제에 대한 요구들, 기존 축제들의 문제점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급기야 2006년 가을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존의 축제들 중에 옥석을 가려내어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2) 4·3기념행사의 전개

2008년 올해는 4·3 발발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60주년은 동양적 관점에서 우주 순환의 한 주기로 다루어지며, 세대로 말하면 체험의 1세대와 진상규명운동의 2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교육과 기념의 3세대로 전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비극적 사건의 전개와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의 과정, 4·3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보고서의 확정과 대통령 사과 등 제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4·3의 역사적 기억도 변화하여 왔다. 4·3의 역사적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은 추모제·위령제·기념행사·문화예술제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1989년 4·3의 진상규명 열기가 고양되었던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제주문화운동협의회·제주여민회·제주청년연합 등 12개 단체가 모여서 '4월제공동준비위원회 (4월제공준위)' 를 구성하여 그 해 4월에 제주시민회관에서 처음으로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 형식을 띤 제주도내 재야 사회단체 중심의 4·3 기념행사는 1993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1991년에는 '4·3사건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가 제주시 신산공원에 위령제를 따로 개최하여 유족 중심의 의례가 처음 공식적으로 거행되었다. 유족 중심의 위령제는 반공 지향성을 갖는 의례로서 재야단체의 추모제와 충돌하였다. 이후 상호 대화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1993년에는 제주도의회가 중재에 나서서 유족회와 4월제공준위가 공동으로 위령제를 개최하기로 협의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되었다. 도의회의 거듭된 중재 노력에 의해 결국 1994년부터 유족회와 4월제공준위 공동주최의 합동위령제 거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합동위령제는 모든 희생자 유족들 간의 화해와 제주도민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결실이었다.

1997년에는 4·3의 상처를 범도민적으로 승화시킨다는 취지로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가 결성되어, 50주년이 되던 1998년부터 매년 위령제를 주최하였다. 2001년부터는 범도민위령제보행위원회가 매년 새로 구성되어 위령제를 주관하였다. 유족회의 위령제는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공준위의 추모제는 탐동광장에서 따로 거행되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던 것이 합동위령제가 되면서 종합경기장에서 치러졌고, 4·3특별법 제정 후 2000년부터는 새롭게 위령공원 부지가 된 봉개동으로 장소가 바뀌었다.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2003년 고건 국무총리가,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위령제에 직접 참석하여 공식사과하고 참배하였다.

추모제나 위령제와는 별도로 4·3문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문화예술단체의 예술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1994년 2월 민족예술의 발흥에 뜻을 같이하는 제주도내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결속체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이하 제주민예총)가 조직되었다. 제주민예총은 발족 직후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목표는 명백히 4·3의 진실 회복에 두었고, 1994년부터 연례적인 4·3 문화예술제(4월제) 개최를 중심 사업으로 삼아 2008년까지 15년 간 그대로 진행했다. 4월제는 한 달 내내 제주시를 중심으로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그 기본구조는 3월 31일의 전야제와, 4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적정기간과 날짜를 잡아서 개최되는 문학제·미술제·음악제·연극제 등의 분과별 행사들의 결합으로 짜여졌다.

전야제의 내용은 초기에는 관덕정 광장에서의 초혼굿과 마당굿으로 구성되었는데, 몇 년 후 거리굿이 그 중간에 첨가되었다. 초혼굿은 시청 앞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유족회·시민사회단체가 어우러져 펼치는 거리굿은 남문로와 중앙로를 거쳐 관덕정으로 이어지는 가로에서, 그리고 마당굿은 관덕정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전야제의 이런 형식 배치는 제주도의 오랜 무속전통을 재현한 것이었다.

1998년 50주년 기념행사는 범도민적인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치러졌다. 1998년 4월제의 화두는 '해원상생'이었다. 4·3의 미래기억을 '항쟁'이나 '통일'과 같은 거대담론에 가두어두지 않고, 공동체의 비극을 딛고 모두가 같이 일어서는 '해원상생'의 경지로 올려놓았다(김영범 2004, 66). 50년 전의 비극의 역사가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월제 기획단은 65m 높이의 해원방사탑을 쌓기로 결정했고, 도민들은 돌을 하나씩 가져다 정성껏 얹었다.

3) 평화담론과 4·3의 축제화

지난 시기 4·3에 대한 인식은 폭동 패러다임과 대규모 희생 패러다임, 그리고 대중봉기 패러다임 사이의 경쟁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4·3 복원운동은 4·3의 의미를 주로 첫 번째 패러다임으로부터 두 번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재규정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패러다임 간의 긴장이나 갈등은 여전히 잠복하고 있는데, 4·3복원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평화담론은 이런 패러다임 간의 긴장이나 잠재적 갈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과이다(정근식 2006, 27).

원래 평화담론의 기원은 1998년에 치러진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의 ‘도민해원상생곳’에서 비롯되었다. 4·3 50주년을 맞이하여 4·3희생자들의 원혼과 제주도민의 한을 풀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원상생곳이 치러졌다. ‘해원과 상생’의 맥락이 합동위령제에서는 ‘용서와 화해’로 전이되었고, 대통령 사과 후 ‘평화’로 전이되었다(현혜경 2008, 134).

집단적 희생을 기초로 한 평화담론은 1998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2003년 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함께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평화의 섬 선포, 2006년 특별자치도 지정과 함께 제주도는 ‘평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통합과 문화정책,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홍콩과 싱가포르 같이 개방체제로 전환하려고 할 것인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원리를 같이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4·3평화공원’, ‘4·3평화기념관’, ‘4·3평화재단’ 등의 명명에서 보듯이, 4·3을 평화와 연계시키는 관념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4·3 평화담론은 국내적인 맥락에서 거론되는 평화통일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동아시아적 맥락에 가깝다고 보인다. 식민 체제나 동아시아 냉전체제 형성기에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국가폭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평화 개념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정근식 2006, 28).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에서의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평화담론은 한국적 범위에 머물지 않고 동아시아의 같은 제노사이드(genocide) 경험을 갖고 있는 히로시마, 오키나와, 난징, 대만 등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다.

1998년의 해원상생굿이 해원과 상생을 통한 4·3 평화담론을 제시한 4·3축제의 가능성을 열었다면, 본격적으로 4·3 기념행사에 평화담론이 도입된 축제적 의례는 2006년 전야제로 보인다. 전야제는 4월제 때마다 치러지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4월 3일의 추념일 전날에 배치되어 전체 4·3 관련 행사에 상징성을 부여해 준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 58주년 전야제의 주제는 ‘생명꽃 피어 평화를 노래하다’ 였다. 이 전야제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평화운동의 방향이 제기되었으며, 4·3운동의 전국화·국제화를 위한 축제의 강한 상징으로 ‘평화’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1부 열림굿으로서 평화의 촛불봉헌, 2부 평화바람, 3부 생명평화, 4부 원 코리아라는 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아시아의 평화나 생명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출연하였다.

1998년의 해원상생굿과 2006년 평화를 주제로 한 4·3전야제는 평화담론을 담은 4·3의 축제 가능성을 예견케 하였다. 그러나 아직 유족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의례와 문화제가 결합된 4·3평화축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지금까지 4·3 기념사업이 갖는 전통적인 해원 관념과 근대적인 평화사상의 결합 지점을 찾아서 본격적인 4·3평화축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4) 5·18의 축제화 사례

4·3의 축제화에 있어서 5·18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5·18은 4·3보다 앞서서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진실규명운동의 전철을 밟았고, 제도화를 거쳐나갔다. 그리고 5·18사업은 4·3기념사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를 문화적 자원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과제도 공유하고 있다(나간채·정근식·강창일 2004; 정근식·나간채·박찬식 2006).

제 6 장 ... 평화축제사업

광주에서 5·18 기념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5월 행사'였다. 해마다 5·18이 다가오면 광주의 5월 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나 문화예술단체들이 5·18을 상기하고 시의성을 띤 정치적 요구를 담은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1997년부터 5월 행사를 5·18기념재단이 주관하였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창조적 열정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사를 공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5월 행사에서 가장 많은 논의를 거친 것은 전야제였다. 전야제는 일상적 시간으로부터 성스러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외부로부터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의식 즉, 성화 의례였다. 지금까지 전야제는 분산적이고 시민의 힘이 집결되는 본 축제보다 오히려 더 성스러운 의식으로 치러졌다. 전야제가 오히려 본 축제의 기능을 하였다(정근식 1998).

전야제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가장 많이 논의한 시기는 1998년과 1999년이였다. 정근식(1998)은 5월 행사 중의 전야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축제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당시의 축제관이 너무 협소하고 전통적 정의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축제를 위한 열정의 문제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정된다면, 축제를 위한 '기술'은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고 다듬어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축제의 이념과 주제, 축제 내용, 자원의 동원 방식, 축제 기간, 경험의 재현, 의례의 미학화 등에 관해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5월 의례나 전야제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일종의 '혁명축제'적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정근식 2006, 24).

5·18의 경우 1980년 이후 5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5월 행사가 진행되었고, 5월 행사를 광주시민과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 수는 없는가라는 고민 속에 '5월 축제'의 구상이 도출되었다. 5월 축제는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인 '지역의 발전'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미래지향적인 주민의 삶과 필연적으로 연관시켜 검토되었다. 마찬가지로 4·3도 비극적 경험을 딛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 과정에서 4·3의례 및 기념행사가 치러졌다. 60주년을 맞이하는 시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점에서 4·3의 미래화를 구상하게 되었고, 4·3의 축제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3. 평화축제의 방향과 내용

1) 평화축제의 기초

21세기 아시아는 안녕할까? 양차세계대전과 기독교·이슬람의 충돌, 냉전시대의 극단적 대립과 탈냉전의 초강대국의 패권시대로 막을 내린 20세기를 넘어선 지금 인류는 과연 지난 세기를 거울삼아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을까?

불행히도 이러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상황은 지난 세기보다 더욱 우울한 앞날을 예견케 하고 있다. 석유정점 시대를 넘어선 화석자원 고갈의 시대, 지구온난화에 따른 선진국과 후발국과의 이해관계,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물·식량 등의 위기, 초강대국의 소멸과 뒤이은 자원 배분을 둘러싼 자원민족·국가주의의 대두, 최근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제2의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할 만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등 21세기의 모든 지구촌의 아젠다는 가히 전쟁과 폭력의 극단적 세기를 예견할 만큼 위험하고 불길하다.

이런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21세기 아시아는 공존이 가능할지 탐색해보자. 지난 세기 서세동점의 100여 년 역사 속에서 동·서양 문명의 충돌은 아시아의 약육강식을 동반했고,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선봉에 섰던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역할은 아직까지도 공존을 위협하는 불씨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의 길을 채택한 중국의 급부상은 올림픽을 정점으로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였으나, 과거에 비추어 미래를 예견할 때 중화민족주의라는 해묵은 패권의 역사가 우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반성 없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제 6 장 ... 평화축제사업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 확장, 미국을 중심에 둔 전략적 군사역할론은 향후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세계정세만큼이나 어두우며, 오히려 일촉즉발의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가 조성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가 '동아시아 평화축제(East Asia Peace Festival)' 를 지금 시점에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시아의 미래는 암울하다. 지금 이대로 남북의 분단상황과 중국·일본의 패권주의로의 길로 치달으면 결국 100년 전보다 더욱 심각한 공멸의 시대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미래에 평화롭게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인의 삶을 모색하지 않으면 동아시아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평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세기의 우울한 기억 속에서 아시아의 공멸의 성찰과 공존의 모색·전망을 위한 평화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당위성을 갖는다.

2)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環狀평화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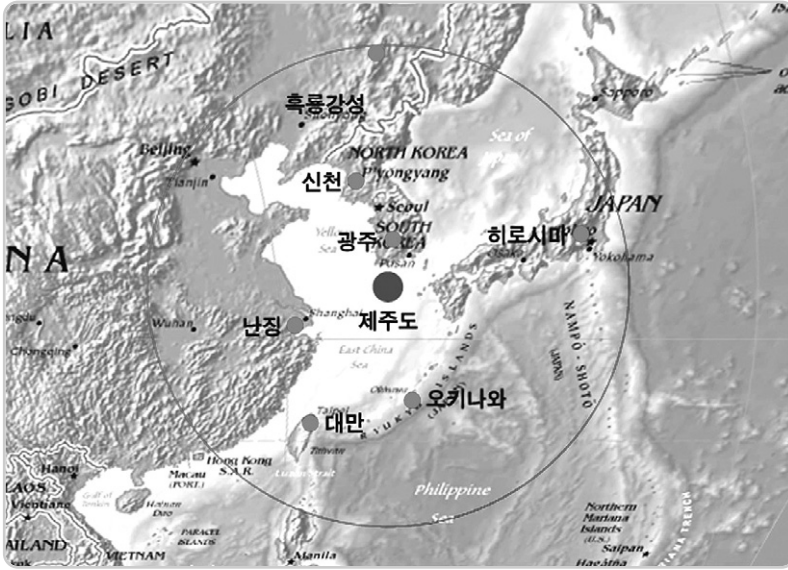
왜 제주에서 아시아의 평화축제를 개최해야 하는가? 평화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한국의 근현대사만큼이나 질곡의 역사를 겪어온 제주섬은 해방공간에 4·3이라는 전대미문의 야만의 역사적 터널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 기억의 끄트머리인 현재 제주섬에서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아시아인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環狀평화네트워크(East Asia Rim Peace Network)' 란 구상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컴퍼스를 동그랗게 돌리면 동그란 環狀에 걸치는 지점의 국가와 지역들은 20세기 현대사 기간에 국가폭력 또는 전쟁에 의한 '민간인학살(Genocide)' 이 이루어진 곳들로 가장 비극적인 지역들이다. 평화와 인권에 대한 믿음과 염원은 바로 역사적으로 비극을 겪어온 이 환상권의 국민·주민들이 제대로 안다고 볼 수 있다.

환상 평화네트워크의 대상이 되는 제노사이드 관련 국가 및 지역은 아래와 같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그림 1>



참여기관	제주 4·3민중항쟁과 민간인대학살 광주 5·18 민중항쟁과 민간인학살
대만	2·28 학살과 백색테러
중국	남경 대학살 흑룡강성 731부대 사건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 오카나와 태평양전쟁 민간인학살
베트남	베트남전쟁 민간인대학살
동티모르	양민학살
북한	신천 민간인학살(향후)

이런 전제 하에 이들 환상권에 해당하는 국가와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기념관·박물관, 연구자, 문인, 예술가 등이

제 6 장 ... 평화축제사업

나서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선양하고,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지역과의 연대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평화운동을 벌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평화운동이 존재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운동들은 대부분 지리멸렬해지거나, 한 국가의 정치적 선택에 의하여 그 색이 변하는 예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아픔의 역사를 공유한 지역의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평화와 인권운동의 발신지로서 함께 하는 경험은 없었다고 본다.

20세기 현대사의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운명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 環狀평화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평화연대의 틀을 확고히 한다. 평화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역사적 진실 찾기’를 위한 연대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시기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을 평화 추구와 인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낸 역사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각종의 매체를 제작하여 회원국 및 지역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훈과 실천 그리고 확산’의 연대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반문명적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교훈으로 삼고, 그 교훈을 실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사업으로 확산시킨다. 이러한 사업은 ‘공동의 번영과 평화미래 실현’이라는 포괄적 의제를 철학적·학문적·문화적으로 실천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3) 동아시아 평화축제의 내용

새로운 단계의 4·3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한 ‘동아시아 환상평화네트워크’의 국제적 연대사업으로서 동아시아 평화축제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이 축제는 제주4·3의 보편적 정신을 계승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발신지로서 역사·문화적 구심축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20세기 현대사에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운명공동체로서의 환상평화네트워크 구축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시기 학살과 야만의 땅에 살아온 사람들의 진혼과 연대를 위해 중국 난징, 대만 2·28, 일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본 히로시마·오키나와, 한국 제주도·광주 등과 연대한 평화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그 동안의 4·3문화예술운동과 4·3국제학술교류의 성과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평화문화예술운동과 평화국제학술공동체로의 승화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2009년에는 우선 '동아시아 환상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석을 놓는 해로 설정하여 우선 '동아시아 환상평화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평화축제의 장기적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단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2009년의 준비사업을 통해, 제주도에서의 평화의 섬, 평화학, 동북아 평화포럼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반전시키고, 평화 논의의 축을 문화와 축제를 중심으로 한 전략으로 이동시키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관심이 지역 활성화나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면, 민주주의·과거청산과 축제의 상호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혁명과 축제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해명하는 연구가 있지만(윤선자 2008),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승리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를 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간인 학살과 같은 어두운 과거사에 대한 축제로의 승화는 더욱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우리가 축제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보다 진전시키고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여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민주화운동 경험과 과거사 문제의 축제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근식 1998, 142).

사업의 중심축은 4·3전야제, 4·3위령제, 4·3문화예술제,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제노사이드 관련 문화예술인대회, 청소년을 위한 평화페스티벌 등에 두고, 세부사업은 각 분과별 전문위원회에서 기획한다. 주요 사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환상평화네트워크에 참가한 각국의 정치·사회적 유명 지도자 초빙
 - 4·3위령제 참석, 위령제단 참배
 - 대표 인사의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비전'에 대한 기조 강연

제 6 장 ... 평화촉제사업

- 연대회의 개최, '동아시아 평화선언문' 채택, 발표
- ② 4·3전야제 / 제주평화선언(국제 평화·인권 문학인, 학자 연대)
- 평화의 도시, 평화선언의 마당
 - 4·3열림굿, 제주도지사 환영사, 제주평화선언
 - 4·3과 제주도를 매개로 한 세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평화 메시지 낭독
(동아시아 각국의 예술인·학자·평화운동가 등 100인 연단 도열)
 - 평화의 도시에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 공연
(초청가수 공연 및 '역사의 노래, 평화의 노래' 공연)
 - 평화의 촛불 봉헌식
 - 4·3해원방사탑 주변으로 원형의 인간띠를 형성, 촛불 봉헌
- ③ 동아시아 환상평화네트워크 추진위원회 발족 조인식
- 정기적 평화네트워크 회의를 위해 민간 주도의 동아시아 환상평화 네트워크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사무국을 제주에 둔다.
- ④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대회
- 동아시아 각국의 제노사이드 및 평화 관련 전문가들의 학술대회
- ⑤ 4·3국제평화음악제
- 동아시아 각국의 초대형급 가수들과 평화·인권 관련 세계적인 가수들을 초청, 국제평화음악제 개최
- ⑥ 동아시아 문화예술인 한마당 / 4·3문화예술제
- 동아시아 각국의 제노사이드 및 평화 관련 문화예술인의 시낭송, 노래, 연극, 미술작품 전시 등 다양한 한마당 개최
 - 거리굿 :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공연팀도 참여
 - 해원상생굿 : 동아시아 각국의 민속팀도 참여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 평화미술전

⑦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 페스티벌

- 동아시아 각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평화체험캠프 개설
- 새로운 세대의 취향에 맞는 페스티벌, 음악제, 영화제 등 개최
- 청소년 평화체험 작품 공모, 수상 및 발표회

⑧ 제주의 역사·문화·생태를 찾아가는 '평화의 길' 순례

4. 평화축제의 과제

축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과거의 사건들을 제대로 재현 해내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런 고민을 축제의 대형화를 통해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두 번 치러진 제주 섬문화 축제에서 보듯이 고민을 덜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안겨주었다. 평화축제를 준비하는 주체 역시 주민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뿌듯해야 하고 동시에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한다.

특히 4·3 또는 제노사이드를 기념한다는 것에는 과거 기억의 상기,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죽음의 장소 또는 그것을 재현한 공간이나 시설을 둘러보는 참배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제도화 이후의 행사는 제주도 내외의 참배객의 다수 방문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4·3기념행사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기념의례나 축제는 모두 관광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에서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관광'이 주로 자연관광이고 그것이 경제적인 맥락에서의 '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성스럽고 죽음과 연

제 6 장 ... 평화축제사업

계된 추념행위(엄청난 희생에 대한 경건한 추모와 경배)에 경제적 효과를 거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지만, 명백히 문화적 자원화와 관광객의 유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정근식 200, 19).

제주도 관광산업은 자연관광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역사문화 관광, 일본군 유적지나 4·3유적지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는 역사문화 관광, 더 좁게는 4·3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평화 통일이나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죽음이나 재앙, 잔학행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나 사건들을 찾아보려는 현상이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를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부른다. 다크 투어리즘은 보다 넓게는 일종의 문화유산산업 또는 역사유산산업에 속한다. 문화유산산업은 기억의 보존을 근거로 하여 형성되며 여기에는 정치적 동기 이외에 경제적 동기와 교육적 동기가 작동한다(정근식 2006, 20).

축제는 목표와 이념, 주체, 내용, 재정 등의 구성요소를 갖는다. 인적 구성을 보면, 축제를 둘러싸고 기획자, 홍보자, 연행자, 구경꾼, 재정지원자 등이 존재한다. 축제의 분석은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축제는 주민들이 표출적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적 축제로 구분된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날의 축제는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축제 참여자의 축제를 통한 지역 정체성의 획득·강화와 함께 대외적 시선을 끌어 모아 '장소를 판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제의 필수적 요소이다.

시·군 단위의 축제들은 종종 기획과 홍보의 측면에서 매우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종종 외부의 이벤트회사에 의존하는데, 이 경우 지역 내 참여가 저조해지고, 내적 역량의 축적이 어려워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정근식 2002). 또한 지역 경쟁적 양상으로 인한 모방,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내세운 과도한 상업주의 등 부정적 측면이 거론될 수 있다. 여전히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형식이나 내용이 자주 바뀌는 등 불안정하고, 과도하게 경제주의적인 목표를 가지며, 지역 간 축제 내용의 차별성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곧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지역정체성의 확립보다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뚜렷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업적의 과시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런 축제의 일반적인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에서의 평화축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 ① 콘텐츠의 독특성: 콘텐츠의 독특성은 기본적으로 평화축제가 다른 축제와 차별화되고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축제의 성격, 프로그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② 프로그램의 차별성: 프로그램은 축제의 질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콘텐츠의 독특성을 올바르게 창의적으로 읽어내고, 참여자들의 체험을 유발하고 함께 즐길 수 있게 하는 유기적인 요소이다.
- ③ 자발적 주민의 참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해당 축제가 자생력을 얻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제는 바로 자발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특히 자치단체들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조급성 등으로 관 주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들을 양산하면서 관행화된 문제이며, 특히 과거 군사독재 시절 소위 운동장 문화제, 동원형·전시형 행사 등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축제 예산의 자발성 역시 중요한데,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고 자원봉사 등으로 축제 운영에 참여하면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 ④ 제주문화의 정체성과 결합: 평화축제에 제주의 민속이나 역사적 콘텐츠가 결합되어 제주도의 풍토성과 문화정체성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야 한다.

제 6 장 ... 평화축제사업

- ⑤ 향후 확장 가능성: 평화축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하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학 차원에서 축제의 규모화가 연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표축제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는 특히 섬문화축제의 중단에서 오는 문화적 공복감이나 좌절된 축제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기도 하다. 섬문화축제의 경우, 급조된 축제는 실패한다는 점, 문화적 관점보다 산업적·경제적 관점이 우선되거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축제를 조직했을 때 그 축제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준 값비싼 경험이기도 했다. 평화축제를 제주도의 대표축제로 내세울 경우 다양한 콘텐츠를 추출하여 축제개발 태스크 포스 팀을 조직하여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평화축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마음의 신명성을 이끌어내는 성패와 다름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외국의 수많은 축제를 벤치마킹하면서도 당장의 성과만을 보고 한꺼번에 성취하려는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음의 신명성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축제의 유·무형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 지난한 학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평화축제의 활성화와 제주도 대표축제로의 발돋움은 인내와 긴 안목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 김영범. 2004. 『기억 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김창민. 1995. 『문화의 지배와 지배의 문화화 -한라문화제의 사례-』, 『문화과학』 7.
- 나간채 · 정근식 · 강창일 외. 2004.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박경훈. 2006. 『4·3문화예술운동의 과제와 60주년』. 『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정책심포지엄 발표요지문』.
- 윤선자. 2008. 『축제의 정치사』. 한길사.
- 윤선자. 2008. 『축제의 문화사』. 한길사.
- 정근식. 1998. 『5월 ‘행사’ 에서 ‘축제’ 로』, 『1998년도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 정근식. 1999. 『사회운동과 5월 의례, 그리고 5월축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새길.
- 정근식. 2002. 『해양축제의 실태와 가능성 - 장보고축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5권 1호.
- 정근식. 2006. 『4·3진상규명운동, 제도화와 문화자원화』, 『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정책심포지엄 발표요지문』.
- 정근식 · 나간채 · 박찬식 외. 2006.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 제주발전연구원. 2008. 『‘세계평화의 섬, 제주’ 와 평화산업』. 보고서.
- 현혜경. 2008.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 7 장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 이 광 진

1. 시작하며

제주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2005년 세계평화의 섬, 2006년 특별자치도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평화의 섬과 관련하여 다양한 평화관련 산업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이라는 저서를 보면 평화비전과 평화산업, 평화도시, 평화관광산업, 평화기반산업, 제주남북경제협력사업, 기타 제주평화사업 등 모든 분야의 산업에 평화라는 개념을 혼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평화 기반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기본계획과 같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평화산업을 대규모 사업위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러한 접근은 도시경관계획과 같은 여타 계획의 접근방법과 자칫 상충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저명한 도시계획가인 케빈 린치(Kevin Lynch)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The Image of City”에서 사람들이 도시의 이미지를 인지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로(paths), 경계(edges), 구역(districts), 교차점(nodes), 랜드마크(landmark) 다섯 개의 요소를 제안하였다. 그가 제시한 5가지 요소는 현재 도시디자인이나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근본적인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관전문가들은 가로와 같은 공적인 영역의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전체 경관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의 가로 경관은 어떠한가? 제주자치도의 가로에 있는 옥외광고물은 제 멋대로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복잡하여 식별성 또한 떨어진다. 보도는 자동차들이 점령한 지 오래되었지만, 지도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도시의 가로등, 벤치, 화분, 휴지통, 공중전화 부스 등과 같은 가로시설물에서 삼다도라는 제주도의 전통성이나 고유한 문화는 찾을 수 없다.

최근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리조성 사업에서도 평화의 개념이나 아이콘을 활용하는 측면이 부족하다.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평화대공원과 같은 메가급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평화 이미지를 도입한 가로시설물을 각종 거리 조성사업에 도입한다면,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가로시설물중 평화를 테마로 하는 가로시설물 디자인 유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로시설물의 개념을 정립한 후,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하는 평화의 상징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가로시설물의 개념 및 유형

1) 가로시설물의 개념 및 역할

가로시설물이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안락, 편리, 안전, 의사소통, 정보전달, 유도, 제한, 조절, 보호 그리고 즐거움 등을 줄 목적으로 도시의 도로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들을 말한다. 즉, 가로시설물은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벤치, 블라드, 우체통, 공중전화 부스, 가로등, 신호등, 버스정류장, 분수, 휴지통 등이 가로시설물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 가로시설물은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며, 이들 개개의 디자인이나 적절한 배치는 인간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도시공간에 생명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장소성을 부여하기도 하며, 도시 및 가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가로시설물들은 다른 환경설계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의미 또한, 매우 크다고 하였다. 가로시설물의 역할은 가로시설물 개별이 가지는 기능과 공간을 만드는 기능, 지역적 특성을 만드는 기능으로 나뉜다.

2) 가로시설물의 유형

가로시설물은 인간, 사회, 환경의 접점에 위치해 있으므로, 인간과 가로시설물의 관계는 도구로서의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가로시설물이 입지하는 환경과의 조화 즉 미관의 관점에서도 고려되어 그 환경에 대한 기능이 충분히 만족되어야 한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가로시설물의 분류와 기능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가로시설물의 유형

분류영역	가로시설물	내 용
휴식계	벤치, 쉼터, 파고라, 휴지통	휴식 및 풍경을 즐기는 내용을 포함함
조명계	기능 및 조명연출	어둠을 밝히며, 환경연출의 기능을 가짐
판매계	키오스크, 판매대	거리에 활기를 주며, 편의를 도모함
정보계	안내판, 사인	편의성과 교통정리 기능 및 환경을 쾌적하게 함
교통계	버스정류장, 택시승차장, 볼라드	통행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함
도시기간 시설계	전신주 및 관리부스, 공중전화부스	사회생활전체를 유지함
조경계	식재, 플랜트	보행공간 환경에 변화를 주며, 쾌적함을 제공함

3) 가로시설물의 종류

(1) 휴식계

(가) 벤치

벤치의 기본형태는 3~4명이 걸터앉을 수 있는 도구로서, 등받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다. 벤치는 보기에 평범한 공공시설물이지만 사실은 인간공학적인 타당성, 구조적인 안정성, 유지관리상의 편의성, 안전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제품이다.

형태와 크기, 재료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이용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보기도 좋고 앉기도 편한 벤치를 설치해야한다.

제 7 장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나) 쉼터

쉼터의 본래 의미는 비를 피하는 장소, 피난소, 오두막이지만, 일반적으로 지붕이 달린 것을 지칭해서 쉼터라고 한다. 유형은 소형의 것에서 큰 공간을 덮는 대형까지 있다. 기능은 햇살을 차단하거나 비와 눈을 막는 것 중심이다.

그러나 장소에 따라 상징적인 형태로 하거나, 현속한 표정에 의해 공간의 연출에도 사용하고 있다. 규모로는 사방 3~4m, 높이는 2.5~3.0m가 표준이다.

(다) 파고라

파고라는 원래 포도나무 덕에서 유래되었으며, 의장수법에 의해서만 들어지는 일종의 조경구조물이다. 쉼터와의 차이점은 햇빛은 막을 수 있지만, 비, 눈, 우박 등은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원형, 타원형, 격자형 등으로 조립되며, 천정은 덩굴성 식물, 짚, 천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라) 휴지통

휴지통은 소형과 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형의 것은 시가지, 공원, 역 내부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용량도 50~70리터가 일반적이다. 요즘은 자원 재활용 등으로 분리시스템이 발달하여 같은 형태의 휴지통에 커버를 바꾸어 분별 사용에 대응하고 있다. 이 경우 커버의 형태나 그래픽,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선택 · 설계에서는 상당히 거칠게 사용되는 점과 매일 회수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강도와 본체의 내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조명계

가로등의 높이는 보통 4~12m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도로 폭이 12m 이하면 도로에서는 10m, 도로 폭이 12m 이상되는 도로에서는 12m 높이의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높이를 결정한다. 광장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나 대형주차장 같은 곳에는 15~30m 정도 높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이의 가로 등을 설치하여 공간 전체를 효율적으로 조명할 수 있고, 가로등 난립을 방지하면서도 먼 곳에서도 주차장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인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장소에 따라서 높은 가로등 보다는 바닥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소의 유도성을 제고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로등은 디자인, 기능성뿐만 아니라, 설치 높이를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3) 판매계

판매계의 가로시설물은 보행자의 편리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와도 대응해서 거리에 활기를 준다. 예를 들어 축제기간 중 임시로 설치되는 포장마차, 판매부스나 캡슐, 실외에 설치되는 자동판매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4) 정보계

정보계는 정보를 전달해서 옥외활동에 있어 사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안내판은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문자나 도형, 색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표식, 상징, 안내 및 전달, 위치 인식 등의 방향성과 인식성을 확보해주는 시설물을 말하며, 각종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본연의 역할외에 안내판 그 자체가 가로에서 아름다운 경관대상이 되기도 한다.

안내판을 설계할 때는 기능면에서 알기 쉽고, 즐겁고, 정보를 잘 전달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과 조화되고 위화감이 없는 형태나 배치가 되어야 한다.

(5) 교통계

교통계의 가로시설물의 기능은 운송수단을 쾌적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옥외의 교통을 안전하게 운행시키고, 사람의 보행을 지원한다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통계의 가로시설물은 거리에서 눈에 잘 띄는 기호성을 가져야 하며, 비나 바람을 막거나 다른 교통으로부터 안전 확보 등의 기능은 필수사항이다. 안전을 위한 가로시설물은 교통을 정리

제 7 장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가드레일 등도 포함된다.

(가)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장

정류장은 대중교통기관인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가로시설물이다. 대중교통량이 큰 도시에서의 택시, 버스 정류장은 대형이므로 가로경관을 형성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규모 읍·면 단위의 버스정류장은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설물이 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제품화된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물의 훼손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시설물 자체가 표지의 역할을 하도록 명료성과 인식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색채는 주위 경관과 조화시키고, 도색위주로 하되 자재를 다양화하여 그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나) 블라드

블라드는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유용한 방책이 되며, 연석을 대체물로 이용하거나, 그 둘을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블라드는 거리를 불필요하게 산만하게 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지막한 블라드는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보도 및 주차지역에서 높이가 낮은 조명기구 설치대로 이용할 수 있다.

블라드는 그 도시나 지역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형상으로 디자인 하거나 화분대를 겸한 형태로 하여 조형성을 살리는 등 블라드 자체의 크기, 모양, 색채 등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배치간격과 조명을 도입하여 변화를 준다면, 가로경관에 도입되는 시각적 요소로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블라드의 높이는 자동차 범퍼를 기준으로 하여 70cm 정도로 하고, 40~50cm 정도가 되면 1인용 벤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6) 도시기간시설계

도시기간시설계는 도시생활을 안전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용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시민이 사용하거나 눈에 떨 기회가 적은 시설이다. 그러나 점점 및 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공공도로 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조경계

조경계의 기능은 시각적, 감각적인 이용자의 쾌적성을 목적으로 계획·설치된다. 경관적 기능과 더불어, 시용성이나 생태적인 효과 등도 생각하면서 계획되는 경우가 있다.

(가) 가로수 보호판

가로수 보호판은 식재대에 수목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망인데, 철책의 일종이라 생각하면 된다. 보호할 덩개의 안쪽 부위는 나무가 성장하면 떼어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적당한 여유를 두고 만들어야 한다.

(나) 화분

화분은 나무나 관목, 화초를 대지에 직접 심을 수 없는 경우 사용된다. 화분을 배치할 때 주의사항은 주위의 거리 풍경과 관련이 없는 단독화분은 피해야 한다. 무리를 이룬 화분은 더 큰 효과를 주며, 좌석을 위한 호젓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화분은 전체적인 거리 풍경의 일부분을 이루어야 한다. 화분은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게 하고 인위적 훼손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화분은 기계적 조작과 위치 지정시 굽히거나 깨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한다. 또한 화분재료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 토양의 수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3. 제주자치도 가로시설물의 실태

제주의 가로시설물 또한 여타의 국내 지역의 실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무질서함과 부조화가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인하여 체계적이지 않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가운데 시행되어져온 가로시설물의 정비가 시급하며 도시기능의 목적과 주제에 어울리는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1) 간판

제주의 옥외광고물 또한 여타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함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

<그림 1>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시설물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 중 간판과 옥외 광고물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의 개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 거리

제주의 거리는 적치물과 시설물들이 보행자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이 걸으면서 즐거움과 여유로움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거리를 정비함으로서 그 지역의 정취를 만끽하고 공간의 편안함과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이 인간 중심의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림 2>



<그림 2-1>



3) 공중전화 부스

이동통신기술이 발전하고 휴대전화의 보편화하면서 공중전화 이용자는 격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로에 낡고 오래되어 도시미관과 어울리지 않는 공중전화 부스는 사용자와 더욱 멀어지면서 종종 훼손돼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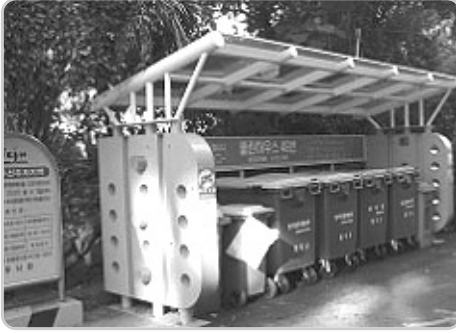


4) 쓰레기통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린하우스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거리의 쓰레기통이 관리상의 문제로 사라지면서 도시의 미관과 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리에 놓여진 몇몇의 쓰레기통들도 지역적 정서와 거리가 멀고 쓰레기 통으로 인지하기 힘들어 보인다.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잘 활용한 쓰레기통 디자인을 통해 시민이 보다 자발적으로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그림 4>



<그림 4-1>



5) 교통표지판

거리에 설치된 건널목 표지들이 너무 높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시점과 맞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고 빠뜨어지게 설치되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몇몇 표지판은 언뜻 봐도 거칠게 보인다. 그리고 가로 덧댄 보강재에 빗물이 고여 녹슬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운전자는 표지판 앞면을 보지만, 보행자들은 녹과 먼지로 오염된 표지판의 뒷면도 보게 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뒷면도 아름다운 표지판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림 5>



<그림 5-1>



<그림 5-2>



제 7 장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6) 도로 경계석

제주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도로경계석을 현무암 재질의 짙은 회색의 돌을 사용함으로써 도로의 색상과 느낌이 유사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소재와 방법의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6>



7) 볼라드(bollard)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는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경계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었지만 무거운 돌을 그저 길에 올려놓은 인상을 주며 비상상황 발생시 가변적이지 못한 면과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볼라드는 작지만 도시 경관을 이루는 주요 요소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그림 7>



<그림 7-1>



8) 가로등

가로등은 야간에 도로나 보도를 비춰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서 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해 가로에 설치되는 대표적인 시설물이다.

<그림 8>



<그림 8-1>



<그림 8-2>



<그림 8-3>



가로등의 그 기능이 야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폴대 부분의 베너걸이는 도시의 홍보물을 설치하는 기능도 가지며 더 나아가 도시의 조형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장되고 지역의 정서와 거리가 먼

제 7 장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난잡한 결과물들이 설치되는 것에서 보다 세심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9) 게시판

제주도의 형상을 응용하여 게시판으로 제작된 듯이 보이거나 외곽의 색상이나 받침의 역할을 하는 화강암 재질의 기단이 제주의 도시 미관과 어울리지 않아 부조화를 이루는 듯하다.

타원형의 현무암의 외형을 보여주는 듯이 보여서 외곽의 색상을 자연스러운 현무암의 다공질 문양과 색상으로 교체되었으면 더욱 자연스러운 게시판이 될 것 같다.

<그림 9>



4. 평화의 이미지를 도입한 가로시설물 디자인

제주도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와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제주의 평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평화대공원과 같은 메가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 이미지를 도입한 가로시설물을 각종 거리 조성사업 시에 도입한다면,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필자가 평화를 테마로 제작한 가로시설물 디자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디자인 컨셉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진정 평화로운 마음으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인 비둘기를 고찰하여 거리 시설물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누가 무어라 말하지 않아도 비둘기를 보면 ‘평화’ 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또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각종 행사나 평화를 기원할 때 날려 보내는 상징적 동물이다.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노아에게 올리브 가지를 가져다줌으로써 대홍수가 끝났음을 알렸기 때문에 비둘기는 평화의 고전적 상징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서 비둘기가 안정, 평안, 화평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쓰인 바 있으나 평화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서양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옛 선조들 또한, 비둘기를 부부금슬을 상징하는 새로 생각했다. 이는 비둘기가 한 번 짝을 맺으면 짝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비둘기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흰색과 검은색 한 쌍을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검은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부부해로 하기를 염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서 사용되는 예를 보자면, 이념적으로도 비둘기파(Doves)는 정책을 추진하는 면에서 성향이 부드러운 온건파(평화주의자)를 일컫는다. 2003년 12월 설립된 민간단체 ‘세계평화를 향한 비전’은 인류애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오드리 햅번 상이라고도 칭해지는 평화상을 제정하고 수상자에게는 피카소가 그린 평화의 비둘기 모양의 편이 주어지고, ‘국제연합의 친구’ 라는 호칭을 부여한다. 이 단체는 지뢰 제거, 전쟁지역에서 농작물 가꾸기, 대량살상무기

제 7 장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폐기 등의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운동의 상징인 ‘평화의 비둘기’ 편을 유명 영화배우들이 착용한 뒤 인터넷 경매로 팔아 단체 기금을 충당하고 있다. 이렇듯 비둘기는 평화의 대표적 상징물로서 현재에도 그 의미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2) 평화이미지의 디자인시도 사례

<그림 10> 폭력을 평화로
반전한 작품



<그림 10-1> 반테러 캠페인 및 캐릭터
공모전 중 유소정작



<그림 10-2>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동상



<그림 10-3> 반테러 캠페인 및 캐릭터
공모전 김유선작
"Peac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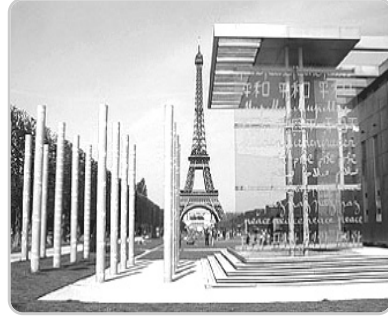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그림 10-4> 나폴리 안드레아 성당
광장의 비둘기조형 설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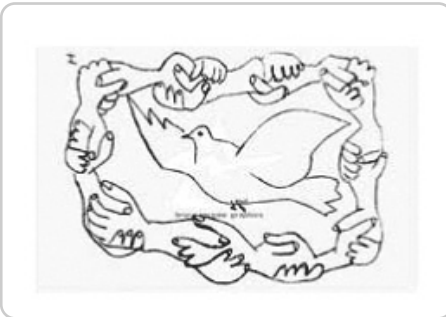
<그림 10-5> 각국의 언어로 쓰여진
평화의 기둥(프랑스)



<그림 10-6>

피카소의 평화의 비둘기

<그림 10-7>



3) 평화이미지의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발 제안

(1) 가로등

새의 형상을 가로등 반사판에 적용하여 평화로이 하늘을 나는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기존 가로의 폭이 좁은 거리환경을 감안하여 간접조명으로 그 기능을 수용하면서 평화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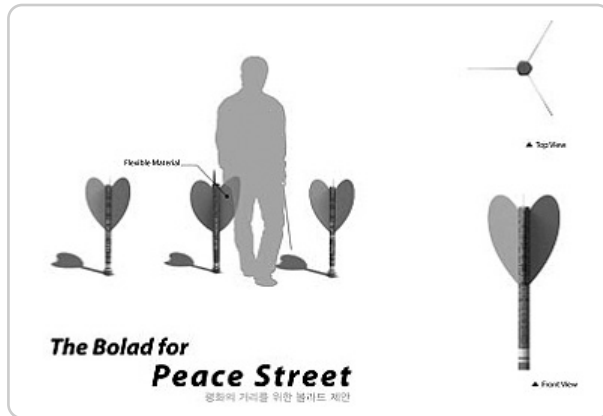
제 7 장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그림 11>



(2) 블라드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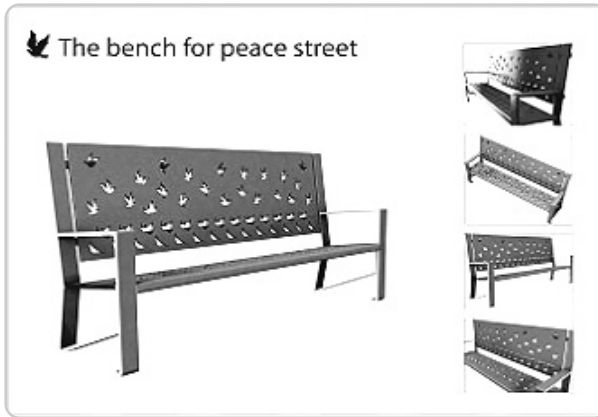
블라드는 통행의 안전과 차량의 통제가 가변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는
기능성을 고려하여 금속재질로 디자인하였고 반전의 의미로 미사일의 형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태에 “No War” 라는 문구를 새기고 날개부분을 핑크색개열의 밝은 색상으로 하트이미지가 연상되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반전의 의미를 더하여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부드러운 색상만큼 부드럽고 탄력있는 재질로 보행자가 접촉 시 자연스럽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역할로 설계함으로서 보행자, 어린이, 장애인들의 보행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3) 벤치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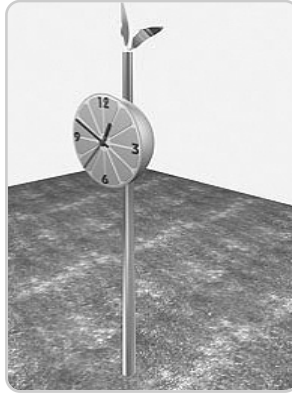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의 형상을 벤치의 앉는 바닥과 등받이에 구성하여 타공함으로서 넓은 면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통풍과 우천시 물의 배출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제 7 장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4) 시계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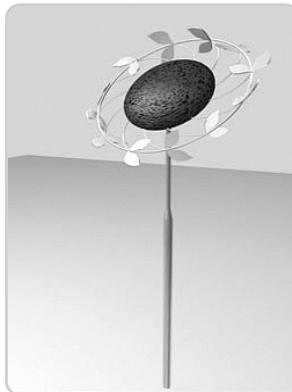
<그림 14>



평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에서 북한에 감귤보내기 운동의 홍보와 제주의 대표 생산품인 감귤을 제주의 상징으로 시계의 기계장치 부분을 표현하였고 상단부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앉아있는 형태로 제주적 정서와 평화를 접목시켰다.

(5) 상징조형물

<그림 15>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평화의 섬 제주도의 형태를 제주의 다공질 현무암재질의 타원형의 둥근 돌로 표현하고 제주도의 주위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돌고 있는 형상으로 평화를 수호하는 의미로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디자인 하였다.

(6) 파고라

<그림 16>



파고라의 구성요소 중 그늘막과 둘러앉을 수 있는 의자를 일체형으로 디자인하여 시공성과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단부에 주위를 날고 있는 비둘기형상을 배치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나무를 안쪽에 식재하였을 때 보호막 역할도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제 7 장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7) 쓰레기통

<그림 17>



거리의 쓰레기통에도 비둘기의 형상을 패턴화시켜 평화의 메시지와 흥미성을 부여하여 시민의 보다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보도 경계석

<그림 18>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보도 경계석에 다양한 각국의 언어로 평화의 글자를 새김으로서 제주를 찾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주어 “평화의 섬 제주”의 의미를 공감하도록 하여 제주의 평화이미지를 제고하고 제주 관광의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5. 맺는 말

제주도에서 평화의 가치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평화산업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민의 소득향상과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제주도를 세계의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고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거듭나면서부터 일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규제완화 확대 등 정책 환경의 변화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혜였던 정책들이 더 이상 특혜가 아닌 특례상실을 가져왔고 더 나아가 이제는 무한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에서는 타 시도와 차별성을 갖고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고자 제주의 미래 산업으로서 평화산업을 역점사업으로 육성·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막대한 자본으로 진행되는 대규모사업에서도 평화의 개념과 아이콘을 적극 활용 할 때, 진정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평화관광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필자가 제시한 평화의 거리 환경조성사업은 도로 환경시설물 개선에 적은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구성요소에 평화의 테마에 걸 맞는 구성요소를 적절히 부여함으로써 향후 평화사업의 메가 프로젝트와 더불어 평화테마 지구를 지정하는데 단초가 되어 진정으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며 평화 관광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제주의 관광요소 중 야간관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

제 7 장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점에서 또 다른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여 야간시설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야간의 거리 시설물과 일상적으로 거리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을 평화 콘텐츠화하여 거리 시설물을 조성함으로써 적은 자금의 투입으로 주·야간을 아우를 수 있는 관광의 효과를 배로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평화의 거리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개발 유형을 제안 하였다.

참고문헌

- 이종욱. 2003. Kevin Lynch의 이론을 통한 한국도시의 공공성확보에 관한연구-이태원지역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득곤. 2004. “도시경관 정체성 제고를 위한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 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인천호. 2003. “문화유적단지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스트리트퍼니처 디자인 연구방안.” 미술·디자인 논문집 제8호.
- 송민정. 이윤미. 2006. “지역정체성을 살린 가로시설물 개선방안.”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2(2).
- 권영걸. 2008. “권영걸교수의 공공디자인산책 55 Topic in Public Design” 도서출판 가인디자인그룹.
- NAVER, 용어사전-정치-“비둘기파”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2&docId=3381>(검색일: 2008.8.12).
- 사인문화, “상징의 비밀” <http://www.signmunhwa.co.kr/bookreview/2000-03.html>(검색일: 2008.8.12).
- encyber 두산백과사전-“오드리햅번평화상”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 (검색일: 2008.9.10).
- naver용어사전-인물 “오드리햅번”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8&docId=5067> (검색일: 2008.8.20).
- KBS다큐 걸어서 세계속으로 - “그들은 말한다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 아시시 프란치스코성인의 동상. <http://cafe.naver.com/firenze/32752> (검색일: 2008.8.12).
- 피카소의 평화의 비둘기. <http://blog.naver.com/haesii/100016139313> (검색일: 2008.9.15).
- 월간디자인 2004.10월호.

제 8 장

맺는말: 제주평화산업육성의 선결과제

..... 고 성 준

1. “평화의 섬”구상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으로

1991년 4월, 당시 공산주의 국가의 원조인 소련 대통령인 고르바초프가 제주를 방문하여 반공국가인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제주에서 가졌다. 이 한·소 정당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으로써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를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가 실현 되도록 기여하는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미 6·25 한국전쟁에 앞서 분단의 후유증으로 인한 이념 대립과 유혈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제주4·3사건’을 겪은 제주인들이다. 그럼으로 그 치명적인 역사가 입힌 아픔을 승화시킬 수 있는 ‘평화공동체’ 건설에 대한 강한 염원을 가지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였다(고성준 외 2004, 12). 특히 ‘삼무정신’으로 상징되는 문화·역사적 전통과 유산은 제주가 평화를 지향해 온 섬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원천으로 작용하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였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화 속의 제주도’ 라는 명제 아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기저에는 역사적인 한·소정상회담의 제주개최로부터 발상한 제주를 ‘평화의 메카’ 로, ‘평화 교류의 중심지’ 로, ‘평화 협력의 학습장’ 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전략적인 구상을 앞세워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발점이 있었던 것이다.

‘평화의 섬’ 제주가 분단과 냉전으로 신음하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고, 나아가 세계 모든 지역의 평화 질서를 형성,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주인은 물론이고 세계인의 평화 염원에 부응하는 흔쾌한 기치이다.

이런 일관된 미래지향적인 구상은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제주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하여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 확산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지방화시대의 도래로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되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제주의 평화염원에 뒷받침하듯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일본,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제주에서 개최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를 위시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 방문 시에는 꼭 제주를 찾게 함으로써 정상외교의 최적으로 부각시키면서 ‘평화의 섬’ 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지원하였다.

1987년 6월 광주민주화운동이 계기가 되어 ‘제주4·3사건’ 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되었는데,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입장과 이념이 다른 관련단체들이 ‘4·3위령제’ 를 합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개기가 되어 화해와 상생의 단초를 보여주었다. 진상규명과 도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제주4·3특별법의 제정이 필수적인 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 의회 내에 ‘제주4·3특위’ 가 꾸려졌다. 또한 각 계각층과의 연대와 협력 속에 이루어진 청원운동이 결실을 맺어 1999년 12월,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이 통과되었다. 이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 중앙위원회와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 실무위원회, 제주도에 4·3 지원사업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고 평화의 성지가 될 4·3 평

제 8 장 ... 맺는말: 제주평화산업육성의 선결과제

화공원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2003년에는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차원의 사과를 표명했다(고성준 외 2004, 114-131).

이러한 노력들은 적대적 분단시대에 이념의 대립으로 치러진 전쟁과 폭력에 대한 기억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으며,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부상케 했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제주인들이 기울인 노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남북한 사이의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데도 일조하게 된다.

제주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민들은 경제위기에 처해 있었던 1998년부터 북한에 사랑의 감귤 보내기 운동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분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제주야말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킨 쾌거였다. 그 결과 2000년 6·15 선언 이후 일련의 남북장관급 회담을 비롯하여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제주에서 활발히 개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민간 체육문화 행사와 제주에서 개최된 국제경기대회에 북한 팀의 출전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교류가 이뤄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는 제주산 감귤·당근 북한 보내기 운동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화답으로 제주도민대표단을 북한으로 초청하는 대규모 인적교류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분명히 인도적 지원이 인적교류로 이어지는 분단사의 새 지평을 연 좋은 사례이다.

1991년 한·소 정상회담 이래 3차례의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와 외국 정상들의 제주 방문을 통해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중심지로서 「제주」의 위상을 중앙정부는 확인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 새롭게 태어나려는 제주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999년 개정된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이어 채택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정부차원에서 '평화의 섬'으로 제주가 뻗어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의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지를 밝히고, ‘세계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를 다져놓았다.

이러한 일련의 중앙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여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것이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식공동체를 형성하는 「제주평화포럼」의 개최였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돌아보면서 남북화해·협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1990년대 냉전체제가 허물어져 가는 시기에 한·소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관련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개최되었던 제주가 세계유일의 냉전지역인 남북한 문제와 관련, 국내외 석학과 전·현직의 세계적 지도자를 한 자리에 초빙하여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의 길로 이어지는 지혜를 모으는 학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기로 한 제주평화포럼은 2003년에 2차, 2005년에 3차, 2007년에 4차로 이어졌다.

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문에 서명하고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선포했다.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제주를 명실공히 ‘세계평화의 섬’임을 대내외 알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제사업을 지원한다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뒤이어 정부가 공표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선언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실천프로그램이면서 후속조치의 성격을 가진 17대 사업도 지정되었다.

17대 사업을 크게, 그동안 추진해온 4·3 관련 사업과 남북교류 사업들,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서 열거한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됐거나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민족평화축전,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등의 사업은 유보된 상태이고 모슬포전적지 공원 조성은 초보적인 논의 단계 상태에 놓여 있다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2007, 16).

2. 제주특별자치도의 승격과 전환기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국제자유도시의 건설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 추진이 추동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띄고 있으나, '세계평화의 섬, 제주' 개념에 대한 도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즈음 대두된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도민사회의 분열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아래 과연 '세계평화의 섬, 제주' 를 온전히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정체성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칫하면 90년 초부터 전개해 온 평화의 섬 만들기 운동이 다만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한 시점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제주도민들 중에는 20년 가까이 노력해온 평화의 섬 만들기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지금까지 이 운동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에 비해 이윤이 많지 않은 사업으로 보는 견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지출만 있고 남는 게 없는 그야말로 본전을 잃어버리는 장사가 아니냐 하는 실리적 견해를 내놓고 토로한다.

90년대에 개최된 4차례의 정상회담과 세계각국정상들의 제주방문이가져온 '세계평화의 섬, 제주' 에 대한 해외홍보효과는 대단히 컸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제주도는 꼭 관광해야 한다는 생각도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의 제주방문과 이를 보도한 중국 언론의 효과이다. 그러나 외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에 필수 조건인 인프라구축에 소홀하게 대처함으로써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관광수입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바,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서 도민들 사회마저 '평화의 섬 제주' 로 인한 부가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또한 2005년 1월 정부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는 17대사업 중 국제기구의 유치, 모슬포전적지 공원화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 유보 조치하거나 또는 지연시키고 있다.

평화 관련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있어도 성사가 불투명한 블루오션 사업에 속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신규사업에 대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도민들로 하여금 적잖이 실망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

물론 17대사업 중 '제주평화포럼'의 개최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반도의 평화정책이 바로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성과가 당장 없고 보니 남북관계도 지그재그식의 전개, 북핵문제의 상존 등과 겹쳐 일부 도민들이 이 사업의 지속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라고도 봐진다. 게다가 해군기지설치문제가 도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여론수렴 절차가 모자라는 등 시작부터 시행착오를 빚어 정부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 지정 해놓고 이와 상반되는 군사기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기지건설이 국방국책사업으로 확정된 마당에 제주사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분열과 갈등 속에 빠져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사실 무색해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가 미궁 속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중앙정부와 갈등관계를 빚게 되고,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사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제주도의 상황은 지난 20년 동안 도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온 평화의 섬 만들기가 큰 암초에 좌초당할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할 새로운 방향 모색과 이에 따른 전략 구상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동북아시아위원회 제주특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평화연구소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등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제주평화비전과 평화산업」(동북아시아위원회제주특위·제주대평화연구소 2007)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기회와 도전」(제주발전연구원 2008) 연구 프로젝트는 이러한 위기의식에 입각한 지적노력이다.

제 8 장 ... 맺는말: 제주평화산업육성의 선결과제

이 연구의 핵심은 제주평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이다. 그동안 제주출신으로 도 내외에 거주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온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평화의 문제 및 해소를 위한 제주도의 역할,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개념문제, 그 실천사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비추어 보면 제주평화산업의 모색은 새로운 연구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평화산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이 시점에서 이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성우(2008)에 의하면 평화산업이라는 용어는 서로 조화되지 않는 두 개념의 결합으로 모순어법(oxymom)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치철학적 개념에 바탕을 둔 평화개념과 경제적 이익창출에 초점을 둔 산업개념의 결합은 이전 국내의 학계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생소하면서도 새로운 분야인 까닭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이 펴낸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에 의하면 평화산업은 평화를 핵심주제로 설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이 과정에서 평화가 더욱 확산되어 가는 평화번영의 선순환을 의미한다고 일차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

앞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 지정한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또는 책임을 가지고 평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겼던 도민들의 상실감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서 상기하고 넘어갈 중대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은 다만 보조적인 동시에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환기에 처한 '세계평화의 섬' 만들기는 그 실질적인 주체인 도민의 참여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주인이 되어 제주지역특성을 살린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서야 하고 이를 정책화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평화의 섬 만들기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에 있어 그동안 소홀했던 평화운동의 이윤창출 즉 평화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을 동시에 선택함으로써 양득 즉 참여와 이윤창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도민주도의 평화산업 육성은 그동안 평화의 섬 만들기가 자치단체와 학자·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초래된 평화의 섬에 대한 일반도민과의 괴리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민과 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제주평화산업이 구체화되고 실천되면서 그 성과가 나타날 때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명분을 얻게 되고 실천으로 옮겨질 것이다.

제주의 평화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은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의 경쟁도시인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가지지 못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라는 차별화 된 이미지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3. 해외 평화도시들의 「평화산업」

그러면 해외평화도시들의 평화산업 실태는 어떠한가? 일본의 히로시마와 오키나와, 독일의 오스나브뤽 등과 같은 평화도시들은 과거 원폭의 피해, 전투에 의한 인권유린, 30년 종교전쟁 등 실전에 휩싸인 직접적인 파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아픔을 승화시켜 평화를 기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평화도시를 선언한 경우다.

1945년 8월 6일,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이 미국 폭격기에 의해 투하된 일본 히로시마 시(市)는 열선, 폭풍, 방사선에 의해 당시 거주하던 35만 명의 주민이 피폭당하고, 중심부로부터 반경 2Km이내 건물은 거의 파괴되었다. 종전 후부터 히로시마 시(市)는 이러한 참상을 평화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은 전개했다. 49년 8월 평화기념도시건설법을 공포했고 54년에는 평화도시를 선언했으며, 55년에는 평화기념 자료관과 평화기념관을 건설하고 평화기념공원을 정비했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46).

이후 히로시마 시는 평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평화사업은 히로시마 시장이 의장이 되는 세계평화도시 연대의 조직과 4년마다 열리는 세계평화도시 시장회의다.

제 8 장 ... 맺는말: 제주평화산업육성의 선결과제

벤치마킹 차원에서 재단법인 평화문화센터가 주관하는 평화산업도 눈여겨 볼 일이다. 국제적인 평화구축회의, 국제적인 평화학회 심포지엄, 세계대학생 평화세미나 등을 계속 유치하여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외국인들로 붐비는 평화회의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평화콘서트, 평화를 테마로 한 각종 예술 행사가 1년 내내 개최되면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듯 히로시마는 지난날 전쟁의 아픔을 평화로 승화시켜 전 세계 평화의 순례자들이 찾는 평화관광명소가 되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미군과 일본군 사이의 전후에서 당시 주민의 3분의 1이 희생되고, 일본군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아픔이 있다. 오키나와가 전개하는 평화도시 건설은 크게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부분과 NGO와 기업이 전개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오키나와 현청은 전후의 진실이 담긴 오키나와 전후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는 일과 이 전후의 역사적 교훈을 차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평화기념자료관을 운영하고 오키나와인의 평화사랑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오키나와 평화상을 제정 시상하고 있다. 민간단체는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과 교훈을 살리며 오키나와 특유의 문화와 자연소개를 곁들인 피스투어(평화관광)를 여행사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2008, 54-55). 일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오키나와에서 일깨우는 평화수확여행이 시즌이 되면 붐을 이룬다. 또한 많은 성인들도 가족과 함께 오키나와 평화관광에 나서고 있어 오키나와 관광수업증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평화도시를 선언한 독일의 오스나브릭시는 17세기 '30년 종교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온 근대 국제질서를 연 베스트팔렌조약이 체결된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게슈타포 지부가 있어 유대인학살이 심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오스나브릭시는 베스트팔렌조약과 유대인학살 두 역사적 사건이 주는 '평화'의 교훈을 되새기려 조약체결일인 10월 25일을 '평화의 날'로 지정하고 평화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레마르크 평화상의 제정과 '레마르크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평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50). 특히 평화의 핵심 가치인 관용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최대의 시정목표로 내세워 유럽연합에서 '이민자와 난민'이 제일 잘 정착하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평화산업과 관련해서는 유태인으로 나치에 의해 비극적 삶을 산 유대인 화가 누스바움을 기념하는 '펠릭스 누스바움 하우스(Eelix Nussbaum House)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아울러 미술애호가들이 이곳을 찾아 경제적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4. 제주「평화산업」의 육성

위에서 지적했듯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그 20주년을 앞에 두고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언하여, 국가가 평화도시를 선언한 최초의 사례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실천사업이 정례적인 제주평화포럼의 개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 4·3평화공원의 오픈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도민참여, 평화마인드의 확산, 평화운동의 경제성 창출, 다문화공생사회 등은 아직도 제주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도민 사이에는 아직도 평화의 섬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난무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맴돌고 있다. 거기에도 앞서도 잠시 거론한 바, 평화의 섬을 정부가 지정하였으니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극적인 방관자적 태도도 상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과제를 풀어갈 전환기에 처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택할 전략은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한다. 그 답은 「평화주체로서의 도민」, 「평화문화의 함양」, 「평화산업의 진작」, 「외국인과 함께 사는 평화의 섬」

제 8 장 ... 맺는말: 제주평화산업육성의 선결과제

을 동시에 구현해 나가는 실마리는 도민의 주체가 되는 평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도민들은 그동안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지를 표했으나, 실천과정에서는 도민참여가 필수적 요건임에도 그렇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문화의 확산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민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도민이 적극적으로 호응할만한 다양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역사적 유산 중 평화적 전통과 관련된 것을 발굴하는 일이 첫 번째 작업일 것이다. 그 일에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혜를 모으고 단합하는 가운데 평화 상품으로 완성하고 평화 축제에 동참하는 기회를 이용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도민의 참여를 가장 잘 함축시킬 수 있는 문화 콘셉트는 ‘평화 축제’이다. 한국의 어느 지역이나 분단의 전개 속에서 이념의 대립화 갈등이 없는 곳이 없으나, 제주의 경우 4·3사건은 6·25한국전쟁 이전의 ‘한국전쟁’이라고 회자될 정도로 그 아픔이 대단히 큰 사건이다. 제주지역 어느 곳이나 제주도민 누구나 4·3사건으로 인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은 그 해결을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제 해마다 맞이하는 4·3사건에 즈음하여 그 기념행사에서부터 제주도민의 ‘평화의 축제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민 모두가 참여하고 지역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져 제주도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로 4·3사건의 기억을 승화시켜 갈 때, 제주는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내 외에 ‘평화의 성지’가 되어 재탄생할 것이다.

4·3사건 기념 기간 중에 개최되는 평화축제 이외에도 일년 내내 도내 각 지역 그리고 예술 장르별로 평화의 섬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평화마인드를 확산하고 다지는 계기로 삼을 일이다. 또한 그 기간에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랑받는 평화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제주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임을 실감케 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제주에 사는 외국인들이 제주도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어 가시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도민과 언어와 문화의 소통이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있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이 제주인으로 정착함을 고유한 제주문화와 그들의 외국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형성하는 밑거름임으로 이에 대한 배려는 평화를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을 제주사회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이들의 태생적인 자국어 즉 그들이 구사 가능한 외국어 능력과 문화를 활용하여 국제자유도시제주의 국제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체계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가이드 등으로도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활용방안으로서 매우 적절하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한 자리에 모은 ‘세계평화문화교류 장터’를 운영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관광객들에게는 즐겨 찾을 장소를 제공하는 이종의 이익이 보장되는 발상이다. 이러한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배려 프로그램 적용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서의 제주의 개방성을 드높여 ‘세계평화의 섬, 제주’,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면모를 드높이게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제주 평화산업’이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기울여야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시급히 서둘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각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가칭 ‘제주평화산업 추진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협의체에서는 제주평화산업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실천전략 등이 모색되어야 하며 전

제 8 장 ... 맺는말: 제주평화산업육성의 선결과제

문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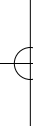
둘째, 이를 토대로 행·재정적 뒷받침할 기구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가칭 '제주평화산업지원 기획단' 이 신설되어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나가야 한다.

셋째, 제주평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민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평화산업 육성위원회' 를 두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세계평화의 섬을 통한 제주경제 살리기

참고문헌

- 고성준 외. 2004.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2007. 『제주 ‘세계평화의 섬’ 성과와 실천전략』.
- 이성우. 2008. “제주미래 평화산업 연구 제2차 세미나(2008.8.26)” 발표원고.
- 제주발전연구원. 2008. 『‘세계평화의 섬, 제주’ 와 평화산업』. 보고서.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인쇄인: 에드텍
발행인: 한태규	주 소: 100-282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편집인: 한태규	217번지
주 소: 697 - 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TEL: (02) 2269 - 4307
중문동 2572번지	FAX: (02) 2261 - 0371
TEL: (064) 735 - 6500	발행일: 2009년 3월 17일
FAX: (064) 735 - 6512	
http://www.jpi.or.kr	
E-mail: jejupeace@jpi.or.kr	

